

연구보고 2008-04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방안 연구

문무경
조혜주

육아정책개발센터

머 리 말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외국인 백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이행해 가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 수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0~18세 미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거의 60%를 차지한다.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시행되어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지원에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지원정책과 사업은 물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들 역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보다 실증적인 기초자료와 입증된 성과에 근거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상당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와 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초기 기관적응과 프로그램개발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실태와 기관의 요구를 파악·분석하고,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정부지원정책의 이력과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해당사례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돌보고 지도하는 교사들의 관점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에 대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피력하고 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정부가 적극 고려할 것을 강조한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정책적 제안들이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와 부모, 교사를 위한 지원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개발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연구 요약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고찰, 정부의 지원정책 분석,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다문화가정 아동 육아지원 실태 및 기관의 요구 조사, 국외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의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내선행연구를 정부지원 정책 연구와 일반 연구로 구분하여 연구 내용 및 방법,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함.
-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방법과 내용을 아동에 대한 지원과 부모를 통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선행연구의 주요결과 분석, 다문화가정 부모 면담, 아동양육 방문교육 지도사 면담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의 육아 실태와 요구를 파악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 지원 실태와 요구를 교사대상 설문조사 및 사례를 통하여 파악함. 즉, 다문화 영유아 현황 및 부모배경, 정부지원수혜여부, 교실환경 및 교재교구, 프로그램 및 활동, 다문화가정 부모와 육아지원 기관간의 연계, 지원관련 요구사항 등에 대해 파악함.
- 국외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과 실천 사례들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최근 외국인 유입의 증대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아일랜드, 다문화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영국, 벨기에의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

- 교사 교육 및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의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및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교사 교육 및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정책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방법

-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국내 정책 자료 등을 검토 분석하고, 다문화가정 0-5세 영유아의 현황 및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을 행정자치부, 통계청 등의 이용 가능한 기존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파악함.
-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대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육아지원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재원하는 육아지원기관 250기관에 단위기관별로 교사 1명씩 응답하도록 의뢰하여 유치원 113기관, 보육시설 103기관, 총 216기관에서 설문 참여함.
- 설문문항은 총 46문항(세부문항 포함)으로,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황 및 부모배경,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수준,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및 급식, 프로그램과 활동, 다문화가정의 참여 및 기관과의 연계, 교사인식 및 요구에 관하여 구성됨.
-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부모, 교사 및 원장, 아동양육방문지도사, 지역 센터 관계자,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내용을 부분 전사함.
-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재원하는 육아지원기관의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기관을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있는 학급을 중심으로 관찰을 실시함.

- 국외의 다문화관련 육아지원정책과 교사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함. 각국의 취학 전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의 배경과 특징 및 주요 연구들에 대하여 자료수집함.
- 다문화 관련연구 책임자, 중앙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원센터 담당자, 현장관계자 등과 총 12회의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 및 범위, 자료해석, 관련 이슈와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검토함.

II. 연구의 배경

1. 사회적 배경

-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 사회적 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큼.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전개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르므로 향후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측해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ECD국가들에서는 이민가정 자녀로 급증하고 있는 아동의 교육실패 위험을 줄이고자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의 주요 이슈를 서비스 이용기회, 공공재원 투자, 아동빈곤, 가정과 육아지원기관의 연계, 교육과정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 확대, 정책실현성 높은 수혜대상 아동 선정, 다양성에 기초한 대안적 교육과정을 설계, 교사들 다문화교육을 강화, 지역사회 자체적인 정책개발 지원을 제안하고 있음.

2.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황

-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8년도 기준, 58,00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6.5%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만 6세이하 아동 비율은 57.1%를 차지하여 취학 전 아동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만 6세이하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 출신국별 분포는 조선족, 베트남이 가장 많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이 많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교육청 단위 조사에 의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유아는 총 2,929명으로 파악됨(2007년 5월 기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현황은 현재 이용가능한 통계자료가 없으며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정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될 예정임.

3. 선행연구 검토

- 다문화가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정부 지원으로 수행된 정책연구와 일반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 정책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부에서 상당수의 정책연구가 실시되었음. 2007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여 3개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 다문화가정에 관한 일반연구는 크게 1)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의 적응 및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2)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양육가치관 및 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3) 영유아교사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과 지도에 관한 연구, 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음.
-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전반적으로 인지, 언어, 사회발달 수준에 있어서 일반가정의 영유아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있어서 지원받기를 희망함.
-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가정방문 형태의 지원서비스를 가장 선호하며, 한국어와 자국어 공용의 정보를 제공받기를 요구함.
-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잘 적응하는 경우는 교사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함.
-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는 2006년 다문화가정 문제가 국정의제로 채택되면서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시다발적인 연구결과와 정책제언들로 인해 지원 정책의 중복성과 정책집행의 일관성이 떨어짐. 특히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규모 사례연구로 수행되거나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상당히 제한적임.

III.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법

-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 법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에 제정되어 지난 9월부터 시행됨.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관련법으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9조('08. 3)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입학 절차를 간소화(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함.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재한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 등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함.

-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지원 협약으로 유엔의 인권관련 협약에 의하여 이주근로자 자녀는 한국의 일반아동과 동일한 교육권을 가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91 비준)과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03.1)에 근거해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짐.

2. 중앙정부 지원정책

-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2006년 국정의제로 채택된 것을 기점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담당기관들 또한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다양한 부처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은 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무부서인 평생교육직업국의 잠재인력정책과는 학령기 자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및 부모 지원 사업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양육지원' 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의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수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이 추진됨.

3.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 현재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민간단체 822개 기관 중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수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6개 시·도에서는 각 지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양육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 시·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아동의 교육,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정책과 사업이외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민간기관 지원은 주로 종교단체, 복지관, 이주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민간기관은 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IV. 다문화가정의 육아 실태 및 요구

-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면담에 의하면,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비용 부담 수준을 가장 먼저 고려하며, 그 다음으로 가정과 기관과의 거리, 접근성을 고려함. 비용부담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원 또는 선교원을 이용함. 프로그램의 질을 고려하는 다문화가정 부모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육아문제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주여성이 주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가부장적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자녀 양육에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다문화가정의 주된 양육자가 이주여성인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함.
 - 어머니의 정확하지 않은 한국어 발음 때문에 자녀들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음.
 -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필수적인 육아지식이나 개념이 부족하고 주위에 조언을 구할 친척이나 이웃도 없어 자녀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시부모, 남편과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생기는 갈등이 자주 발생함.
-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자녀 학습 및 기본생활지도,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 저소득 다문화가정에게 보육료 지원, 남편의 다문화교육, 재혼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며, 교사

와 학부모 관계가 좋은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교사와 이주여성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들은 자녀학습 및 양육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현재 5-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양육지도 서비스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함.

V.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가정 지원실태 및 요구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수준에 대해 교사가 평가한 결과, 일반아동에 비해 신체발달, 언어발달 및 또래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상'수준의 비율이 많고, '하'수준의 비율은 7% 미만으로 나타남. 다만, 듣기보다 말하기에 있어서 '하'수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12.5%).
- 교실에 비치된 다문화가정 영유아 부모 나라와 관련된 동화책이나 다양한 소품의 비치 정도와 가족사진 부착여부에 있어서 응답한 교사(기관)의 절반정도 또는 그 이상이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이 미흡함을 알 수 있음.
- 유치원이 보육시설보다 다문화가정 관련한 아동용 도서 및 소품 등이 더 많이 비치되어 있는 반면, 가족사진 부착여부는 보육시설이 유치원보다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교육·보육 계획을 세울 때 유아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는 약간 고려하는 경우가 56.0%이며, 거의 40%에 가까운 교사들이 거의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로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일반가정 영유아와 별 차이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87.5%)이 절대적임.
- 일반가정 영유아들에게 다문화 및 다문화친구에 대하여 가끔 교육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6%, 별로 교육하지 않는 경우가 33.8%로 조사됨.

- 유치원이 보육시설보다 다문화교육을 자주 혹은 가끔 실시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영아 대상으로는 다문화교육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높은 반면, 유아에서는 가끔 교육하고 있는 경우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등하원 면담이 5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화 상담이 12.7%임. 이외에 공식적인 학부모 면담, 안내문이나 알림장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지도 및 양육방식에 있어서 다문화가정과의 문화적 차이를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1.5%로, 아직 교사들이 민감하게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보육교사가 문화차이를 경험한 비율이 유치원교사보다 높았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교사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 문화차이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지도할 때 교사들이 가장 비중을 두는 영역은 언어발달 32.4%, 사회성 발달 26.9%, 정서적 안정감 15.3%, 기본 생활습관 지도 10.2%임.
- 유치원에서는 사회성 발달에 비중(36.3%)을 가장 많이 두는 반면, 보육시설에서는 언어발달(44.7%)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조사됨.
- 영아담당교사와 유아담당교사 모두 언어발달(각각 43.5%, 35.5%)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영역에 있어서는 영아의 경우는 정서적 안정감인 반면, 유아들은 사회성 발달로 조사됨.
- 다문화가정 부모가 기관 및 교사에게 주로 요구 또는 건의하는 사항은 유치원의 경우, 또래관계 지도에 대한 요구(37.7%)가 제일 많은 반면, 보육시설에서는 한글교육에 대한 요구(31.8%)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한편, 영아(54.5%)

와 유아(62.0%) 모두 한글교육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지만, 두 번째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영아의 경우는 식습관 및 영양관련 내용(39.8%)인 반면, 유아는 또래관계지도(48.4%)에 관련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교사가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지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문화 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연계부족이 26.9%,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나 이해 부족이 19.9%,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지도자료의 부족이 15.6%, 다문화 영유아 지도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이 13.4%,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에 대한 교사교육의 부족이 10.8%로 조사됨.
- 유치원에서 다문화관련 교사연수 경험(32.7%)이 보육시설(14.6%)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교사연수 경험비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반면, 민간어린이집 교사는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1.9%로 거의 대부분 다문화관련 연수를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음.
- 가장 필요로 하는 교사 연수의 내용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방법이 31.9%, 다문화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23.1%,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지도 방법이 22.7%, 부모참여 및 교육 방법이 19.0%로 나타남.
- 영아담당 교사는 다문화 이론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유아담당 교사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방법을 가장 많이 응답함.
-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빈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조금 인지하고 있으며,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교사들이 인식하는 다문화가정에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은 어머니 한글교육과 교육비·보육료 지원, 자녀의 학습지도, 아버지대상 부모교육으로 조사됨.
- 다문화가정에 시급히 제공되어야 할 육아지원 서비스는 영아담당 교사는 아버지대상 부모교육(37.2%)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유아담당 교사는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32.9%)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육아지원기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으로 다문화교수활동자료 및 교재교구지원, 교사연수가 높은 비율로 응답됨.

VI.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가정 지원사례

1. 정부지정 시범지원기관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기관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부터 3월부터 '다문화정책연구학교'(유치원) 2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08년 7월부터 '다민족 다문화 어린이집' 2기관을 선정하여 교육비, 교육기자재비와 보육도우미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 다문화 전담 보육시설 사례

- 서울에 위치한 전담보육시설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해체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주말을 제외한 24시간 보육을 실시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원아들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매주 일요일마다 외국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함.

3. 일반 육아지원 기관

-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재원하고 있는 기관들이 주로 종교재단이나 국공립에 집중되어 있으며, 설립유형별로 뚜렷한 특징은 파악되지 않음. 방문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이 신체발육 및 건강상태, 언어발달 및 또래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종종 나타남.

- 기관에서 실시하는 뚜렷한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은 없으며, 수업주제에 따라 여러 나라를 소개하거나 교재교구를 활용하여 다문화 인식을 지도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포한 다문화교육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다문화교육 경험이나 관련 지식은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외국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가장 어려워하며, 다문화교재·교구와 교사의 다문화교육연수 등을 지원받기 희망함.

VII. 국외 정책사례

1. 벨기에(네덜란드령)

- 벨기에의 최근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추진되고 있음. 먼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며, 둘째,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home visiting)를 통하여 부모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육아정보(유치원 선택기준 등)를 제공하는 것임. 셋째, 육아지원기관의 커리큘럼 개발에 다문화가정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또한 벨기에의 경우 도시에 이주노동자가 밀집되어 있고 농촌지역에는 거의 없으므로, 다문화배경의 교사를 모집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주요한 정책임.
- DECET(Divers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raining)은 벨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를 훈련하는 전담기관으로 여러 유럽국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DECET의 6가지 기본원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교사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

고, 다양한 정체감을 인정하며, 다른 문화를 서로 배우고, 능동적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솔직한 의사표현을 통해 편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편견과 차별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임.

2. 영국

- 영국은 소수민족을 포함한 취약소외계층 가정의 영유아를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Children's Plan(2007)에 가정과 영유아를 함께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공표함. 또한 다문화가정의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2005)를 실시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옴.
- Sure Start Unit(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의 한 부서)은 매년 자체 평가과정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소수민족과 자녀들에 대한 수행성과를 모니터할 책임을 다하는지 점검함.
- 영국의 Learning and Skills Council과 Teacher Training Agency는 유아교육 교사와 종사자들이 훈련(교육)과정을 통찰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현장교사 재교육을 통해 교사에게 지식과 정보, 기술을 제공함.
- 지방 교육행정가와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에 의해 운영되는 영국의 모든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인종평등에 대한 일반적 의무 및 구체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이는 다음 단계를 거침: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
 -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육아지원기관의 모든 정책과 절차, 실재를 점검함.
 - 각각의 아동과 가족이 학습과 경험, 자원 활용의 유용한 기회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동등한 접근성과 권한에 대해 점검함.
 - 다른 인종집단 사람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촉진시킴, 등

3. 아일랜드

- ❑ 아일랜드는 지난 10년간 전례없는 외국인의 유입 증대로 최근 다양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육아지원정책(National Childcare Strategy 2006-2010: Diversity and Equality)을 추진하고 있음.
- ❑ 국가적 수준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Eis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2007년도에 EDeNn(Equality and Diversity Early Childhood National Network)을 구축·운영함.
- ❑ Equal Opportunities Childcare Programme(EOCP)은 2000년에 취약지역 안에 아동보육 서비스를 위해 교직원을 배치하여 지원함. 또한 공립학교 유아학급 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제한적이기 하나, 언어교육을 보조하는 교사 지원을 증대하고 있음.
- ❑ 아일랜드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평등한 육아지원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의 지원책으로 간주하여, 아동 취원·입소 정책과 절차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
- ❑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동일한 문화배경의 교사를 임용하여 활용함. 이를 위하여 교사채용의 평등성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관계를 형성하고 교사로 하여금 Employment Equality Acts에 수록된 교사의 법적 책무를 인식하게 함. 또한 다문화배경의 교사에게 평등한 채용 기회를 주어야 할 책무를 학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소책자 등을 제공하여 교육함.
- ❑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보육 서비스, 지역사회 보육단체나 기관과의 관계 형성하는 지역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활성화함.

VIII. 정책 방안

1. 정책 방향

-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앞으로 성장하여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써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게 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일반가정 아이들과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교육·보육함.
- 다문화가정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함.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성장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 기관요인, 사회요인 등을 고려하여 개별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심한 성장 지원 계획과 전략이 필요함. 개별화된 성장지원을 계획함에 있어서, 다문화 영유아의 강점을 파악하고 최대한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국가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기 위하여 가정 및 부모와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 의무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여야 함.
-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무엇보다도 참여적인 접근으로의 이행이 필요한 시점임.
- 육아지원기관, 즉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2010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수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초중등학교의 지원 기능 및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2. 정책 과제

-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관련 지원 정책과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권장함. 현재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활동 개발 및 보급에 앞서 더 근본적으로 아일랜드의 국가지침처럼 육아지원기관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기관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부모와의 연계 등을 점검함에 있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본 연구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이 다문화관련 물리적 환경이 미흡하고, 교사연수 경험이 적으므로 이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배경의 영유아교사 채용을 시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함. 우선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훈련된 다문화배경의 교사인력 풀을 파악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와 영유아의 초기 기관 적응을 조력할 수 있도록 연수하여 활용함.
-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부모지원을 위한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연수과정에 다문화가정과 기관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부모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 즉 부모에 경청하기, 부모 지원하기, 다양성존중 및 참여의 가치 공유하기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외국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 출신국의 언어를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습득할 수 있도록, 스웨덴과 같이 'Mother Tongue Site'를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이중언

어 습득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이는 아직 우리나라말도 서툰 영유아에게 시기상조로 여길 수 있으나, 많은 연구들이 이중언어의 습득이야말로 자아정체감은 물론 학업성취에 장기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무료 건강검진 및 발달검사를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 발견하여 처치할 수 있도록 함.
-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관련 정책 및 서비스들에 대하여 추진 방법, 예산 규모 및 성과 측면 등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 관련 상세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방법	4
4. 용어 정의	10
II. 연구의 배경	12
1. 사회적 배경	12
2.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황	16
3. 선행연구	20
III.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35
1.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법	35
2. 중앙정부 지원정책	37
3.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57
IV. 다문화가정의 육아 실태 및 요구	62
1. 육아 실태	62
2. 육아지원의 요구	66
V.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가정 지원 실태 및 요구	67
1.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배경	67
2. 다문화가정 아동 수와 비용지원	81
3.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83
4. 다문화 프로그램 및 활동	85
5. 다문화가정 부모의 참여 및 연계	89

6. 교사 인식 및 요구	95
7. 소결	102
VI.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례	105
1. 정부지정 시범기관 사례	105
2. 다문화 전담 보육시설 사례	113
3. 일반 육아지원기관	115
4. 소결	120
VII. 국외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정책 및 사례	122
1. 벨기에	123
2. 영국	130
3. 아일랜드	136
VIII. 정책 방안	138
1. 정책 방향	138
2. 정책 과제	140
참고문헌	144
부록	149

표 목 차

<표 I-3-1 > 조사대상의 규모	5
<표 I-3-2 > 참여기관의 특성	5
<표 I-3-3 > 교사의 일반적특성(N=216)	6
<표 I-3-4 > 설문문항 내용	7
<표 I-3-5 > 방문·면담한 아동양육 방문교육 지도사	9
<표 I-3-6 > 방문·면담한 다문화 영유아 재원 육아지원기관 목록	9
<표 I-3-7 > 방문·면담한 국외기관 및 전문가	10
<표 II-1-1 > 다문화정책의 강도에 따른 국가 분류	12
<표 II-2-1 >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정 만6세 이하 아동 현황	17
<표 II-2-2 > 시도별 다문화가정의 만6세 이하 아동 현황	18
<표 II-2-3 > 다문화 가정 유치원 이용 유아의 성별 및 연령 분포	19
<표 II-2-4 > 다문화 가정 유치원 이용 유아의 부모 국적	19
<표 II-2-5 > 지역별 다문화가정 유치원 이용 유아 수 및 유치원 이용율	20
<표 II-3-1 > 경제사회인문연구회의 협동연구	25
<표 II-3-2 >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연구 요약	26
<표 II-3-3 > 관련 일반연구 요약	33
<표 III-2-1 >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현황	37
<표 III-2-2 > 생애주기 전 단계 다문화역량 강화 사업의 주요내용	40
<표 III-2-3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2008.10)의 정책 목표와 방향	41
<표 III-2-4 > 가족 생애주기별 7대 과제	41
<표 III-2-5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2006. 5) 중 학교중심 지원방안 요약·42	42
<표 III-2-6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기’ 지원계획	45
<표 III-2-7 > 제1~7차 유치원 교육과정 사회 생활 영역의 비교	50
<표 III-2-8 > 제7차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우리생활 돌아보기 하위내용	51
<표 III-2-9 > 2007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지원금액 현황	55
<표 III-3-1 > 16개 시·도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사업	58
<표 III-3-2 > 16개 시·도별 다문화가정 부모지원 사업	60
<표 V-1-1 >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황 및 발달수준	67

<표 V-1-2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따른 범주화	68
<표 V-1-3 > 아동연령별 말하기 및 또래관계 발달	69
<표 V-1-4 > 다문화가정 영유아 성별에 발달수준	70
<표 V-1-5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듣기 및 말하기 발달 수준	70
<표 V-1-6 > 다문화가정 부모의 국적	71
<표 V-1-7 > 다문화가정 부모의 특성	72
<표 V-1-8 >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 및 교육열	72
<표 V-1-9 > 외국인 모의 국적별 특성	73
<표 V-1-10> 외국인 부의 국적별 특성	74
<표 V-1-11>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과 영유아의 발달수준	75
<표 V-1-12>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의 교육열과 영유아의 발달수준	76
<표 V-1-13>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영유아의 발달수준	77
<표 V-1-14>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관계와 영유아의 발달수준	78
<표 V-1-15>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동의 말하기 발달수준	79
<표 V-1-16> 외국인 모의 국적별 아동특징	79
<표 V-1-17>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의 국적별 아동특성	80
<표 V-2-1 > 기관이용 다문화가정 아동 수 및 비율	81
<표 V-2-2 >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비·보육료 지원	82
<표 V-3-1 > 교사 1인당 담당 다문화가정 아동 수	83
<표 V-3-2 > 교실에 비치된 다문화관련 아동용 도서 수	83
<표 V-3-3 > 교실/복도에 다문화가정의 가족사진 부착 여부	84
<표 V-3-4 > 교실 내 다른 나라 악기, 옷, 물건 비치 정도	84
<표 V-3-5 > 다문화가정 영유아 급식에 음식문화 및 선호도 반영 정도	85
<표 V-4-1 > 교육·보육계획 수립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요구 반영 정도	86
<표 V-4-2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86
<표 V-4-3 >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 소개 및 관련활동 제공 정도	87
<표 V-4-4 > 일반가정 영유아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정도	87
<표 V-4-5 >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 중점 영역(복수응답)	88
<표 V-5-1 > 다문화가정 학부모 의견 수렴 방법(복수응답)	89
<표 V-5-2 > 부모의 요구(복수응답)	90
<표 V-5-3 >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정보 구하는 정도	90

<표 V-5-4 > 다문화부모에게 제공한 정보의 종류	91
<표 V-5-5 > 다문화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	91
<표 V-5-6 > 다문화가정 아동지도 경력별 다문화가정 부모 초빙 자원봉사 활용 경험	92
<표 V-5-7 > 다문화가정 부모나라 소개와 외국인부모 자원인력 활용정도 관계	92
<표 V-5-8 >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	93
<표 V-5-9 > 다문화가정과 양육방식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사 경험	93
<표 V-5-10> 지역별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부모간의 교류정도	94
<표 V-5-11> 다문화지도경력별 일반가정 부모에게 다문화가정관련 안내문 제공 여부	94
<표 V-5-12> 일반가정 부모에게 다문화가정 안내문 제공 여부와 일반가정-다문화 가정 부모들간의 교류 정도	95
<표 V-6-1 > 아동연령별 다문화 영유아 지도의 어려운 점(복수응답)	96
<표 V-6-2 > 교사가 다문화관련 지식을 얻는 경로	97
<표 V-6-3 > 다문화 영유아 지도에 관한 교사연수 경험 여부	98
<표 V-6-4 > 교사 연수 내용	98
<표 V-6-5 > 필요로 하는 교사 연수 내용	99
<표 V-6-6 >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서비스 인지도(아동관련 지원)	99
<표 V-6-7 >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서비스 인지도(부모관련 지원)	100
<표 V-6-8 > 다문화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해 시급한 지원 서비스(복수응답)	101
<표 V-6-9 > 다문화아동 지도를 위해 시급한 지원서비스(복수응답)	102
<표 VI-1-1 > PU 유치원의 다문화교육활동	107
<표 VI-1-2 > 다문화 교육 세부 목표 및 활동내용	112
<표 VI-3-1 > 다문화가정 아동의 배경	116
<표 VI-3-2 > 재원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 성별 및 국적	118
<표 VII-1-1 > 벨기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율	123
<표 VII-1-2 > 벨기에 이주영유아의 수	124

부 표 목 차

<부표 1 > 2007년도 아동양육지원 방문서비스 실적 현황	157
<부표 2 > 사업운영기관현황 및 서비스 현황	158
<부표 3 > 민간기관의 다문화 지원사업	159
<부표 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3개년 협동연구(1차년도)	161
<부표 5 >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연구 요약	163
<부표 6 > 관련 일반연구 요약	165
<부표 7 > 설립유형별 다문화가정 아동 수 및 비율	168
<부표 8 > 설립유형별 교실 내 다른나라 악기, 옷, 물건 비치 정도	168
<부표 9 > 일반가정 영유아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정도	168
<부표 10> 설립유형별 다문화 영유아 지도에 관한 교사연수 경험 여부	169
<부표 11> 설립유형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인지도(다문화가정 부모에게 한글교육) ·	169
<부표 12> 설립유형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인지도	170

그림 목 차

[그림 II-1-1] 이주민비율과 사회적 비용에 따른 다문화사회 진행과정	13
[그림 II-2-1]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16
[그림 II-2-2] 부모 출신국별 국제결혼가정 만6세 이하 아동 현황	17
[그림 II-2-3] 시도별 다문화가정의 만6세 이하 아동 현황	18
[그림 III-2-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	39
[그림 III-2-2] 아동양육지원사업 추진체계도	53
[그림 III-2-3]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관리	54
[그림 V-4-1]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에 비중을 두는 영역	88
[그림 V-6-1] 다문화 영유아 지도의 어려운 점(복수응답)	9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단일민족의 전통이 강조되어 오던 우리 사회는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급격히 재편성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4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로 17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로 구성된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관련 지원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실증적 자료에 입각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출연기관을 통하여 상당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제사회인문연구회에서는 여성정책연구원의 주도하에 2007년에 3개년도 협동연구를 착수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개발 연구(2008)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를 위한 한글과 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각 '다문화가정 중장기 지원 계획'과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2008)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양상은 북미와 유럽 국가들과 다소 다르다. 즉, 부모의 한쪽, 대부분 아버지가 한국인인 결혼이주여성 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며(약 87%, 2008년도 기준),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양부모가 모두 외국이주자인 가정의 자녀와 달리, 결혼이주가정의 자녀는 출생과 더불어 곧 우리나라 차세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잠재적인 인적자원이 될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어머니 출신국의 영향을 함께 받게 되며, 가정내 공존하는 두 문화에 적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독자적인 육아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으며, 특히 자녀의 양육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와서 수행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90년대 후반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세대들이 성장하여 이제 학교에 다니고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조혜영 외, 2007). 관련연구들에 의하면(오성배, 2005; 설동훈, 2005),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부모의 건강관리 소홀, 제한된 의사소통, 생활문화의 차이, 구별되는 외모 등으로 질병과 성장발육부진, 발달적 언어장애, 대인관계 문제, 기초학습능력부진, 정체성의 혼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영·유아기는 애착 형성을 비롯하여 제반 발달과 학습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이며, 발달과 적응에 있어 가정환경이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현황 및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 정부에 의하여 전국단위로 보급할 프로그램 개발 중심의 연구가 소수 수행되고 있을 따름이다.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생활적응 실태 및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 조사들이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관해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제도권 학교교육 내에서 아동의 적응 및 학업관련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에 초점을 맞춘 정책연구는 드물다.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소수 수행되어 있으나, 대부분 10명 미만의 소규모 연구대상이 참여하여 전반적인 정보 제공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사업 역시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 및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아울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정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범부처간의 지원정책 체계적인 조정 및 협력을 통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기본 철학, 즉 동화주의,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가운데 어떠한 견지에서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범부처간의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관련 국내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정부의 기존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특히, 중앙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다문화가정 아동 육아지원 실태와 기관의 요구 조사에 초점을 맞추며, 아울러 국외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사례를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의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전반적 이슈에 대한 기존의 정부지원 정책 연구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일반 연구를 연구 내용 및 방법,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의 측면에서 검토, 분석한다.

둘째,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전반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 중 육아지원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방법(예산 규모, 전달체계 등)과 내용을 아동에 대한 지원과 부모를 통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그간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의 이력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거주지역 및 자녀연령에 따른 요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이용 경험(기관 선택 동기, 기관의 장단점), 자녀 발달 및 기관 적응 수준에 대한 인식,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 취득 경로, 비용부담수준, 기관 행사 및 활동 참여도, 육아의 어려운 점 및 도움받기를 희망하는 사항, 육아지원기관 및 정부에 대한 요구 등을 살펴본다.

넷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 지원 실태와 요구를 파악한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현황 및 부모배경, 정부지원 수혜, 집단 규모, 교실환경 및 교재교구, 프로그램 및 활동, 다문화가정 부모와 육아지원기관간의 연계, 지원관련 요구사항 등에 대해 파악한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아울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에 관한 지역사회 지원센터(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회관 등), 중앙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파악한다.

다섯째, 국외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과 실천 사례들을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문화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벨기에과 영국의 선진 사례와 최근 외국인 유입의 증대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다문화정책 추진 배경 및 특징 등을 살펴본다.

여섯째, 다문화 가정의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및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교사교육 및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부모참여에 대한 정책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검토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국내 정책 자료 등을 검토하여 주요 연구결과와 추진 정책 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한 하나의 토대로 삼고자 하였다.

나. 통계현황 자료 분석

다문화가정 0-5세 영유아의 현황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행정자치부, 통계청 등의 이용가능한 기존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0-5세 영유아의 현황은 행정자치부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가정 3-5세 아동의 유치원 취원 현황은 2007년도에 전국 교육청을 통해 수합된 교육부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은 이용가능한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도에 수행할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될 예정이다. 한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이용 현황은 실제적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수치가 아니므로 제한적이며, 실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 설문조사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육아지원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해당 유치원과 보육시설 총 250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시청, 지역교육청과 시군구청 다문화가정 및 학생 관련업무 담당자의 협조로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재원하는 기관 명단을 파악하였다. 단위기관별로 연락하여 각 기관을 대표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응답하는 교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전송·회수하였으며, 총 216개 기관의 교사들이 응답하였다.

1) 조사대상의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수는 유치원 113개, 보육시설 103개로 총 216기관이며 설문에 응답한 교사는 각 기관당 한 명이므로 응답자인 교사수와 기관수와 동일하다.

<표 1-3-1> 조사대상의 규모

구 분	전체(수)	유치원	보육시설
참여 기관(교사)	216	113	103

설문에 참여한 기관의 특성은 <표 1-3-2>와 같다. 유치원이 113개(52.3%), 보육시설이 103개(47.7%) 참여하였으며, 설립유형별 설문참여율은 사립유치원이 29.6%로 가장 높고 국공립유치원이 22.7%, 민간어린이집은 17.1%, 법인어린이집은 15.7%, 국공립어린이집은 10.2%, 가정어린이집이 4.6%이다. 기관의 소재지 규모는 읍면지역과 대도시도 각각 41.7%, 40.7%로 비슷하며, 지역적으로는 영남권이 29.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이 25%, 호남권이 19.0%, 충청권이 18.5%, 강원및 제주가 8.3%였다.

<표 1-3-2> 참여기관의 특성

구 분	빈도	백분율	
기관	보육시설	113	52.3
유형	유치원	103	47.7
기관 설립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22	10.2
	민간어린이집	37	17.1
	법인어린이집	34	15.7
	가정어린이집	10	4.6
	국공립유치원	49	22.7
기관 소재지 규모	사립유치원	64	29.6
	대도시	88	40.7
	중소도시	38	17.6
기관	읍면지역	90	41.7
	수도권	54	25.0

	구 분	빈도	백분율
소재지	충청권	40	18.5
	호남권	41	19.0
	영남권	63	29.2
	강원/제주	18	8.3

설문에 응답한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I-3-3>와 같다. 응답교사의 70% 이상이 3년 이상의 경력교사이며, 다문화가정 영유아 담당 경력은 응답교사의 약 40% 정도가 1년 미만이다. 소지한 교사자격은 보육교사 1급이 39.4%, 유치원 정교사 2급이 34.3%, 원감이 3.7%, 보육교사 2급이 4.2% 등이다.

<표 I-3-3> 교사의 일반적 특성(N=216)

	구 분	빈도	백분율
경력	3년미만	32	14.8
	3년~5년 미만	41	36.1
	5년~10년 미만	78	36.1
	10년~15년 미만	36	16.7
	15년 이상	29	13.4
소지자격	유치원 정교사 2급	74	34.3
	보육교사 1급	95	39.4
	보육교사 2급	9	4.2
	보육교사 3급	1	0.5
	원감	8	3.7
	사회복지사	2	0.9
다문화지도 경력	1년 미만	91	37.5
	1년~2년 미만	45	20.8
	2년~3년 미만	38	17.6
	3년~4년 미만	28	13.0
	4년 이상	22	10.2
	무응답	2	0.9

2) 조사 내용

배경변인을 제외한 설문문항은 세부문항을 포함하여 총 46문항이며, 그 내용은 크게 6영역(①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황, ②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수준, ③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및 급식, ④ 프로그램과 활동, ⑤ 다문화가정의 참여 및 기관과의 연계, ⑥ 교사인식 및 요구)을 포함한다. 영역별 문항의 상세내용은 <표 I-3-4>와 같다.

<표 1-3-4> 설문문항 내용

구분(문항 수)	문항내용
배경변인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소재지 및 기관설립유형 ▪ 학급 수, 총 원아 수 및 다문화영유아 수 ▪ 응급교사 소지 자격 ▪ 응급교사 총 경력 및 다문화 영유아지도 경력 ▪ 기관의 질적 수준(시설환경, 프로그램, 교사-아동 상호작용) -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인증여부
다문화 영유아 현황 및 가정배경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연령 및 성별 ▪ 교육비/보육료 정부지원 수혜여부 ▪ 외국인 부모 국적, 한국어 수준, 교육열 ▪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 부모-자녀 관계, 어머니 취업여부, 편부모 여부
다문화 영유아 발달/적응 수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발육 ▪ 언어발달(말하기/듣기) ▪ 또래관계 및 사회성발달
물리적 환경 및 급식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 아동 비율 ▪ 다문화 영유아 부모 나라에 관한 동화 및 관련도서 비치 ▪ 다문화 영유아 가족사진 전시·부착 ▪ 교실활동영역에 다른 나라의 악기, 옷, 물품 비치 ▪ 급식에 다문화 영유아 가정의 음식문화 및 선호도 고려
프로그램과 활동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보육 프로그램/활동계획에 다문화영유아의 요구 반영 수준 및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 다문화 영유아의 외국인 부모 나라 및 문화 관련활동 제공 정도 ▪ 일반가정 영유아에게 다문화교육 실시 정도 ▪ 다문화 영유아 지도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
다문화가정의 참여 및 기관과의 연계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교사가 다문화가정 부모의 요구 수렴 방법 ▪ 다문화가정 부모의 기관/교사에의 요구 ▪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 ▪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기관/교사가 제공한 정보의 종류 ▪ 다문화가정 부모를 자원봉사자/자원인력으로 활용한 경험 ▪ 다문화가정 부모와 일반가정 부모와의 교류 수준 ▪ 일반가정 부모에게 다문화관련 설명 및 안내문 전송 여부 ▪ 우리말 대화가 어려운 다문화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 ▪ 다문화부모의 양육방식과 교사 지도방식의 문화적 차이 및 사례
교사인식 및 요구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영유아 지도시 가장 어려운 점 ▪ 다문화 영유아 지도 관련 지식을 얻는 경로 ▪ 다문화관련 교사연수 경험 및 연수내용 ▪ 가장 필요로 하는 다문화 교사연수 내용 ▪ 다문화가정 지원 정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교사 인지도

구분(문항 수)	문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 육아지원기관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부 지원 ▪ 다문화 영유아 지도를 위한 정부에의 건의사항

라. 국내 기관 방문 및 면담

1) 면접법(심층면담)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부모, 교사 및 원장, 아동양육방문지도사, 지역 센터 관계자,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내용을 부분 전사하였다. 다문화가정의 거주지역 및 자녀연령에 따른 요구,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실태 및 요구를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육아 실태와 요구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담자료를 토대로 파악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2007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아동양육 방문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사들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육아 실태와 요구를 파악한다.

자녀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거나 재원한 경험이 있는 8명의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서비스 수혜 경험, 양육가치관, 외국인 부모 국가의 자녀양육문화 특성 및 한국 양육방식과의 차이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이용 경험(기관 선택 동기, 기관의 장단점), 자녀 발달 및 기관 적응 수준에 대한 인식,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 취득 경로, 기관 행사 및 활동 참여도, 육아의 어려운 점 및 도움받기를 희망하는 사항, 육아지원기관 및 정부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육아실태 및 지원에 대한 요구를 보다 풍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정으로 파견된 아동양육 방문지도사 총 20명을 지역별로 소집단 면담하였다. 아동양육 방문지도사는 각 가정을 4-5개월 동안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교육 및 상담역할을 수행하므로, 담당하는 다문화가정의 육아 실태 및 어려운 점 등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정보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문화가정의 육아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1-3-5> 방문·면담한 아동양육 방문교육 지도사

지역	담당 기관	면담한 지도사 수
대도시	S시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3명
중소도시	S시 외국인복지센터	4명
	C시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7명
읍면지역	M군 여성회관	3명
	Y군 여성회관	3명

본 연구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14개의 해당기관들을 방문하여 기관장 및 담당교사들을 면담하였다(표 I-3-3 참조). 주요면담내용은 기관의 전반적인 현황 및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황과 발달과 적응상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과 활동 및 그 효과,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가정생활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 요구, 지도상의 애로사항,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부에의 건의사항 등이다.

나) 관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기관유형별, 설립유형별, 지역별 해당기관들을 방문하였다. 단위기관별로 주로 기관장 및 교사와의 면담 후에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있는 학급을 중심으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관찰하였다.

<표 1-3-6> 방문·면담한 다문화 영유아 자원 육아지원기관 목록

구분(수)	설립유형	소재지	다문화 영유아 수
유치원 (5)	국공립(3)	부산광역시	3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사립(종교법인)(1)	서울특별시	7
	사립(사인)(1)	안산	3
보육시설 (9)	국공립(4)	경기도(송탄)	1
		경기도(시흥)	2
		경상북도(문경)	11
		경상북도(영천)	2
	법인(종교법인)(4)	서울특별시 I	32

구분(수)	설립유형	소재지	다문화 영유아 수
		서울특별시 II	
		부산광역시	3
		경기도(시흥) I	5
	개인민간(1)	경기도(시흥) II	3

마. 국외기관 방문 및 면담

국외의 다문화관련 육아지원정책과 교사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하였다. 각국의 취학 전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정책의 배경과 특징 및 주요 연구들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방문기관 및 면담자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3-7> 방문·면담한 국외기관 및 전문가

국가	기관명	전문가명
벨기에	겐트대학	Michel Vandebroek 교수
	VBJK	Jan Peeters 소장
영국	런던대학	Iram & John Sirmer-Blatchford 교수
	Thomas Coram Centre	Bernadette Duffy 교사
아일랜드	CECDE, St. Partick's College	Heino Schonfeld 교수
	Pavee Point	Colette Murray 소장

바. 간담회 및 자문회의

연구방향 및 범위, 자료해석, 관련 이슈와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연구 책임자, 중앙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원센터 담당자, 현장관계자 등과 총 12회의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4.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및 육아지원기관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2008년 3월 제정되어 9월부터 시

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을 정의한다. 다문화가정이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의 결혼이민자가정과 외국근로자가정을 포함하며, 배우자 두 사람이 모두 외국인인 가정은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정책을 고려하여 대상의 우선순위가 및 이주 노동자 가정 취학 전 자녀 현황 파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가정을 중심으로 한다.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은 부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모두 포괄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원기관, 즉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 및 부모 참여와 연계를 통한 지원에 초점을 둔다.

II. 연구의 배경

1. 사회적 배경

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최근 들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한 우리 사회는 현재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낮고, 그 자녀들이 어리므로 아직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Banting과 Kymlicka(2006)은 국가가 다문화정책을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범주화 준거를 제시하였다: 1)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는가, 2) 학교커리큘럼이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가, 3) 대중매체에서 인종문제를 다루는가, 4) 이중시민권을 허용하는가, 5) 이주민의 문화적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이 존재하는가, 6) 이중언어교육이나 모국어교육을 위한 지원기금이 존재하는가, 7) 차별받는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존재하는가이다. 이러한 일곱 가지 기준에 의하여 이들은 다문화정책 강도에 따라 국가를 다음 표와 같이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표 II-1-1> 다문화정책의 강도에 따른 국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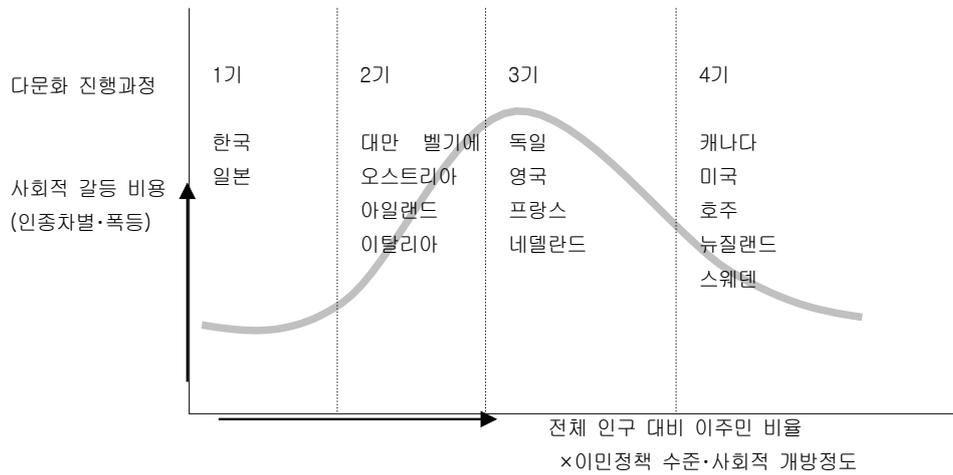
다문화정책의 강도	해당국가
강	캐나다, 호주
중	벨기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약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노르웨이, 그리스, 스위스, 이탈리아

자료: Banting & Kymlicka (2006).

이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과 자국민의 태도는 복합민족 및 다문화사회로의 진행 정도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이민자 증가는 인종차별, 이주민·자국민 간의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문화 진행과정은 크게 4기로 구분될 수 있다¹⁾. 제1기는 도입초기로 전체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민정책

이 초보적인 수준이며 사회적 개방 수준도 미미하여 사회적 갈등이 없고 그에 따른 비용지출도 발생하지 않는 단계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범주에 속한다.

제2기는 이주민의 유입이 본격화되나, 제도적 준비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단계이며, 제3기는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주민이 계속 유입되어 사회적 혼란이 크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 단계를 벗어나 제4기로의 이행여부는 이주민과 자국민이 공생할 수 있는 제도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제3기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차별주의가 만연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2008년 2만5천 명의 불법이민자를 추방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영국 역시 비유럽출신국의 미숙련 노동자 취업을 금지하고 결혼이민자들에게 영어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억제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 매일경제신문, 2008.2.5일자. 특별기획: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한국

[그림 II-1-1] 이주민비율과 사회적 비용에 따른 다문화사회 진행과정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주민 유입이 급증하고 있어 다문화사회 전개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르므로 제2기를 생략한 채 곧바로 3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다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국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 매일경제, 2008.2.5일자,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내용임.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서 치루어야 하는 부담보다는 사회적 이익이 크므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체 인구비중에서 이주민 비중이 상당한 서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소요, 폭동, 실업문제, 외국인 거주지역의 슬럼화,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갈등, 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사회적응 문제, 이주민 빈곤문제 등에 대한 책임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측해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OECD국가들의 다문화 육아정책 동향과 이슈

현재 OECD국가들에서는 10-20%의 아동이 사회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적 실패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 비율은 이민가정 자녀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다. 육아지원 서비스가 이러한 아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실제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제대로 제공,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아동권리헌장에 입각하여 육아지원 서비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다문화배경 아동 및 가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OECD국가들은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의 주요 이슈를 서비스 이용기회, 공공 재원 투자, 아동빈곤, 가정과 육아지원기관의 연계, 교육과정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다.

첫째,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기회 제공에 있어서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이다.

다문화가정은 낮은 접근성(accessibility)과 제한된 비용부담능력(affordability)으로 인하여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기회가 제한되며, 이용기회가 제공되더라도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집단 규모 및 구성, 교육·보육 방식 등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방과후 보육 및 연중운영 서비스가 부족하여 다문화가정 취업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한 공적 재원 투자가 부족하다.

복지국가의 경우는 공공 재원으로 충당하여 모든 취학 전 아동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국가의 경우는 부모의 비용부담이 상당하다.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다문화가정의 경우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특히 다문화가정 영아보육의 질은 더욱 열악하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을 최적화하려면 아동발달 및 건강, 가족지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full-coverage service)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아동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빈곤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육아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주택, 가족정책, 고용정책 등 여타의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빈곤은 1차적으로 부모소득수준에 의한 것이나 빈곤의 다른 요소(편부모, 실직, 낮은 교육수준, 차별, 주택문제 및 열악한 주거환경, 질병 등)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빈곤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건강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급간식을 보장하는 등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조치와 참여가 중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정과 육아지원 서비스기관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다문화가정과 교사간의 정기적 정보교환을 통하여 사회화 방식, 하루일과, 아동발달과 학습에의 일관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기관간의 일관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에게 경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가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와 교사간의 힘의 균형(power relation)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과 교수방식이 필요하다.

많은 관련연구들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 정체성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상급학교에서의 적응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다문화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부모출신국의 현재나 미래 문화를 반영하기 보다는 과거 이미지에 준하여 아동의 문화를 인식하는 오류를 흔히 범하며, 이로 인해 ‘평균적인’ 아이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정의 환경, 언어, 음식, 의식 등 가정문화가 잘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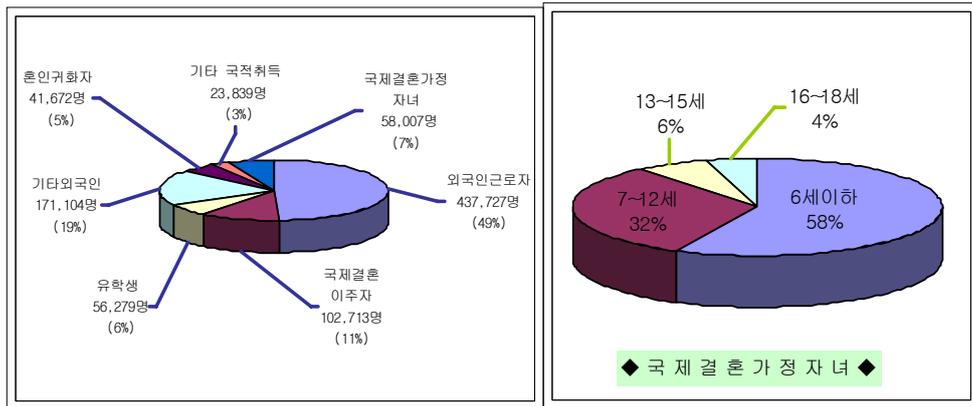
OECD국가들은 이상의 다섯 가지 주요 이슈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육아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동이 다니는 육아지원 프로그램에 현재 지원규모의 50% 이상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대폭 증대한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공공재원을 축소하여 취학 전 아동과 가정에 지원하며,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산업, 군대 등에 투자하는 재정을 교육과 복지로 전환하는 형평적인 접근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서비스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현 가능

성이 높은 구체적인 수혜대상을 선정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만5세아 전면 무상서비스 제공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취약소외계층의 만4세아를 위한 무상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셋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철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다양한 학습 능력에 기초한 대안적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넷째, 교사들이 현장에서 반편견교육을 시행하고 다문화가정 부모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사교육을 강화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지원정책을 개발한다.

2.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황

가. 다문화가정 취학 전 아동 현황

국제결혼가정의 만18세미만 자녀는 총 58,00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6.5%를 차지하며, 2006년도의 25천명에서 2007년도에는 44천명으로, 2008년도에는 58천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6세 이하 아동 수는 2007년도의 26,445명에 비하여 2008년도에는 33,140명으로 6,695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은 무려 57.1%에 달하고 있다(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08.7.30일자). 이와 같은 급증현상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료: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08. 7.30일자

[그림 II-2-1]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부모 출신국별로 만 6세 이하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족 출신이 전체의 25.7%(8,526명)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22.5%(7,448명), 중국17.7%(5,878명), 필리핀 12.5%(4,14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1>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정 만6세 이하 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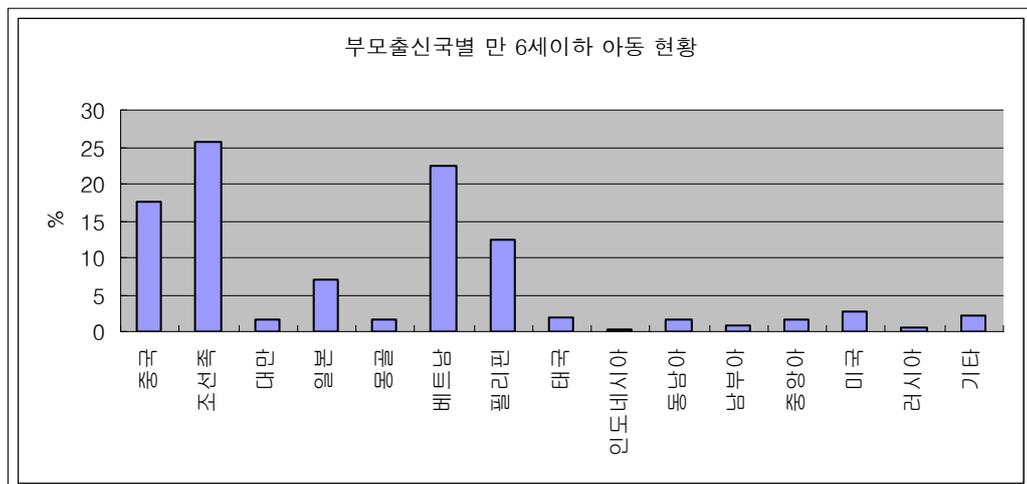
(단위: 명, %)

계	중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기타	남부아시아 ¹	중앙아시아 ²	미국	러시아	기타	
합계	33140	5878	8526	489	2300	513	7448	4140	626	128	523	281	538	865	171	714
구성비	100	17.7	25.7	1.5	6.9	1.5	22.5	12.5	1.9	0.4	1.6	0.8	1.6	2.6	0.5	2.2

자료: 행정자치부(2008).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주: 1. 남부아시아: 네팔 등

2. 중앙아시아: 우스페키스탄 등



[그림 II-2-2] 부모 출신국별 국제결혼가정 만6세 이하 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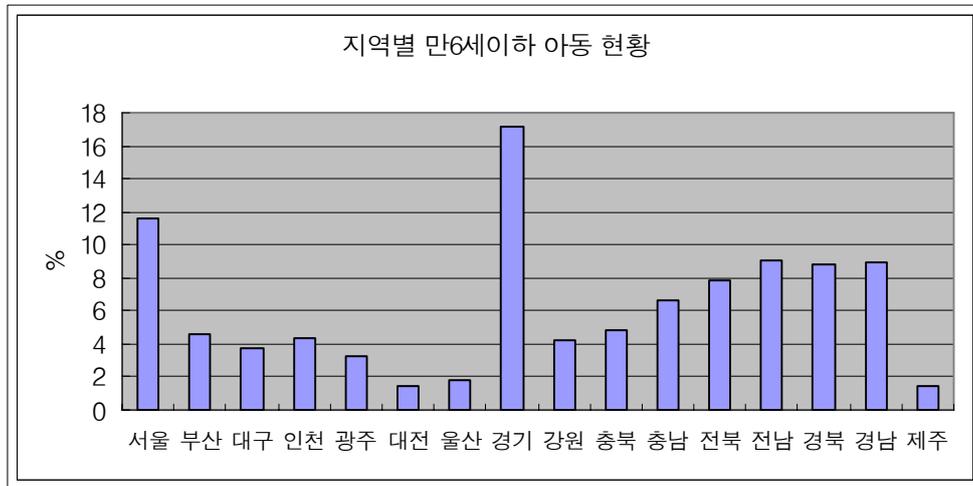
또한 시도별로는 경기(17.1%), 서울(11.6%), 전남(9.1%), 경남(9.0%), 경북(8.8%)에서 다문화가정의 6세이하 아동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2-2> 시도별 다문화가정의 만6세 이하 아동 현황

단위: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851	1536	1239	1422	1086	512	601	5673	1405	1607	2184	2634	3003	2906	2991	490
구성비	11.6	4.6	3.7	4.3	3.3	1.5	1.8	17.1	4.2	4.8	6.6	7.9	9.1	8.8	9.0	1.5

자료: 행정자치부(2008).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일부 재구성.



[그림 II-2-3] 시도별 다문화가정의 만6세 이하 아동 현황

나. 서비스 이용현황

1) 유치원 이용 현황

전국 교육청 단위 유치원 재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국공립, 사립 모두) 유아 현황을 조사²⁾한 결과, 2007년 5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유아는 유 총 2,929명³⁾ 이다.

2) 조정서 외(2007). 유아를 위한 세계이해 및 다문화교육 활동자료. 교육인적자원부
 3) 전국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임.

가) 유아 성, 연령 분포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는 52%, 여아는 48%로 남아가 여아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급연령은 만 5세반이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고, 만 4세반(30%), 만 3세반(20%) 순이다. 또한 기관유형별로 보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54%)가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4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 다문화 가정 유치원 이용 유아의 성별 및 연령 분포

성별		연령			재원율	
남아	여아	3세	4세	5세	공립	사립
52%	48%	20%	30%	50%	46%	54%

자료: 조경서 외(2007). 유아를 위한 세계이해 및 다문화교육 활동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나) 부모 국적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국적은 일본(32%), 필리핀(24%), 중국(21%), 베트남(3.5%), 태국(2.7%)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 국적은 한국(87%), 일본(4%), 미국(3%), 중국(1%) 순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경우는 국적이 한국인이거나 선진국 출신이 많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차이를 나타냈다.

<표 II-2-4> 다문화 가정 유치원 이용 유아의 부모 국적

순위	1	2	3	4	5
아버지	한국(87%)	일본(4%)	미국(3%)	중국(1%)	캐나다(0.8%)
어머니	일본(32%)	필리핀(24%)	중국(21%)	베트남(3.5%)	태국(2.7%)

자료: 조경서 외(2007). 유아를 위한 세계이해 및 다문화교육 활동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다) 지역별 다문화가정 유아 수 및 유치원 이용율

1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유아 수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가 20.2%(59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서울(14.0%, 411명), 전라남도(10.9%, 320명) 순으로 세 지역을 합하면 거의 절반(45.1%)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2-5> 지역별 다문화가정 유치원 이용 유아 수 및 유치원 이용율

시·도교육청	다문화 유아수(A)	지역별 비율(A/B*100)
서울	411	14.0
경기	592	20.2
인천	151	5.2
부산	121	4.1
대구	59	2.0
광주	39	1.3
대전	34	1.2
울산	59	2.0
강원	128	4.4
충북	157	5.4
충남	155	5.3
전북	234	8.0
전남	320	10.9
경북	183	6.2
경남	261	8.9
제주	25	0.9
합계	2,929(B)	100

자료: 조경서 외(2007). 유아를 위한 세계이해 및 다문화교육 활동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 보육시설 이용현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현황에 대한 현재 이용가능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각 시도별로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황이 파악된 일부 지역이 있으나, 전국적인 현황 정보가 아니므로 제한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도 상반기에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3. 선행연구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6년도에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정착 지원정책이 국정외제로 채택되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정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정책연구와 학계와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반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정책연구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지원 정책연구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설동훈 외의 연구(2005 & 2006),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에 의한 조영달 외(2006)의 연구, 농림부 지원에 의한 이순형·문무경·최연실(2006)의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에 의한 전해정(2008)의 연구, 경제사회인문연구회의 산하기관 간의 협동연구(김이선 외, 2007; 장미혜 외, 2008) 등이 있다.

설동훈 외(2005)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보건·의료요구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다문화가정 945쌍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7명의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 인남편, 시댁 식구들을 참여관찰하고 중국 국제결혼 중개업자(6명)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24개 결혼중개업체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국제결혼 과정, 본국에서 경제적 배경,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결혼생활(부부관계, 자녀양육, 친·인척관계), 여성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미취학 자녀에 대한 내용은 주로 자녀를 돌보는 양육자와 이용하는 보육시설, 양육시 느끼는 어려운 점 등을 다루고 있다. 낮시간 동안에 결혼이민자여성 또는 남편이 주로 미취학 자녀를 돌보며(37.6%), 그 다음으로 유치원을 이용한다(14.5%)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민간 보육시설이 48.5%로 가장 많았고, 종교기관(16.1%),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운영기관(15.1%) 순이었다. 미취학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용 부담(34.1%)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교육 문제는 주로 부부가 함께 결정(59.7%)하거나 어머니가 결정(2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거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다문화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가정내 다양한 문화·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의 구축, 여성 이민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마련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설동훈 외(2006)는 주로 이주 여성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된 2005년도의 연구와 달리, 2006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를 포함, 확대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생활실태, 사회문화적 기본요구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지원과 사회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청의 혼인동태자료,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데이터 베이스 분석을 통해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로 다문화가정 1,177쌍 대상의 설

문조사 및 결혼이민자 20명과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남성결혼이민자 가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자녀양육 문제는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59.7%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미취학 자녀들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보거나(44.0%) 부모 모두 직장에 나가고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38.1%)가 높게 나타났고, 보육시설(10.0%)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7.2%)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이나 친구가 잘 돌본다는 이유가 35.7%, 비용부담이 31.1%로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심층면담을 통해 여성이민자들 중에는 자녀를 더 출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첫째,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교육지원, 둘째, 바람직한 국제결혼 모델 정립을 위해 한국과 송출국 정부의 단속 및 국제결혼중개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 셋째,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추진체제 구축과 학교 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사역량 강화,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넷째, 민간 협력 네트워크 통한 사회통합 모델 구축, 다섯째,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수탁과제로 조영달 외(2006)는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현장교사, 자원봉사자,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범위에 국제결혼가정(외국인 어머니 혹은 외국인 아버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는 다소 차이를 보였고 지원대책 역시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이나 고소득층 가정은 자녀교육문제에 어려움이 없지만 농촌지역, 특히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는 우리말 능력이 낮은 수준이며 심각한 학습 부진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8,000여명의 청소년이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새터민 가정은 빈곤한 가정 환경과 낮은 취학률, 높은 중도 탈락률, 낮은 학교성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영달 외(2006)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미국,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소외계층 지원책을 비교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새터민가정 자녀로 구분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및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실시, 교사들의 교원 연수 및 장학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해서는 한국어반 운영 등 학교 내의 교육지원 강화, 민간주도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교육센터 운영,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교육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권(학습권) 보장, 각 부처간 관련사업 연계 추진으로 정책실행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셋째, 새터민 가정 자녀를 위해서는 새터민 자녀를 위한 특성화 학교 설립지원, 일반학교내에서 새터민 자녀 교육지원 강화, 학교-대안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 활성화, 전문 교육인력 양성 및 지원인력 확보, 남북 문화 이해교육 실시 및 교육연구지원센터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순형·문무경·최연실(2006)은 농림부 지원으로 농촌지역 국제결혼 현황, 이민자 생활실태, 여성결혼이민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고, 적응 성공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농림부 정책과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 166명, 남편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결혼이민자 12명을 면접 조사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실태와 적응을 조사하였다. 둘째, 결혼이민 담당 공무원, 베트남 호치민 영사, 사회복지사, 교육담당자 및 결혼중개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국 5개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14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결혼정보회사의 전화상담기록을 분석하여 가족특성, 주요갈등내용, 상담 방향 및 현재 적응상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현지방문을 통하여 베트남 성혼과정을 참여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중 자녀양육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내용은 첫째,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 둘째,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 셋째, 영유아의 우리말 수준 및 따돌림 경험여부, 넷째, 자녀양육가치 및 갈등, 다섯째, 자녀와의 대화 및 과제지도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정책으로 산모도우미 파견, 출신국 언어로 된 자녀양육 매뉴얼 제공,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설, 농촌형 보육 프로그램 개발, 자녀공부방, 학습도우미 파견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 교과과정 개발, 교사들 다문화 교육 실시 등을 강조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3개년 협동연구로서 2007년 1차년도 연구로 여성정책연구원의 주관하에(김이선 외,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점점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태도는 어떠하며 수용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예측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정책적 대응책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반적인 기획·분석을 하는 총괄과제와 6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각 세부연구들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가 이주민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다문화시민의식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일터, 학교, 지역사회에서 이주민과의 직접적으로 만나는 직장동료, 교사와 교우, 지역주민과 정책·서비스 담당자들의 수용 실태와 다문화시민의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을 진행시켜 온 해외사례로 호주와 일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고려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정책에 대한 접근이 피상적이고 특정대상에 국한된 현재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모습을 포함하는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정책으로 재규정 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 이주민을 완전한 역량을 지닌 사회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제도하기 위한 다문화사회 정책 행정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제도화된 학교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문화 시민교육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2008년 2차년도 후속연구(장미혜 외, 2008)에서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 증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요구와 대응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타날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용 범교과 프로토타입 프로그램과 활용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서구 다문화주의 이론과 정책을 통해 관주도형 다문화주의가 아닌 진정한 다문화주의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정책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 있다. 나아가 생애주기별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와 이민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교육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는 다

문화사회 변화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살펴하면서, 인구 구조 뿐만 아니라 사회내 문화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게 될 문제들은 무엇이며, 필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인문연구회의 3개년 협동연구로서 2007년도에 여성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수행된 1차년도 연구(김이선 외, 2007)는 다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일반적 태도와 구체적인 수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2차년도 협동연구(장미혜 외, 2008)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및 위험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 2차년도 협동연구는 각각 총괄과제와 총 6편의 하위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3-1> 경제사회인문연구회의 협동연구

1차년도 협동연구(2007)	2차년도 협동연구(2008)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다문화 사회의 전개양상과 문화정책 방향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다문화사회에서의 학교교육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지형과 쟁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의 수용성 연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 및 정책과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진정한 통합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민여성 문화교육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 사례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전혜정 외(2008)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 상태를 파악하여 성장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해외사례조사,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에 대한 조사,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중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은 늦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비율은 더 높았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

분은 '자녀 한국어 과제 도와주기', '남편과 양육방식 차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을 원하는 양육 프로그램은 '학습지원, 자녀돌보기도우미 파견', '체험학습 프로그램'이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알아봄으로써 성공적인 행정개입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거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태체계 복지모델 적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환경에 지원이 이루어져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 지역주민, 교사,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다문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부처와의 협력 작업을 통해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주여성들을 위한 양육도움 지침서를 각 가정에 배부토록 해야 한다.

<표 II-3-2>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연구 요약

지원부처 및 기관	연구(년도)	연구목적 및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설동훈외 (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한국인 남성과 결혼 한 외국인 여성의 생활 실태 및 복지와 보건· 의료 욕구파악 지원정책 제시
	전혜정 외(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 상태 측정, 성장지원 방안제시
교육인적자원부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농림부	이순형·문무경·최연실(2006) 농촌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 지원 방안 연구	농촌지역 국제결혼 현황 및 요구 파악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여성부	설동훈외 (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 통해 이민자 욕구 파악, 지원책 마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이선 외(2007) (1차년도 협동연구)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장혜미 외(2008) (2차년도 협동연구)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나. 일반 연구

정책연구이외의 일반연구들은 소수의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례관찰연구 및 주로 농촌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연구들로,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의 적응 및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윤갑정·고은경, 2006; 구수연, 2007; 김희태·권영덕, 2007; 박경자·김송이, 2007; 서현·이승은, 2007), 둘째,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양육 가치관 및 양육실태에 관한 연구(이진숙, 2007; 임진숙, 2008; 송미경 외, 2008) 셋째, 영유아 교사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과 지도에 관한 연구(지성애·정대현외, 2006; 김경숙·공진희, 2007; 한석실, 2007), 넷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김영옥, 2002; 정정희, 2006; 조경서 외, 2007; 이승은, 2008)이다.

1) 다문화가정 유아의 기관 적응과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윤갑정·고은경(2006)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아동의 육아지원기관에서 사회적 적응양상과 일반가정 아동, 교사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1곳에서 총 4명의 유아(인도네시아계 한국유아와 페루계 한국유아, 일본계 호주 쌍둥이)들을 1개월 반의 단기간동안 관찰(각 16회)하고 각 기관의 담임교사와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양상은 문화적 배경이나 국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일본계 호주 쌍둥이의 경우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페루계 유아들은 또래 집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또래가 좋아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 양상은 문화적 배경이나 국적에 의한 차이점 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이나 변인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일반가정 아동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다. 한편, 담당교사의 지도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유치원교사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립심 함양에 초점을 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보다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아동을 돌보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수연(2007)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정아동 2명(어머니가 인도네시아와 조선족 출신임)을 4개월에 걸쳐 자유놀이시간에 참여관찰하고, 교사와 인근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보육하는 6명의 교사, 2명의 원장들을 면담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발달과 사회

적 발달은 일반가정 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놀이나 또래 관계에서 다문화 가정배경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담당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관심과 교육은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대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김희태·권영덕(2007)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어린이집의 자유놀이시간에 만3세 여아 1명(한국인 아버지와 귀화 어머니)을 대상으로 6개월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한국어로 의사표현도 서투르며 일반아동과의 관계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하고 친사회적 행동들이 증가하면서 또래집단에 의해 더 잘 수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록 한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례연구이나 유아기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이 중요하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농촌지역에 국한되어 수행된 연구들로 박경자·김송이(2007)와 서현·이승은(2007) 연구가 있다. 먼저, 박경자·김송이(2007)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애착 표상과 자아지각,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보고, 동일지역의 일반 가정 유아와 비교를 통해 사회·정서 발달 수준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3,4,5세 다문화가정 유아 60명과 일반가정유아 9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남아가 교실 내에서 위축된 경향을 보였으나, 나머지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정서적 적응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안정애착 비율(53.8%)이 서울 중·상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비율(79.3%)보다는 낮았으나, 동일지역 내 일반 가정 유아(60.5%)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성에 있어서 비교집단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등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이승은(2007)의 연구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유아가 경험하는 교육적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국제결혼가정의 유아 15명 와 외국인 어머니 15명, 한국인 아버지 15명, 한국인 조부모 15명, 유아교사 15명과 동네주민을 대상으로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유아가 부모의 양육태도, 자신의 외모로 인한 정체성 혼란, 가정내 언어자극 부족으로 인한 언어문제, 또래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표출을 회피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어머니와 불쌍한 아이라는 주변의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 이

에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실제에 관한 연구

이진숙(2007)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취학 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어머니가 다문화가정 영아들의 주양육자이며, 대체적으로 3세 이후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보는 주로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얻으며,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녀의 한국어교육 지도는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거나 부부가 함께 하며,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으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일상적인 양육보다는 주로 교육이나 놀이 활동에 참여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농업이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양육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특히 3세미만 영아들이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정내 양육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부모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느끼는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체계와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위해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임진숙(2008)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연령, 직업, 국적, 결혼만족도, 의사소통수단 등)에 따라 양육태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양육태도와 자녀의 언어능력,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전라남도 공립유치원 만 3세, 4세, 5세 다문화 가정 유아와 어머니 10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녀와 의사소통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보다 양육태도가 좀 더 자율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는 적었다.

송미경 외(2008)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과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주여성 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이용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기 앞서 다문화가정 전문가, 다문화가정 부모, 자녀 총 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남편이 있는 가정보다 외국인 부인이 있는 가정이 양육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면접범위를 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이 있는 가정으로 제한하였다. 면접대상자는

다문화가정 분포가 많은 지역(서울, 경기, 강원, 부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결혼이민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협조를 통해 1) 결혼생활 5년이상, 2)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 3) 학령기 자녀 둔 외국인 여성을 추천받아 진행되었다. 먼저 자녀들의 양육경험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여성들은 가족들과 양육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칠 것인지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가지게 할 것인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은 ‘한국인’ 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상호작용방식은 직접적 지도(학습지도, 놀이 등)보다 신체접촉을 통한 애정표현이 더 많았으며, 대화보다는 표정이나 몸짓으로 자녀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능력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부모역할은 ‘자녀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영유아교사의 인식과 지도에 관한 연구

교사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인식과 지도에 관한 연구로는 지성애·정대현 외(2006), 김경숙·공진희(2007), 한석실(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지성애·정대현 외(2006)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진 다문화교육 인식과 교육 운영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교사(56%)보다 초등학교 교사(83%)들이 다문화교육 경험이 더 많으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유치원교사는 ‘학교장 혹은 원장과 학부모의 권유’로 인해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초등학교 교사는 ‘민족과 자신에 대한 교육목표 성취’로 인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다문화교육 내용의 중요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유치원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사보다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개방성과 융통성’,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등을, 초등학교 교사들은 ‘아동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감소’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실시 시기에 있어서 유치원은 지도서와 연결하여 연중 실시하고 ‘다양한 민족, 인종, 직업에 관한 책’ 이 제공되는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목 관련 시간(예, 사회교과)에만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책’ 이나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 직업을 나타내는 소품’ 등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보다 다문화교육 활동을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아동을 위한 월간 잡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치원 교사는 ‘원장 및 동료 교사의 지지체계 부족’을, 초등학교 교사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김경숙·공진희·이민경(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시각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의 특성과 다문화가정과 기관간의 연계형태 및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가족에 대해 면담한 결과, 외국인 어머니들은 자녀의 유치원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머니들의 생활이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도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은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아버지의 연령과 생활습관,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이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유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임을 지적하였다.

한석실(2007)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행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교육을 수행해야 할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미국의 다문화 교사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교사교육 방향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교육에 있어 교사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한다. 둘째, 예비교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견을 명확히 깨닫도록 한다. 셋째, 예비교사 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처하며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넷째, 다문화교육이 전체 교사교육과정과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을 위해 교사 스스로 교수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한다. 여섯째,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일곱째, 교사의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가 다문화교육 내용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한다 와 같이 일곱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4)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관한 연구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관한 연구는 정정희(2006), 조경서외(2007), 이송은(2008) 등의 연구가 있다. 정정희(2006)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대구 경북 지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글구사 능력과 자녀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교육 지도방

법에 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습능력을 증진하고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과 일반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분석·보완하기 위해 경북지역 어린이집 2곳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현장적용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유아 18명을 대상으로 2곳의 어린이집에서 8주간 주 3회 매회 3시간씩 실시되었고, 일반아동 프로그램은 8주간 주 2회 매회 2시간씩 어린이집 2곳과 초등학교 2곳에서 모든 재원 아동들을 실시되었다. 현장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관계자들과 토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시범 대상 보육시설과 유·초등 교사, 대학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적용사례 소개를 비롯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조경서 외(2007)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유아교사를 위한 교수자료와 다문화에 대한 일반가정 학부모의 이해 증진 및 수용적인 태도 함양을 위하여 부모용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먼저 국내외 연구와 관련서적, 신문 등을 분석하고 전국 교육청을 통하여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유아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유치원 300개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실태와 교사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 현장에 적합한 다문화 활동, 동화, 동요를 개발하고 유치원교사, 원감, 원장,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협의회를 거쳐 자료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자료의 현장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유치원에 활동을 적용한 후, 교사들과 토의를 통해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활동은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가정 유아들의 다문화가정 이해 증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개발되었다. 또한 자료집의 모든 내용을 CD-ROM 으로 만들어 교사가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송은(2008)은 어머니 나라와 한국문화를 비교·학습하는 문학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어머니 나라 문화나 특정인종, 국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문학 활동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자녀 5쌍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총 15회, 주 1-2회, 매회 1-1.5시간씩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들은 4회부터 수업에 참여하였다.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활동하면서 어머니 나라 문화, 특정인종,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나 편견이 점점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가장 집중을 잘하고 학습 효과가 큰 문학활동은 '양국의 문화 이해하기'와 '양국의 생활 풍

습이 담긴 이야기 그림책’, ‘부모-자녀 함께 책읽기’, ‘어머니 나라에 대한 연극놀이’, ‘견학’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동적인 활동들로 나타났다.

<표 II-3-3> 관련 일반연구 요약

주제영역	저자(년도)	연구목적 및 내용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기관적응 및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윤갑정·고은경(2006)	다문화배경 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적응양상 파악
	구수연(2007)	여성결혼 이민자가족과 자녀에 대한 이해
	김희태·권영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이 육아지원 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경자·김승이(2007)	농촌 다문화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애착 표상, 자아지각,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성 파악
부모양육태도·양육 실제에 관한 연구	서현·이승은(2007)	농촌 다문화 가정 자녀 삶을 통해 교육적 어려움 파악
	이진숙(2007)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조사
	임진숙(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 태도의 차이,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사회능력관계 파악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지도에 관한 연구	송미경 외(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자녀양육 경험, 자녀 관계 파악
	지성애·정대현(2006)	다문화 교육에 대한 유치원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인식과 다문화교육의 운영실태 비교
	김경숙·공진희(2007)	다문화가정 유아를 지도 하는 교사관점 통해 다문화 가정 부모의 특성 파악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연구	한석실(2007)	다문화시대에 맞는 유아교사 교육방향 제시
	정정희(2006)	다문화가정 자녀 기초 학습능력 증진과 정체성 함양 및 일반유아, 초등학생들 다문화 이해 증진
	조경서 외(2007)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할 다문화교육 교수자료 개발
	이승은(2008)	다문화관련 문학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머니 나라에 대한 태도 변화 및 효과적인 활동탐색

다. 소결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는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에서 대규모 연구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빠른 시간내에 파악할 수 있었지만,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와 정책제언들로 인해 지원 정책의 중복성과 정책집행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까지 다양한 집단에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

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의 복지, 의료·보건 등에 집중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라는 제도권 아래 학령기 아동의 교육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현황과 기관이용률 등 전반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영유아에 대한 연구는 학계를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기관내 소수의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례관찰 연구이거나 농촌이라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연구들로 대부분 그 연구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에 국한되고, 특히 대상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관에 다니는 유아들 중 연구 협조를 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국제결혼가정 유아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대표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먼저 육아지원에 다니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으며 기관내 교사들이 인식하는 영유아의 생활과 문제점, 교사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상에서 언급된 정책연구들의 주요 결과 중 취학 전 아동의 육아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일반가정 영유아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상당히 낮고, 주양육자는 양부모 모두이나 외국인 여성의 경우 언어와 문화차이로 어머니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전반적으로 인지, 언어, 사회발달 수준에 있어서 일반가정의 영유아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있어서 지원받기를 원한다. 가정방문 형태의 지원서비스를 가장 선호하며, 한국어와 자국어 공용의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기관에 잘 적응하는 경우는 교사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한다는 공통된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1.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법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 법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에 제정되어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아지원 관련 주요 골자는 다음의 제10조이다.

◇ 제10조(아동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교육관련 법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9조('08. 3)는 초등학교 입학 가능하도록 입학 절차 간소화(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하였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5조, 82조에 의하여 중학교의 경우 학칙에 따라 전·입학 및 편·입학 허용이 이루어지고,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학교정원의 20%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지침('03. 5)은 불법체류자 자녀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입학절차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완화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재한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 등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들의 국내 적응을 원활히 도모 및 내국민과의 관계 개선, 외국인 정책 관련 민법의 역할, 외국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라.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 협약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지원 협약으로 유엔의 인권관련 협약이 있다.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 '91)에 의하여 이주근로자 자녀는 한국의 일반아동과 동일한 교육권을 가진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91 기준)과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03.1)에 근거해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 제2조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민족적, 인종적 출신...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들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 제28조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고등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중앙정부 지원정책

가. 부처별 일반 지원정책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2006년 국정외제로 채택된 것을 기점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다음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이다.

<표 III-2-1>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현황

구 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외국인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사회비전 2030
발표 시기	2006.4	2006.5	2006.5	2006.8
관련부처	14개부처 및 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외국인정책위원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비전과 목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 사회 실현 -차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화민주적 통합(Cultural Democratic Integration)으로 문화적 융해의 장(Cultural Melting Pot)으로 전환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구현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 -우수외국인력 유치 지원	세계와 교류하는 다문화사회 -차별과 배제가 없는 다문화사회
주요내용	-탈법적 국제결혼 중개방지 및 결혼당사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체류지원 -한국사회 조기 정착 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생활안정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체계 구축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국민의 다문화주의 인식 제고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학교’ 및 가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교육 요소 반영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대학생멘토링 사업 확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외국국적 동포포용 -결혼이민자, 외국인 여성, 외국인 자녀 권익 향상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다문화사회의 통합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소외집단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 촉진위한 기본법 제정, 정부내 전담기구 설치 -국제결혼이주여성 기초생활보장,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설치, 언어교실 운영 등 지원책 마련

구 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외국인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사회비전 2030
		이중언어 학습지원, 불법 체류자 자녀의 신분안정을 위한 부처협의 추진		

자료: 김이선 외(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담당기관들 또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는 크게 ① 결혼이민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②결혼이민자 가족 및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③ 결혼 이민자 중 특정대상 집단(가족폭력, 성폭력, 인권침해 노출된 집단)에 제공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다양한 부처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자녀교육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간략히 소개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⁴⁾(2008.5.13 & 2008.10.31)

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I)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5월13일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대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강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골자는 결혼중개관리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각각 6월15일과 9월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여성에게 결혼 이전에 한국생활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강화, 전국 80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세분화된 한국어 교육 실시,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구축, 아동양육지도사의 방문교육실시, 생활 및 정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레인보우+’ 라는 종합정보지의 5개 국어 발간 등을 포함한다.

또한 2008년 9월부터 시행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위하여 중앙, 지방, NGO간의

4)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5.13일자 & 2008.10.31일자)를 토대로 작성됨

유기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2010년까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전국에 1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다문화 방송국이 8월1일자로 개국하여 육아와 보건의료, 취업, 가정법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4개 국어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그림 III-2-1]에 제시되어 있다.



전 단계 : 다문화역량 강화

-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마련: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대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다문화 봉사대 구성 · 활동
- 대국민 다문화인식 개선: 다문화 교육 · 홍보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5.)

[그림 III-2-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

<표 III-2-2> 생애주기 전 단계 다문화역량 강화 사업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사업 내용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0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NGO의 유기적 연계 및 체계적 추진체계 기반 구축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서비스 제공(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 지원 서비스 등)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인력확대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종사인력의 역량 강화 <p>※ 센터 확대계획 : (’08년) 80개소 → (’09년) 110개소 → (’10년) 140개소</p>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봉사대(가칭, 다문화 프렌즈)’ 결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지역사회 등이 함께 봉사함. • 다문화가족-활동가-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전국대회’를 추진 (’08.10)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교육과정에 다문화 과정 포함 및 연중 실시(공공기관 직장교육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 •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다문화 강사 양성·활용 등 전문적인 교육·홍보체계 마련 •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행사 연중 실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개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방문교육사업은 크게 ①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②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⁵⁾, ③ 찾아가는 임신·출산 서비스⁶⁾가 있다.

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대책」(II)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0월말에 지난 5월 발표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확대·보완하여 동일부처의 10개 국(관), 21개 사업부서 정책을 포괄하

- 5) 육아지원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큰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은 다음 절에서 후술(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서비스 현황 부분 참조)
- 6)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08년에는 ‘아동양육지원 사업’ 내에서 운영되며 독립적으로 실시되지 않음.

여 신규 20개 사업 등 향후 2~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규정 신설로 국제결혼 피해방지대책 마련('09년 법령개정 추진), ② 다문화가족센터의 통역요원 파견서비스를 통한 의사소통 지원, ③ 언어습득기 아동을 위한 언어치료사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④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별 교육강사 파견이다. 무엇보다도 이 대책은 서비스 등록·제공 시스템 정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핵심전달체계로 확대 설치, 다양한 기관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중복을 방지해 사업 효율화와 수요자 체감도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정부의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와 맥을 같이 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정책비전 아래 다음과 같은 4대 정책목표와 3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I-2-3>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2008.10)의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목표	1)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 2)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3)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4)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
정책방향	1) 결혼이민자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체계화 2) 가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이 지원 대책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를 이전의 4단계에서 7단계로 더 세분화하여 7대 정책과제, 21개 세부추진과제, 66개 세부사업내용(신규사업 20개, 확대·강화 40개, 기존정책 6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2-4> 가족 생애주기별 7대 과제

주기	결혼 준비기	가족 형성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가족역량강 화기	가족 해체시	전(쫄) 단계
정책 과제	결혼중개 탈법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 의 안정적 생활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 ·양육지원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	결혼이민자 경제·사회 적 자립 역량 강화	해체 다문화 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2)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정책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와 학교적응지원에 초점을 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2006. 5) 발표를 기점으로 학교중심의 다문화교육에 주력하기 시작했다(<표 III-3> 참조). 교육인적자원개발부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른 부처들과 공동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 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교육청-학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였다. 학교중심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사용 ‘교과서 지도 보완자료’ 발간·배포, 시범학교 운영(‘06년 2개교, ‘07년 12개교),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교재 개발·보급(‘06년 6개 교육청 23종), 한국어(KSL)반, 방과후학교 운영, 한국문화 이해 체험활동 운영(‘06년 10개 교육청 17개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 및 자녀 지도자료 개발·보급(‘06년 6개 교육청 9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RHRD)』을 통해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정된 7차 국가수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을 도입하여 35개 범교과 학습 주제 중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표 III-2-5>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2006. 5) 중 학교중심 지원방안 요약

구 분	세부 지원 방안
‘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KSL) 지도, 교과 지도,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지원 사업과 연계,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전국 278교)에 프로그램 운영 권장 -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복지부 조사(‘05)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22%가 전문대졸 이상) ●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에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자료 및 자녀 지도자료를 탑재하여, 개별 학교가 링크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비공개 대화방 개설 ●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상담하는 전담 교사 지정 -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1 결연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장수초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각각에 대해 전담교사 및 도우미 친구 지정(‘06~)

구 분	세부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다문화가정 교육 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방과후,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에 학교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
<p>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자격연수·직무연수시 다문화 이해교육,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교양 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 - 사회 소수자 문제에 관한 문제제기·해결 방안 등을 수록한 사례집 및 지도서 개발·보급 ● 교사대상 한국어(KSL) 및 한국문화 교육 연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학당(대학), 한국어세계화재단, 국제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 개설 장려 - 이를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토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 별도로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교사 지원 ● 한국어(KSL) 교육 능력을 가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 소지 현직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소정의 가산점 부여 권장(’06년 예고 후 ’07년 시행)
<p>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과서의 민족적·문화적 배타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과서 단일민족주의 요소를 발굴 및 삭제 검토 ● 교육과정 개정시 다문화·다인종 교육요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에 타문화 이해·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을 강조 ●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을 담은 ‘교과서 지도 보완 자료’를 전국 학교에 발간·배포(’06.9월)

2007년도에는 언어·문화 장벽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Identity) 확립을 통한 사회적 귀속감 및 일반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증대를 목표로, ①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지원체제 강화, ② 학교 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수립, ③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대책 마련, ④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언론 등의 지역단위 역량 결집 강화, ⑤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론적 기초 제공 및 각종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전담조직 설립, ⑥ 다문화 이해, 소수자 배려, 관련자 상담 담당 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 강화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업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중앙다문화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다문화 교육 교재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은 다음과 같이 국가적, 교육적,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가 차원

- ① 다문화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전담 교원, 장학 지도 등)
- ②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사회 적응 및 교육을 위한 정책 마련
- ③ 다문화 가정 전문 연구 및 정책 실행 기구 설립

(2) 교육 차원

- ① 다문화 이해 교육과정 도입
- ②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 ③ 다문화 가정 이해를 위한 교사 연수 및 자료 개발
- ④ 대학 교양과목에 다문화교육 도입
- 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교원대 등 포함)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포함

(3) 사회 차원

- ① 특성화 학교(예: 한겨레학교, 지구촌학교 등) 지원 및 활성화
- ② 취학 및 전입학 전 예비학교 설립
- ③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한 문해 교육 실시
- ④ NGO를 통한 대리 가족제, 멘토링(자원봉사에 의한 일대일 교육), 부모-형제 맺기 운동
- ⑤ 평생 학습과 연계된 다문화 지원

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은 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무부서인 평생교육직업국의 잠재인력정책과는 학령기 자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력 사업인 아동양육지원 방문서비스(다문화가족과 담당)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대상으

로 육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생애초기 학습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인 한글교육은 외국인 부모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육아지원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지원과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부모에 대한 간접 지원 서비스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양육지원'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6개 시·도에서 실시하는 취학 전 아동지원 프로그램과 부모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 지원 정책

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녀양육기' 지원 계획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 중 '자녀양육기' 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은 부모지원사업에 해당한다.

<표 III-2-6>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기' 지원계획

<p>[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기' 지원사업 계획](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08. 5)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에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매년 5개소 지정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09. 3) ■ 시설 미이용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보육교사 파견 ('09. 7~) ※ 결혼이민여성의 양육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실시 ('0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등 교육 - '08년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도사 1,600명 파견, 10,240가구 지원 예정

이상의 지원계획은 지난 10월에 수정, 강화되었으며, ‘자녀양육기’에 다문화가족의 자녀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할 계획인 구체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대상을 2010년도에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서 중산층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임신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지원·교육프로그램을 2008년도 153개의 전국 보건소에 보급하던 것을 2009년도 253개 보건소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부모-자녀간 자긍심을 향상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를 위해 1) 2010년에는 일정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을 검토하고, 2)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보육 시범지역 지정('09년)하며, 3)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일반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교사 양성에 다문화 프로그램을 포함할 예정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사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초중등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취학 전 아동 대상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생애초기 학습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인 한글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 교육 교수자료 개발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업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유치원교육과정 속에서 다문화 요소를 강조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생애초기 학습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한글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생애초기에 유아들의 기본학습능력과 태도를 길러 사회 양극화 해소와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2007년~2008년도에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개발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다.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여부를 진단·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한글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의 한국어 능력을 증진하고 다문화가정의 취약한 언어환경을 보완하여 학업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다문화가정 부모와 교사간의 지속적인 협력체제 마련에 있다. 한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부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② 한국어 구성원리를 고려한 교육 ③ 교육내용에 한국문화 및 생활문화를 포함 ④ 한국어 수준 측정을 통한 수준별 학습 ⑤ 놀이상황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한국어 교육 ⑥ 유아의 흥미유발과 반복학습을 위한 첸트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이 한글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문해 접근을 기반으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활동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외국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한글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며,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일상경험과 관련된 주제 및 세부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내용에 포함함으로써 어머니와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어능력 수준별로 교재를 개발하고 주 2회, 총 6개월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연간 48회 집합교육과 48회의 부모자녀상호작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2) 다문화 교육 교수자료 및 부모교육자료 개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유아교육자료를 교사용 및 부모교육용으로 개발하여 전국 유치원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개발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자율장학 협의회 및 유아교육연구회 등을 통하여 교사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도 교수자료개발 사업으로 유아를 위한 「세계 이해와 다문화교육 활동자료」를 개발하였다. 교수자료 개발진(조경서 외, 2007)은 다문화가정 부모, 담당교사, 교육청 공무원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개발된 자료를 현장에 적용,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 교수자료에서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유아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나와 다른 외모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기'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에서 개발되었다(p.18):

첫째, 유아들의 세계 이해를 돕고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가족구성 및 문화에 대한 지식과 수용적 태도 고취를 돕는다.

둘째, 세계이해의 지식과 다문화 수용태도를 활동으로 통합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일반가정의 유아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넷째, 국내 다수 거주 외국인 국가(즉,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의 문화를 주로소개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개발한다.

다섯째, 기존의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을 검토하고 동화와 동요를 창작 한다.

여섯째, 음악, 신체표현, 미술, 언어 등 활동유형을 다양하게 하고 활동을 난이도에 따라 I 수준과 II 수준으로 구분한다. 초보교사라도 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활동방안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총 29개의 활동과 3편의 창작동화, 4편의 동요가 개발되었으며, CD-ROM으로도 제작되었다. 아울러 부모교육용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하여, 제1부는 다문화에 대한 배경지식, 제2부는 유아의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부모 답변,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 기관 및 다문화 체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이상의 지원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기존의 한글교육은 자녀와의 대화에 중점을 두어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자녀의 언어습득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와의 대화에 자신감이 없는 경우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초기 기본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일부인 한글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상경험과 세부교육내용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자녀의 경험에 대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점이 매우 우수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기존 외국어머니용 한글교재들이 말하기에 치중하고 특히 읽기와 쓰기능력 학습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기능이 골고루 통합적으로 발달되도록 교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수준의 다문화교육관련 교수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이외에, 최근 시도에서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으며, 개별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제법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예: 양영자, 2007)들은 이러한 다문화교육

이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양영자(2007)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문화교육이라고 지칭되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목적, 내용, 방법 면에서 다음과 같이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교육목적에 있어서 다양성을 강조할 것인지 문화적 단일성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며,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소수자의 적응교육, 소수자의 정체성 함양 교육, 다수의 소수자 이해증진 교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나, 주로 소수자의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다문화 교육을 분리형 또는 통합형,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p.225).

유아교육과 보육분야는 초중등학교교육에 비하여 전통적으로 교육실제의 성격이 강하며, 이는 다문화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각종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교육의 목적에 논의와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원리와 그 준거를 규명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체계적인 이론적 틀에 따라 개발되었다기보다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명칭하에 일단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게 하는 형태의 교육활동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위에서 소개한 두 프로그램과 교수자료는 체계적인 개발원리와 절차, 확고한 철학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중앙정부 차원 및 각 지자체와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간의 철학적·방법적 일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연수와 홍보 등의 프로그램 운영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유치원 교육과정의 다문화 요소 강조

2007년 12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다. 7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방향은 총 10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중 다문화와 관계된 내용은 여섯 번째인 ‘우리 전통과 문화의 장점을 전 영역에서 강조하며,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내용과 서로 잘 융합되도록 한다’와 아홉 번째의 ‘유아의 성, 종교, 가족배경, 신체적 특성, 민족배경으로 인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구성한다’ 라는 항목이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부터 200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6차례 개정이 이루어

어졌다. 1차-7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 영역 중 다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영역은 사회생활 영역이다.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육과정의 구성체계에 있어 변화가 있었으며, 사회 생활영역 역시 타 영역과 마찬가지로 영역 명칭, 목표, 내용체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6차 교육과정, 2009년부터 시행될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사회 생활 영역을 요약, 비교·검토한 결과는 <표 III-2-7>과 같다.

<표 III-2-7> 제1~7차 유치원 교육과정 사회 생활 영역의 비교

구분	제1차 (1969)	제2차 (1979년)	제3차 (1981)	제4차 (1987)	제5차 (1992)	제6차 (1998)	제 7차 (2007)
하위영역	1. 개인생활 2. 사회생활 3. 국가생활	1. 사회 2. 정서	1. 개인 및 가정생활 2. 집단생활 3. 국가생활 ·다른나라에 대하여 관심가지기	1. 개인 생활 2. 집단생활 3. 국가생활	1. 기본생활습관 2. 개인의생각과 행동조절 3. 가족이해 4. 집단 생활 5. 사회현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다른나라에 대해 관심 가지기	1. 기본생활습관 2. 개인생활 3. 가정생활 4. 집단 생활 5. 사회현상과 환경·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에 관심 가지기	1. 나를 알고 사랑하기 2. 가족과 함께 하기 3. 이웃과 더불어살기 4. 우리생활 돌아보기 ·다양한 문화에 관심 가지기
비고			·자기자신으로부터 국가세계로 개념 확대 ·1차시보다 국가생활 부분에비중이 커짐.		·국가적 생활 구분의 영역에서 사회 현상의 영역이 새로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대한 관심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 까지로 확장.	·21세기의 세계화의 목표에 따라서 5차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 갖기에서 세계여러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갖기로 확장.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상호 존중과 상호 의존의개념이 유아의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함.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함.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유치원 영역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

<표 III-2-7> 에서 알 수 있듯이 제 1, 2, 4차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제 3, 5, 6, 7차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다문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3차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생활 영역의 하위 영역 중 국가생활 영역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 가지기'로 강조되었고, 5차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사회생활 영역 중 하위 영역인 집단생활 영역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 가지기'로 기술되었다. 반면 제6차, 제7차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생활 영역의 하위 영역 중 집단생활 영역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관심가지기', 제7차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생활 영역의 하위 영역 중 우리생활 돌아보기 중, '다양한 문화에 관심 가지기'를 포함하여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였다.

특히, 2007년에 발표된 제7차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하는 사람', 교육 목적 및 목표에서 '더불어 사는 태도와 우리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확장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사회생활 영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차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사회생활 영역은 '나를 알고 사랑하기', '가족과 함께 하기', '이웃과 더불어 살기', '우리 생활 돌아보기' 등의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우리 생활 돌아보기'는 유아를 둘러싼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문화와 생활양식에 바탕을 두어 유아가 생활하는 주변 지역, 경제생활, 우리나라 정체성 및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즐기며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생활 돌아보기'는 다시 '주변지역에 관심가지기', '경제생활에 관심가지기', '우리나라와 전통문화에 관심가지기', '다양한 문화에 관심가지기'로 구분하여 '다양한 문화에 관심가지기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표 III-2-8> 제7차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우리생활 돌아보기 하위내용

영역	내용	1수준	2수준
우리생활 돌아보기	다양한 문화에 관심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나라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여러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나라의 사람을 존중하며 함께 지낸다. ·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유치원 총론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

2) 부모 지원 정책사업

보건복지가족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대상으로 방문 양육교육 서비스(7)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지원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이 투입되는 주력사업으로, 그 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 목적 및 내용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아동양육 지도사가 직접 방문하여, 자녀의 발달 특성과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녀양육능력을 제고하고 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첫째, 취학 전 유아 또는 저학년 아동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아동양육설계 및 부모역할 정립을 도모한다.

둘째, 한국생활 문화 등이 적응되지 않고 출산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출산 및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셋째, 아동양육도우미가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 자녀양육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중·장년 전직 교사, 사회운동가, 전문자원봉사자, 결혼이민자 등을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도우미’로 양성한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아동양육서비스를 통하여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구성원간 갈등을 줄여 가족해체의 위기를 방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형성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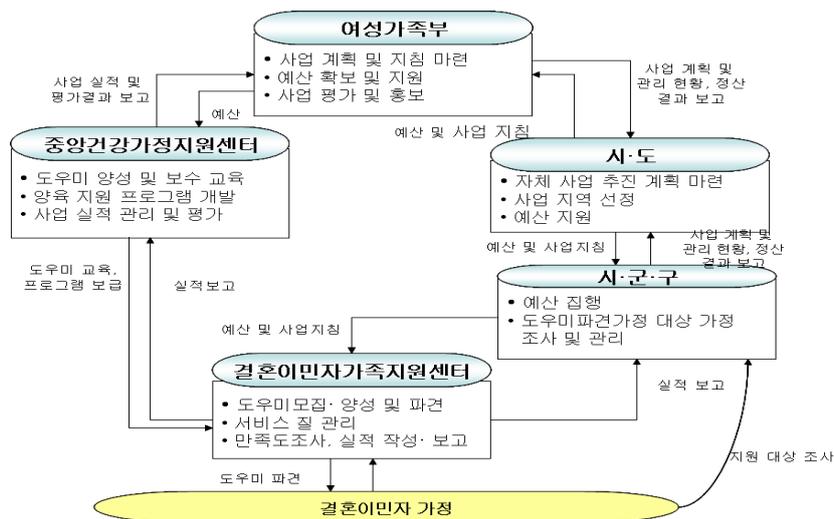
7) 방문교육 서비스는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도 포함함. 이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한국생활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글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글교육 및 가족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나) 사업 기간 : '08년 1월~12월(12개월)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기간은 총 10개월임(3월~12월)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원되며 각 총 5개월씩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참고로 2007년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간은 1차(4월~7월), 2차(8월중순~12월중순)를 합하여 총 8개월이었다.

다)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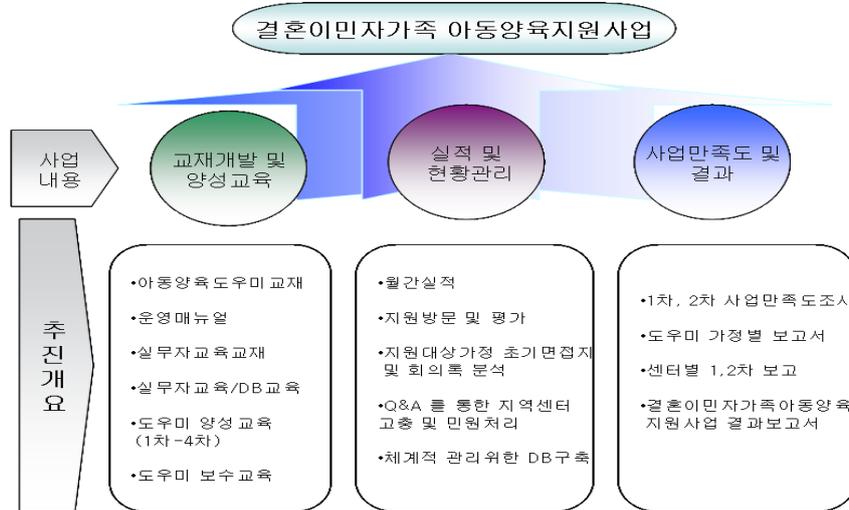
아동양육 방문교육사업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소외지역 최소화를 위해 인근 2~5개 지역을 포괄하여 방문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그림 III-2-2] 아동양육지원사업 추진체계도

자료: 2007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p6)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역센터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도우미 양성교육과 각종 교재개발 및 매뉴얼 개발, 보급, DB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그림 III-2-3]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관리

자료: 2007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p28)

라) 사업예산

방문교육 예산 지원방법은 대체로 지방비 부담률(서울 50%, 지방 30%)을 전액 광역에서 부담하거나, 또한 광역과 기초에서 반씩 부담하고 기초 부담금을 사업시행 지역에서 정률 배분하거나 지방비 부담률 전액을 기초에서 부담하고 부담금을 사업시행지역에서 정률 배분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방문교육 사업예산은 총 24,173백만원(지방비 7,481백만원 포함)이며, 이 중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총 사업예산은 16,040백만원(국비 11,080백만원, 지방비 4,960백만원)이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당 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배분된다. 이외에도 방문교육사업 관리비로 1,450백만원(중앙건강지원센터 지원) 소요된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 행정기관 및 지자체 자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활성화하고 사업시행지역 선정시 유사 서비스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2007년도 사업예산은 1,920백만원(복권기금)이었으며, 시도별 지원금액 현황은 <표 III-2-9>와 같다.

<표 III-2-9> 2007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지원금액 현황

시·도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수(명)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비율 및 그룹			지원 금액 (천원)
		비율(%)	그룹	사업시행기관	
서울	4,874	19	1	3개	192,000
부산	1,246	5	2	2개	134,400
대구	805	3	3	1개	76,800
인천	650	3	3	1개	76,800
광주	162	1	3	1개	76,800
대전	156	1	3	1개	76,800
울산	548	2	3	1개	76,800
경기	4,574	18	1	5개	192,000
강원	1,572	6	2	3개	134,400
충북	1,482	6	2	2개	134,400
충남	1,661	6	2	2개	134,400
전북	1,407	6	2	2개	134,400
전남	3,138	12	2	2개	134,400
경북	1,573	6	2	2개	134,400
경남	1,238	5	2	2개	134,400
제주	160	1	3	1개	76,800
총계	25,246	100	36	31개	1,920,000

자료: 2007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p5)

마) 사업운영기관현황

2007년도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가정 및 아동양육도우미는 해당지자체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의해 선정되었다. 전국 31개 센터에서 1차 220명, 2차 237명의 아동양육도우미(활동중단도우미 제외)가 활동하였으며, 지원대상 가정은 1차 1097가정, 2차 1,161가정이다.

1차와 2차 지원대상가정은 서비스가 중단된 가정을 포함하여 총 2,258가정이었으며, 1차에 이어 2차 사업에서도 서비스를 받은 서비스연장 지원대상가정은 434가정(37.8%)이다. 지원대상가정의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베트남(35.2%), 필리핀(23.1%), 일본(15.9%), 중국(13.9%), 태국(4.8%) 순이며 기타 국가로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콩고 등이 있었다. 서비스 중단 가정은 1차 108가정, 2차 105가정이며, 중단사유는 결혼이민자 친정(출신국) 방문 장기화와, 취업, 출산 등이 있었고, 기타 사유로는 타 지역으로의 이사 및 가정폭력 등에 의한 쉼터입소 등이다. 지원대상가정의 서비스 협조 태도에 대한 도우미들의 평가에서 모든 항목 5점 만점 평균 4.1점 이상(백분율

환산 83점)으로 지원대상가정의 서비스에 대한 협조 및 변화 의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유 및 활동사항이 좋지 못하여 활동을 중단한 도우미는 1차, 2차 각각 12명(5.5%), 7명(3.0%)이다. 여성결혼이민자 도우미는 1차, 2차 각각 24명(10.9%), 21명(13.5%)이었고 출신국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러시아 순이고 그밖에 콩고와 러시아 출신의 아동양육도우미도 있었다.

바) 사업운영 실적 및 성과

주요서비스 실적은 1차 총서비스 127,296건 2차 총서비스 126,778건였으며, 1차와 2차 모두 합쳐 지원대상가정에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학습지도 74,753건(29.4%), 생활지도 40,204건(15.8%), 부모상담 26,860건(14.5%), 문화이해 22,925건(9.0%), 인성지도 22,859건(9.0%) 순이다 (<부표 1>참조)

주된 육아지원 성과로는 일부 결혼이민자가정에서 방치되었던 자녀의 언어 및 사회성발달의 지체현상이 아동양육도우미들에 의해 부모역할참여 및 학습동기 부여, 친밀한 관계형성이 진행됨에 따라 이들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이 향상된 점이다.

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다문화가정 아동양육 방문교육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08년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문교육의 직접적인 대상이 외국인 어머니로 중요한 지원대상이나, 아동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양육방문교육의 관건은 아동양육지도사의 자질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므로, 양육지도사의 양성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부처의 위탁으로 현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도사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현황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를 비롯하여 지도사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어머니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이나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보다 자녀들의 알립장에 적합한 내용을 이해해서 준비물을 챙겨주는 것이 더 절실할 수 있으므로, 방문교육내용의 적합성과 활용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특히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사 방문 시 교육대상자를 만나기도 어렵고 대상자가 교육을 위해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현재 4~5개월인 총 방문교육의 기간 및 1회당 교육시간은 교육대상자의 양육지식과 기술 수준, 연령, 조부모의 육아지원 수준 등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외국인 어머니가 교육을 받는 동안 누군가 자녀를 돌봐주어야 하므로, 지도사 한 명이 한 가정을 방문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수요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문지도사 두 명이 한조가 되어 가정을 방문하는 시스템을 실시할 경우, 한 명이 어머니에게 양육기술 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자녀들을 보살피줌으로써 어머니가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을 할 수 있어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현재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광역단위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단체 822개 기관 중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2005년 86개이던 것에 비해 2006년 242개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36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6개 시·도에서는 각 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양육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각 시·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아동의 교육,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아동 지원 정책사업

본 절에서는 16개 시·도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6개 시·도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한국어 및 학습지도(69.2%)이고, 그 다음이 결혼이주여성이 교육을 받는 동안 취학 전 자녀를 돌봐주는 '돌보미' 사업(53.8%)이

다. 이를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과 취학 자녀 대상 육아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III-3-1> 와 같다.

<표 III-3-1> 16개 시·도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사업

시·도	취학 전 아동 지원사업	취학아동 지원사업
서울	-부모교육 중 아이돌보기	-아동양육지원사업(아이돌보미) -학습지도/ 엄마손잡고(에버랜드가기)
부산	-베이비북스타트운동(그림책지원)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하여 지원 -국제결혼자녀의 어머니나라 소개하기 -아이와 함께하는 아동양육강좌	-아동양육지원사업 -자녀건강검진 -아이돌보미 지역아동센터 연계무료급식 -지역아동센터연계 방과후 학습 -엄마의 나라 맛보기(문화강연) -어린이자치학교 운영
대구	-심리발달센터 프로그램 참여 -놀이방 운영	-아동양육지원사업 -다문화자녀 토요학교운영
인천	-아이돌보미지원(긴급일시돌봄) -엄마교육시간 동안아동보호	-아동양육지원사업 -아이돌보미(파견 서비스)
광주	-아동양육지원사업(미취학 아동대상)	-아동양육지원사업(학령기 아동 대상) -학교생활 미리 배워요(취학전 안내자료 제작) -학생대상 한글교육 -학교별 회장단 토론활동(다문화이해)
대전	-산후조리 기간 아동 보육 보조 -이민자자녀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11종) 무료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아동양육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확대운영(급식해결/안전보호) -방과 후 기초학습 보충 도우미파견 (부진교과무료지도)/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정서순화교육
경기도	-부모자녀 협동놀이 집단 프로그램 -영유아건강관리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아동양육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가정학습 도우미제 운영 -방과후 학습지원/자녀 학습지원(멘토링) -다문화가정희망나누기사업(아동학교학습지도) -학교생활부적응예방 및 향상(학습지교육 등)
강원도	-자녀양육비지원 2년 이상(월 3만원)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음악교육 -엄마랑 아기랑 함께 동요를(노래교실) -기형아 예방 검사	-아동양육지원사업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지원 -수학여행비 -자녀 한글교실
충청남도	-영유아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영유아보육료 전액무상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학업료지원(학습지, 방문교사) -자녀 학업자료지원(동화책, 교과서) -자녀 학습지원(우리말듣기, 낱말공부 등) -국제결혼가정 아동체험단교실/ 놀이치료 /

시·도	취학 전 아동 지원사업	취학아동 지원사업
		비전동아리(비전캠프)/ 엄마와 함께하는 미술치료
전라북도	-생애초기 학습능력개발지원사업	-아동양육지원사업/자녀방문학습지도사업 (주 1회, 국어) -한글방문지도 정착지원사업 (이주여성 자녀 방과후 교육)
전라남도	-아이첫돌 생활용품지원 -자녀돌보미(엄마수업 중 보호)	-아동양육지원사업(아동의 등학교 이동지원 /학원연계등) -문화체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랑배움터 운영
경상북도	-자녀보호 및 모성보호 지원 -보육실 운영(교육 중 돌봄) -취학 전 자녀 유아교육과 대학생과 결연(우리말 익히기/같이 놀아주기)	-아동양육지원 -한솔희망교육(1대1한글교육) -취학자녀 학원교육비 -일본 국적자녀 한글공부방 마련 (발음지도/독서지도 등) -인근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지도 -우리고장 방문/ 대모만들기 -결혼이주여성지원바우처(자녀방과 후 학습지지원) -민간협력 자녀한글교육
경상남도	-미취학 아동 대상 사업 부재	-방문한국어학습도우미(자녀한글지도): 만 12세 미만 -자녀캠프(자녀와 친구 문화체험캠프)
제주도	-아동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	-방과 후 자녀공부방 -한솔장학생 한글지원학교 연계교육실시 -초등학생가정대상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서울방문)

자료: 각 시도 담당자에 취학 전 아동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여 작성.

나. 부모 대상 지원사업

16개 시·도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 서비스 중 양육·출산비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38.5%)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민간단체에서는 자녀양육 및 부부교육 사업(53.8%)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를 임신·출산과 양육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III-3-2>과 같다.

<표 III-3-2> 16개 시·도별 다문화가정 부모지원 사업

시·도	임신·출산 (의료)	양육·교육	사업내용
서울	X	O	-엄마손잡고(에버랜드가기)/ 자녀학교 모니터링
부산	O	O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이주여성 임신, 출산 등 의료지원대책/ 임신부건강검진, 출산도우미 파견/ 임신육아정보교실/ 아이와 함께하는 아동양육강좌
대구	O	O	-무료출산도우미 파견/ 놀이방 운영
인천	X	O	-결혼이민자가족양육수당지원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교과서연구반 -자녀와 함께 하는 자연문화체험/ 자녀친밀기회제공, 문화격차 줄임/ 자녀양육법 특강
광주	O	O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육아교육
대전	O	X	-출산전후 산모도우미 파견 (2주간 산후조리/ 병원 동행 등)/ 임신부 건강검진 -의료안전망(소아과산부인과) 구축(임산부 등록관리)
울산	O	X	-임신출산교육
경기도	O	O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이주여성 건강교육(임신, 출산)
강원도	O	X	-임신에서 육아까지 맞춤형 서비스 법률상담 -모성보호사업지원(산전후 검사)/기형아예방 검사 -출산준비도우미 지원
충청북도	X	O	-결혼이민자 자녀 학용품비 지급
충청남도	O	O	-임산부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결혼이민자 자녀교육
전라북도	O	O	-신생아산모 도우미 파견/ 자녀교육
전라남도	X	O	-건강한 가족만들기(자녀교육)
경상북도	O	X	-출산용품 지원/ 행복스타트 통장지원 (출생자녀통장 1십만원 입금)
경상남도	O	O	-외국인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방문도우미사업(20주/주3회)
제주도	O	X	-임신출산교육

자료: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전혜정 외, 2008)를 토대로 재구성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이외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민간기관 지원이 주로 종교단체, 복지관, 이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이주여성이 민간기관을 이

용하는 동안 어린자녀를 보살펴주는 보육서비스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34.6%), 아동상담서비스 및 사회정서교육(15.4%), 특성 및 적성교육(7.7%), 리더십, 멘토링, 건강진단 서비스(3.8%) 순으로 나타났다(조경서, 2007; 전해정, 2008; 장미혜, 2008). 초기 민간기관의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은 여성과 가족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 지원은 부족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자녀들 수가 증가하고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점차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달리 민간기관에서는 자녀들의 통합교육, 리더십, 상담, 건강진단 서비스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서비스 사업은 다음과 같다(부표 III-3-1 참조).

IV. 다문화가정의 육아 실태 및 요구

본 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육아 실태와 요구를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부모 대상 면담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양육실태와 요구에 대하여 결과가 많으며, 이는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외국인 부모 면담결과와 상당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육아실태와 요구를 보다 풍부히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4-5개월 동안 일주일에 2-3번 다문화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아동양육 방문지도사들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육아 실태와 부모들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1. 육아 실태

가. 다문화가정 양육환경

1) 주양육자 및 자녀발달

남편들 직업은 대체적으로 불안정하고 일용직인 근로자가 많으며, 퇴근 시간도 주로 10시 이후가 많아 가정의 주된 양육자는 대부분 이주 여성이 된다. 이런 이유로 어린 자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주여성들과 보내게 되면서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어머니의 어색한 한국어 발음 때문에 자녀들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주여성인 주양육자가 되는 가정은 언어발달이 늦어지지 않도록 자녀들을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자녀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해 언어발달이 늦어지게 된다. 특히 아버지가 장애가 있거나 지능이 모자라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와 자녀들간 밀착관계가 더 커지면서 언어가 더 심각하게 지연된다.

2) 다문화가정 양육환경 문제점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육아지식이나 개념이 부족한 상태이다. 게다가 주위에 조언을 구할 친척이나 이웃도 없어 자녀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나 학력 수준, 교육열에 따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주여성이 의욕을 가지고 정보를 찾으면서 자녀들 교육에 신경을 쓰는 가정은 자녀들이 한국어 습득이나 정서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자녀들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언어 문제는 국적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인 출신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언어가 또래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지만,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가정 자녀들은 언어습득이 상대적으로 더 느린 편이다. 이에 이주여성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개인학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길 원하지만 개별교육이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고 카톨릭 신자들이 많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영어를 조금씩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택에서도 존중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캄보디아, 베트남, 몽고, 한족여성들은 학력 수준도 낮고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가정내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결혼생활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과거가 밝혀지거나 자국에 있는 자녀를 입양하길 원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가정불화가 생기고 있다.

대부분 주된 양육자는 어머니이며, 아버지는 가정일이나 자녀들 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아버지가 장애가 있거나 지능이 모자라는 경우 아이에게도 장애가 유전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하지만 검사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는 지도사 입장에서도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한다. 한국적인 양육방식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와 자기나라 방식을 따르려는 며느리 사이에서 자주 갈등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갈등의 골이 커지기 전에 지도사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방문지도사가 고부간, 남편간 갈등을 중재해 주는 것 이외에 이주 여성들에게 존댓말이나 한자어를 알려주거나 이유식에 대한 책자나 육아관련 정보를 주면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문화 자녀양육 갈등

방문교육 지도사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이 겪는 가정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역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생기는 갈등이다. 특히 시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에서는 한국적인 양육방식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와 자국의 방식을 따르려는 며느리 사이가 자주 갈등을 겪는다. 남편들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한국 방식을 강요하면서 따르기를 요구하거나 한국음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가정불화가 생기는 가정도 있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여성이 주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을 수용하지 못해 부부싸움을 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지도사와 외국인 어머니들간의 양육방식의 문화차이로 인해 갈등도 종종 생기는데, 일례로 베트남 가정의 경우 방문수업을 하는 동안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추운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옷을 입히지 않고 차가운 방바닥에서 그냥 돌아다니게 하거나 바닥에 과자를 던져주고 주워 먹게 하는 등 자신의 나라에서 자라온 방식을 고집하면서 지도사의 교육내용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중국의 경우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양육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와 관계에서도 자신이 준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문화차이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도 생긴다고 한다. 또한 이주여성 중 상당수가 자신이 배우기보다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주길 원하거나 지도사에게 자녀 양육을 직접 맡기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자녀양육을 부인이 담당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어린나이에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유식을 먹이는 방법이나 예방접종을 하는 등 필수적인 육아지식이나 개념이 부족하고 주위에 조언을 구할 친척이나 이웃도 없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일례로 베트남 가정의 경우 18개월 된 자녀에게 이유식을 주지 않고 모유만 먹여 아이가 영양실조와 빈혈이 심해 지도사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아버지에게 상황을 알려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남편은 자녀에게 관심이 많지만 주로 10시 이후에 퇴근하고 부인과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자녀 상태를 잘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나 학력수준, 교육열에 따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주여성이 의욕을 가지고 정보를 찾으면서 자녀

들 교육에 신경을 쓰는 가정은 자녀들이 한국어 습득이나 정서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언어가 늦어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거나 틱이나 정서불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사와 학부모 관계 및 의사소통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잘 적응하고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들 대부분은 어린이집 교사를 전문가라 신뢰하므로 교사와 어머니들과의 관계는 좋은 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특히,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나 고쳐야 할 행동문제를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이주여성과는 제대로 의미전달이 어려워 오해가 자주 발생하게 되며, 시부모들은 교사의 이야기를 불쾌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자녀들이 언어를 배울 시기가 되면 언어발달이 늦어지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다양한 과외활동을 시키면서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일본이나 중국인 출신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언어가 또래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지만,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 출신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발달이 늦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주여성들은 어린이집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개인학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길 원하지만 그렇게 개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주 섭섭해한다고 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부모들 대부분은 어린이집 교사를 전문가라 생각하면서 믿기 때문에 교사와 어머니들과의 관계는 좋게 유지된다고 한다.

교사들의 입장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나 고쳐야 할 점을 부모에게 전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어머니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제대로 의미전달이 어렵고 시부모들은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다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대신 전달해 주게 할 경우에는 이주여성들끼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고 한다.

2. 육아지원의 요구

가. 정부에의 요구

다문화가정 부모들과 실시한 면담을 토대로 부모들이 제시한 정부지원에의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특히 자녀들의 언어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는 것이 필요함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내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이 많으므로 국가가 이들 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해 주길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부인나라 문화를 알지 못하는 남편들을 위해 부인나라의 문화를 배우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셋째, 재혼 다문화가정의 경우 전처소생자녀들의 문제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자녀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가지원 서비스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결혼하여 자녀가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 취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절차의 간소화의 필요성 등을 요구하였다.

나. 아동양육 방문교육 지도사에 대한 요구

방문교육을 받는 이주여성 중 상당수가 지도사들이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길 원하거나 자녀 양육을 직접 맡기기도 한다.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일부 이주여성들은 가정생활보다 본인과 자녀의 장래를 더 생각하면서 양육교육보다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길 원한다. 또한 지도사들이 자신들에게 양육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남편이나 시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해 주길 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5-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양육 지도서비스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가정 지원 실태 및 요구

1.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배경

가.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 수준

1) 전반적 발달 수준

응답기관 취원 원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4세아가 22.7%로 가장 많았고, 만5세가 21.1%의 비율을 차지하여 만4세와 만5세가 비슷한 비율이었다. 다음으로 만3세 19.6%, 만2세 16.5%, 만1세 13.7%, 만6세 4.8%, 만7세 1.4%의 순서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2%, 여아가 48.8%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수준은 <표 V-1-1>과 같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대하여 일반가정 영유아를 기준으로 담당교사가 평가한 결과, 신체발달이 '상'수준인 아동 비율이 54.8%, '중'수준이 38.6%, '하'수준이 6.6%로 절반 이상의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신체발달이 좋음을 알 수 있다. 언어발달의 경우, 듣기는 '상'수준이 62.3%, 중수준이 30.7%, '하'수준이 6.9%이며 말하기는 상수준이 54%, 중수준이 33.5%, 하수준이 12.5%로 나타나, 듣기발달보다 말하기 발달수준이 확연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성 발달인 또래관계의 경우 상이 49.4%, 중이 44.3%, 하가 6.3%로 조사되었다. 요컨대,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 '중·상'수준으로 평가하여, 오히려 일반가정 영유아에 비해 더 양호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황 및 발달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체	648	100.0
아동연령별(만 연령)		
1세	89	13.7
2세	107	16.5
3세	127	19.6

구분	사례수	%
4세	147	22.7
5세	137	21.1
6세	31	4.8
7세	9	1.4
성별		
남아	332	51.2
여아	316	48.8
아동신체 발육		
상	355	54.8
중	250	38.6
하	43	6.6
아동의 듣기		
상	404	62.3
중	199	30.7
하	45	6.9
아동의 말하기		
상	350	54.0
중	217	33.5
하	81	12.5
아동 또래관계		
상	320	49.4
중	287	44.3
하	41	6.3

<표 V-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한 교사들이 평가한 발달 수준이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상'수준인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의 약 30%이며, 한 가지 발달영역에서라도 '하'수준인 비율은 약 20%로 파악되었다.

<표 V-1-2>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따른 범주화

	사례수	단위: 명(%)	
		평균	표준편차
4개 발달영역 모두 "상"	197(30.4)	3.69	1.43
4개 발달영역 중 하나라도 "하"	128(19.8)	3.09	1.53
그 외	322(49.8)	3.36	1.52
전체	647(100.0)	3.41	1.51

2) 연령에 따른 발달 수준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말하기 발달수준과 또래관계를 살펴보면, 영유아 모두 말하기 수준에서 '상'인 비율이 높았으며, 또래관계에서는 영아는 '중'인 비율이 유아는 '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말하기 수준과 또래관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표 V-1-3> 아동연령별 말하기 및 또래관계 발달

단위: 명(%)

구분	연령			X ²
	영아	유아	전체	
말하기 발달				
상	80(40.8)	247(60.1)	327(53.9)	20.16**
중	83(42.4)	122(29.7)	205(33.8)	
하	33(16.8)	42(10.2)	75(12.4)	
전체	196(100.0)	411(100.0)	607(100.0)	
또래관계				
상	77(39.3)	225(54.7)	302(49.8)	15.61**
중	100(51.0)	168(40.9)	268(44.2)	
하	19(9.7)	18(4.4)	37(6.1)	
전체	196(100.0)	411(100.0)	607(100.)	

**p < 0.01

3) 성별에 따른 발달수준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발달수준을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4개 발달영역에서 모두 '상'수준인 비율이 높고, 1개 영역이라도 '하'수준인 비율이 낮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여아가 남아에 비해 듣기 및 말하기 발달이 '상'수준인 아동이 많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5).

<표 V-1-4> 다문화가정 영유아 성별에 발달수준

단위: 명(%)

	4개 영역 모두 "상"	4개 영역 중 하나라도 "하"	그 외	전체
남아	91(46.2)	75(58.6)	166(51.4)	332(51.2)
여아	106(53.8)	53(41.4)	157(48.6)	316(48.8)
전체	197(100.0)	128(100.0)	323(100.0)	648(100.0)

<표 V-1-5>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듣기 및 말하기 발달 수준

단위: 명(%)

구분	영유아의 듣기 및 말하기 발달				χ^2
	상	중	하	전체	
듣기					
남아	189(56.9)	118(35.5)	25(7.5)	332(100.0)	8.72*
여아	215(68.0)	81(25.6)	20(6.3)	316(100.0)	
전체	404(62.4)	199(30.7)	45(6.9)	648(100.0)	
말하기					
남아	157(47.3)	124(37.4)	51(15.4)	332(100.0)	13.19**
여아	193(61.1)	93(24.4)	30(3.5)	316(100.0)	
전체	350(54.0)	217(33.5)	81(12.5)	648(100.0)	

*p < 0.05, **p < 0.01

나. 다문화가정 부모의 특성

1) 전반적 특성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출신국은 총 20개국, 외국인 아버지의 출신국은 총 17개국으로 조사되어,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정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은 중국(25.0%), 필리핀(22.2%), 베트남(18.4%), 일본(18.2%) 순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아버지의 국적은 미국(23.7%), 일본(22.6%), 몽골(12.9%), 중국(11.8%)으로 외국인 어머니에 비해 선진국 출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다문화가정 부모의 국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체	648	100.0
외국인 모의 국적		
중국	150	25.0
필리핀	133	22.2
베트남	110	18.4
일본	109	18.2
태국	23	3.8
몽골	19	3.2
우즈베키스탄	9	1.5
러시아	7	1.2
인도네시아	6	1.0
캄보디아	5	0.8
미국	5	0.8
모로코	3	0.5
카자흐스탄	3	0.5
기타 ¹	17	2.9
외국인 부의 국적		
미국	22	23.7
일본	21	22.6
몽골	12	12.9
중국	11	11.8
파키스탄	8	8.6
나이지리아	3	3.2
필리핀	3	3.2
네팔	2	2.2
모로코	2	2.2
캐나다	2	2.2
기타 ²	7	7.4

주 1: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탈리아, 호주, 독일

2: 라오스, 방글라데시, 캐나다, 체코, 페루, 미얀마, 미국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과 자녀교육열,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모두 '중'수준인 비율이 약 50%로 가장 높으나, '하'인 비율이 약 25%나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자녀 유대관계에 대하여 '상'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58.5%로 '중'인 비율까지 합하면 거의 94%에 이른다.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의 비율은 60.0%이며, 편부모 가정은 4.2%로 조사되었다.

<표 V-1-7> 다문화가정 부모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체	648	100.0
외국인 부모 한국어 수준		
상	230	35.5
중	309	47.7
하	102	15.7
편부모 가정	7	1.1
외국인 부모 교육열		
상	256	39.5
중	331	51.1
하	56	8.6
편부모 가정	5	0.8
부의 자녀양육 참여도		
상	149	26.2
중	280	49.3
하	138	24.3
편부모 가정	1	0.2
부모-자녀 유대관계		
상	379	58.5
중	226	34.9
하	43	6.6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263	40.6
비취업	381	60.0
편부모 여부		
편부모임	27	4.2
아님	621	95.8

<표 V-1-8>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 및 교육열

단위: 명(%)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전체	χ^2
한국어수준				
상	87(46.8)	136(31.3)	223(35.9)	13.64**
중	76(40.9)	227(52.2)	303(48.8)	
하	23(12.4)	72(16.6)	95(15.3)	
전체	186(100.0)	435(100.0)	621(100.0)	
부모교육열				
상	89(47.9)	162(37.2)	251(40.4)	10.49**
중	90(48.4)	229(52.6)	319(51.4)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전체	χ^2
하	7(3.8)	44(10.1)	51(8.2)	
전체	186(100.0)	435(100.0)	621(100.0)	

**p < 0.01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 변인 중, 한국어 수준과 교육열은 자녀가 보육시설보다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경우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적별 특성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교육열, 한국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조사된 총 20개국 중 빈도수가 높은 5개국에 국한하여 국적별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어 수준과 교육열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 출신은 '상'수준인 비율이 월등히 높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출신은 '중'인 비율이 높다. 특히, '하'인 비율이 한국어 수준의 경우,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어머니의 약 20%이상, 교육열에 있어서는 베트남은 15.5%, 필리핀은 10.5%로 나타났다.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중'인 비율이 가장 높고,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모두 '상'인 비율이 높았다.

<표 V-1-9> 외국인 모의 국적별 특성

단위: %, 명

구분	외국인 모의 국적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태국
한국어수준					
상	66.7	18.0	8.2	56.9	30.4
중	28.7	59.4	67.3	39.4	60.9
하	3.3	21.8	23.6	3.7	8.7
편부모	1.3	0.8	0.9	0.0	0.0
부모의 교육열					
상	46.7	29.3	29.1	54.1	34.8
중	44.7	59.4	54.5	43.1	65.2
하	7.3	10.5	15.5	2.8	0.0
편부모	1.3	0.8	0.9	0.0	0.0
아버지양육참여도					
상	32.2	17.4	21.8	33.7	39.1
중	41.8	56.8	55.5	42.4	47.8

하	26.0	25.0	22.7	23.9	13.0
편부모	0.0	0.8	0.0	0.0	0.0
정서적 유대관계					
상	60.0	49.6	50.9	80.7	47.8
중	32.7	46.6	38.2	15.6	47.8
하	7.3	3.8	10.9	3.7	4.3
전체	150(100.0)	133(100.0)	110(100.0)	109(100.0)	23(100.0)

외국인 아버지의 한국어 수준과 교육열,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어 수준은 미국인 아버지의 경우 '하'인 비율이 높았으며, 일본, 몽골, 중국 출신 아버지들은 '중'인 비율이 더 높았다. 자녀교육열과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몽골 아버지만 '중'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상'인 비율이 높았다.

<표 V-1-10> 외국인 부의 국적별 특징

단위: %, 명

구 분	외국인 부의 국적			
	미국	일본	몽골	중국
한국어수준				
상	13.6	38.1	33.3	45.5
중	31.8	52.4	50.0	45.5
하	50.0	9.5	16.7	0.0
편부모	4.5	0.0	0.0	9.1
부모의 교육열				
상	54.5	57.1	25.0	45.5
중	31.8	42.9	75.0	45.5
하	13.6	0.0	0.0	9.1
편부모	0.0	0.0	0.0	0.0
정서적 유대관계				
상	68.2	81.0	33.3	45.5
중	18.2	19.0	66.7	36.4
하	13.6	0.0	0.0	18.2
전체	22(100.0)	21(100.0)	12(100.0)	11(100.0)

다. 다문화가정 부모배경과 영유아의 발달수준의 관계

1) 전반적인 관련성

다문화가정 부모배경변인들과 영유아의 발달수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편부모 가정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 있어서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즉,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과 교육열이 높고,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으며,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가 강할수록 4개 발달영역(신체발육, 듣기 및 말하기 발달, 또래관계)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높은 발달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과 영유아의 발달수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원래 자료가 아닌 순위형 자료로 바꾼 뒤 구하는 비모수적 상관분석의 하나인 Kendall의 tau_b를 구한 결과, 부모의 한국어 수준의 '상', '중', '하' 순위 영유아의 신체, 듣기, 말하기 발달 및 또래관계의 수준이 각각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p < .01$).

<표 V-1-11>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과 영유아의 발달수준

단위: 명(%)

발달수준	외국인부모의 한국어 수준				Kendall's tau_b
	상	중	하	전체	
신체 발달					
상	141(63.2)	149(49.2)	49(51.6)	339(54.6)	0.108**
중	73(32.7)	129(42.6)	39(41.1)	241(38.8)	
하	9(4.4)	25(8.3)	7(7.4)	41(6.6)	
전체	223(100.0)	303(100.0)	95(100.0)	621(100.0)	
듣기 발달					
상	173(77.6)	171(56.4)	44(46.3)	388(62.5)	0.241**
중	47(21.1)	107(35.3)	36(37.9)	190(30.6)	
하	3(1.4)	25(8.3)	15(15.8)	43(6.9)	
전체	223(100.0)	303(100.0)	95(100.0)	621(100.0)	
말하기 발달					
상	156(70.0)	146(48.2)	36(37.9)	338(54.4)	0.239**
중	56(25.1)	115(40.0)	37(40.0)	208(33.5)	

하	11(4.9)	42(13.9)	22(23.2)	75(12.1)	
전체	223(100.0)	303(100.0)	95(100.0)	621(100.0)	
또래 관계					
상	147(65.9)	123(40.6)	38(40.0)	308(49.6)	0.226**
중	72(32.3)	156(51.5)	45(47.4)	273(44.0)	
하	4(1.8)	24(7.9)	12(12.6)	40(6.4)	
전체	223(100.0)	303(100.0)	95(100.0)	621(100.0)	

**p < 0.01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의 교육열과 영유아의 발달수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부모의 교육열의 '상', '중', '하' 순위와 영유아의 신체, 듣기, 말하기 발달 및 또래관계에 순위가 각각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p<.01).

<표 V-1-12>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의 교육열과 영유아의 발달수준

단위: 명(%)

발달수준	외국인부모의 교육열				Kendall's tau_b
	상	중	하	전체	
신체 발달					
상	164(65.4)	157(49.2)	18(35.3)	339(54.6)	0.198**
중	79(31.5)	139(43.6)	23(45.1)	241(38.8)	
하	8(3.2)	23 (7.2)	10(19.6)	41(6.6)	
전체	251(100.0)	319(100.0)	51(100.0)	621(100.0)	
듣기 발달					
상	184(73.3)	179(56.1)	25(49.0)	388(62.5)	0.184**
중	57(22.7)	115(36.1)	189(35.3)	190(30.6)	
하	10(4.0)	25(7.8)	8(15.7)	43(6.9)	
전체	251(100.0)	319(100.0)	51(100.0)	621(100.0)	
말하기 발달					
상	155(61.8)	165(51.7)	18(35.3)	338(54.4)	0.138**
중	72(28.7)	116(36.4)	20(39.2)	208(33.5)	
하	24(9.6)	38(11.9)	13(25.5)	75(12.1)	
전체	251(100.0)	319(100.0)	51(100.0)	621(100.0)	
또래 관계					
상	163(64.9)	129(40.4)	16(31.4)	308(49.6)	0.240**
중	77(30.7)	168(52.7)	28(54.9)	273(44.0)	

하	11(4.4)	22(6.9)	7(13.7)	40(6.4)
전체	251(100.0)	319(100.0)	51(100.0)	6219(100.0)

**p < 0.01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영유아의 발달수준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상', '중', '하' 순위와 영유아의 신체(p<.05), 듣기, 말하기 발달 및 또래관계 순위가 각각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p<.01).

<표 V-1-13>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영유아의 발달수준

단위: 명(%)

발달수준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Kendall's tau_b
	상	중	하	전체	
신체 발달					
상	89(63.1)	131(49.8)	66(51.2)	286(53.7)	0.100*
중	48(34.0)	112(42.6)	48(37.2)	208(39.0)	
하	4(2.8)	20(7.6)	15(11.6)	39(7.3)	
전체	141(100.0)	263(100.0)	129(100.0)	533(100.0)	
듣기 발달					
상	109(77.3)	150(57.0)	79(61.2)	338(63.4)	0.120**
중	29(20.6)	91(34.6)	40(31.0)	160(30.0)	
하	3(2.1)	22(8.4)	10(7.8)	35(6.6)	
전체	141(100.0)	263(100.0)	129(100.0)	533(100.0)	
말하기 발달					
상	100(70.9)	137(52.1)	68(52.7)	305(57.2)	0.144**
중	35(24.8)	94(35.7)	38(29.5)	167(31.3)	
하	6(4.3)	32(12.2)	23(17.8)	61(11.4)	
전체	141(100.0)	263(100.0)	129(100.0)	533(100.0)	
또래 관계					
상	95(67.4)	119(45.3)	62(48.1)	276(51.8)	0.143**
중	43(30.5)	123(46.8)	55(42.6)	221(41.5)	
하	3(2.1)	21(8.0)	12(9.3)	36(6.8)	
전체	141(100.0)	263(100.0)	129(100.0)	533(100.0)	

*p < 0.05, **p < 0.01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관계와 영유아의 발달수준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상', '중', '하' 순위와 영유아의 신

체 듣기, 말하기 발달 및 또래관계 순위가 각각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p < .01$).

<표 V-1-14>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관계와 영유아의 발달수준

단위: 명(%)

발달수준	부모-자녀의 정서적 유대관계				Kendall's tau_b
	상	중	하	전체	
신체 발달					
상	231(62.8)	90(41.7)	18(48.7)	339(54.6)	0.199**
중	125(34.0)	102(47.2)	14(37.8)	241(38.8)	
하	12(3.3)	24(11.1)	5(13.5)	41(6.6)	
전체	368(100.0)	216(100.0)	37(100.0)	621(100.0)	
듣기 발달					
상	271(73.6)	97(44.9)	20(54.1)	388(62.5)	0.265**
중	83(22.6)	99(45.8)	8(21.6)	190(30.6)	
하	14(3.8)	20(9.3)	9(24.3)	43(6.9)	
전체	368(100.0)	216(100.0)	37(100.0)	621(100.0)	
말하기 발달					
상	234(63.6)	90(41.7)	14(37.8)	338(54.4)	0.222**
중	104(28.3)	93(43.1)	11(29.7)	208(33.5)	
하	30(8.2)	33(15.3)	12(32.4)	75(12.1)	
전체	368(100.0)	216(100.0)	37(100.0)	621(100.0)	
또래 관계					
상	226(61.4)	74(34.3)	8(21.6)	308(49.6)	0.293**
중	130(35.3)	122(56.5)	21(56.8)	273(44.0)	
하	12(3.3)	20(9.3)	8(21.6)	40(6.4)	
전체	368(100.0)	216(100.0)	37(100.0)	621(100.0)	

** $p < 0.01$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의 취업형태에 따른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아동발달이 '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아동의 말하기 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취업모 아동의 말하기 수준이 '하'인 비중이 비취업모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1-15>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동의 말하기 발달수준

단위: 명(%)

	아동의 말하기 발달			전체	χ^2
	상	중	하		
전체	337(54.4)	208(33.6)	75(12.1)	620(100.0)	6.48*
취업	144(58.1)	69(27.8)	35(14.2)	248(100.0)	
비취업	193(51.9)	139(37.4)	40(10.8)	372(100.0)	

*p < 0.05

편부모 여부와 아동의 발달수준은 편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발달이 '상'인 비율이 높았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부모 국적별 관계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과 아동의 발달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에 상관없이 신체발육, 듣기, 말하기는 '상'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래관계에서는 중국, 일본, 태국 출신 어머니 가정의 아동은 '상'인 비율이 높은 반면, 필리핀, 베트남 출신은 '중'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1-16> 외국인 모의 국적별 아동특징

단위: %, 명

	외국인 모의 국적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태국
신체발육					
상	60.0	45.9	54.5	56.9	60.9
중	35.3	41.4	37.3	35.8	39.1
하	4.7	12.8	8.2	7.3	0.0
듣기					
상	72.0	47.4	60.9	71.6	65.2
중	24.0	39.1	33.6	26.6	30.4
하	4.0	13.5	5.5	1.8	4.3
말하기					
상	62.7	41.4	51.8	61.5	69.6
중	28.7	38.3	37.3	30.3	21.7
하	8.7	20.3	10.9	8.3	8.7

또래관계					
상	55.3	45.1	42.7	56.9	56.5
중	39.3	45.9	47.3	42.2	34.8
하	5.3	9.0	10.0	0.9	8.7
전체	150(100.0)	133(100.0)	110(100.0)	109(100.0)	23(100.0)

외국인 아버지의 국적과 아동의 발달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발육과 아동의 한국어 듣기 실력은 몽골 아버지 가정에서는 '중'인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나머지 가정에서는 모두 '상'인 비율이 높았다. 자녀의 한국어 말하기 수준에서는 중국 아버지 가정만 '상'인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나머지 가정에서는 '중'인 비율이 더 높았다. 또래관계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중'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V-1-17>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의 국적별 아동특성

단위: %, 명

	외국인 부의 국적			
	미국	일본	몽골	중국
신체발육				
상	68.2	76.2	16.7	72.7
중	27.3	23.8	75.0	27.3
하	4.5	0.0	8.3	0.0
듣기				
상	59.1	57.1	16.7	81.8
중	22.7	42.9	75.0	18.2
하	18.2	0.0	8.3	0.0
말하기				
상	27.3	28.6	16.7	63.6
중	40.9	71.4	75.0	18.2
하	31.8	0.0	8.3	18.2
또래관계				
상	36.4	47.6	25.0	36.4
중	59.1	52.4	75.0	54.5
하	4.5	0.0	0.0	9.1
전체	22(100.0)	21(100.0)	12(100.0)	11(100.0)

2. 다문화가정 아동 수와 비용지원

가. 다문화가정 아동 수

조사 기관당 평균 3명(최소 1명, 최대 16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채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원아의 평균 8.3%를 차지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평균 2명(5.9%), 보육시설은 5명(10.7%)로 보육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이 총 원아 중 다문화 아동 비율(32.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국공립 유치원(10.7%) 순이다(<부표 7>참조). 기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V-2-1> 기관이용 다문화가정 아동 수 및 비율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비율	표준편차	t
전체	1	16	3.4	8.3	2.68	
유치원	1	8	1.7	5.9	1.25	-8.18***
보육시설	1	24	5.0	10.7	4.10	

단위: 명

*** $p < 0.001$

나. 비용지원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원받고 있는 교육비·보육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지원을 받는 비율은 83%로,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17.0%의 아동은 비용지원을 전혀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이 없는 비율은 유치원이(25.0%) 보육시설(13.6%)보다 높고, 설립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3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용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 비율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34.7%)가 4배 이상으로 높으며, 여타지역에 비하여 수도권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비용지원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지원의 형태는 만 3,4세 차등교육비·보육료 지원(28.7%)이며, 그 다음이 만5세 무상 교육비·보육료 지원(19.0%), 영아기본보조금 지원(17.4%), 농업인자녀양육비 지원(7.7%), 두 자녀 이상 지원(2.2%), 세 자녀 이상 지원(1.7%)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유치원에서는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과 만3,4

세 차등교육비 지원이, 보육시설의 경우는 만3,4세 차등보육료 지원과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경우, 농업인자녀양육비 지원 수혜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중소도시의 경우는 만3,4세 차등교육비·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2>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비·보육료 지원

구분	아동수	만3,4세 차등	만5세 무상	영아 기본 보조	2자녀 이상 지원	3자녀 이상 지원	농업인 자녀 양육비	기타	단위 명, %
									지원받지 않음
전체	648	28.7	19.0	17.4	2.2	1.7	7.7	0.2	17.0
기관유형별									
유치원	192	28.2	34.3	1.6	3.1	0.0	7.8	0.0	25.0
보육시설	456	32.1	15.4	24.1	1.8	2.0	7.7	3.3	13.6
설립유형별									
국공립어린이집	104	35.4	13.8	12.5	5.8	0.0	18.3	3.6	10.6
민간어린이집	139	36.3	19.8	29.5	0.0	3.6	0.0	5.0	5.8
법인어린이집	159	37.4	13.5	22.6	0.6	0.6	6.9	2.7	15.7
가정어린이집	54	13.0	0.0	36.9	1.9	5.6	9.3	0.0	33.3
국공립유치원	87	25.9	30.4	1.1	3.4	0.0	12.6	3.6	23.0
사립유치원	105	20.4	32.4	1.9	2.9	0.0	3.8	0.0	26.7
지역규모별									
대도시	213	21.6	21.6	15.0	0.0	1.4	0.0	5.7	34.7
중소도시	95	39.5	14.2	17.9	6.3	5.3	1.1	7.3	8.4
읍/면지역	340	34.4	26.2	10.3	2.4	0.9	14.4	3.3	8.2
지역별									
수도권	166	21.7	16.3	13.9	1.8	3.6	0.6	5.4	36.7
충청권	122	25.4	26.2	19.7	2.5	0.8	11.5	4.9	9.0
호남권	142	40.1	19.7	19.1	4.2	1.4	3.5	5.0	7.0
영남권	173	30.9	22.9	13.9	0.0	1.2	15.6	0.5	15.0
강원/제주	45	31.1	31.1	22.3	4.4	0.0	6.7	0.0	4.4
아동연령별									
1세	89	0.0	0.0	77.5	0.0	3.4	11.2	4.5	3.4
2세	107	0.0	0.0	70.1	2.8	0.9	13.1	3.8	9.3
3세	127	64.4	0.0	0.0	3.1	3.4	6.7	4.9	16.5
4세	147	61.9	0.0	0.0	1.4	0.7	8.8	4.1	23.1
5세	137	0.0	69.4	0.0	3.8	1.5	7.1	0.7	17.5
6세	31	0.0	48.4	0.0	3.2	3.2	6.5	0.0	38.7
7세	9	0.0	22.2	0.0	11.1	0.0	11.1	0.0	55.6

3.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가. 교사 대 아동 비율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재원하는 기관의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유치원은 평균 19명, 보육시설은 11명으로, 유치원이 확연히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표 V-3-1> 교사 1인당 담당 다문화가정 아동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치원	113	18.90	7.69	8.85***
보육시설	103	10.78	5.50	

단위: 명

**p < 0.001

나. 다문화 교실환경

교실에 비치된 다문화 영유아 부모님 나라에 관련된 동화책 및 아동용 도서가 '거의 없다'는 비율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5권 미만'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에서는 '거의 없다'인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에서는 '5권미만' 과 '거의 없다'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기관유형별로 도서 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01).

<표 V-3-2> 교실에 비치된 다문화관련 아동용 도서 수

	거의 없음	5권 미만	6권~10권 미만	10권 이상	전체	χ ²
유치원	43(38.1)	46(40.7)	10(8.9)	14(12.4)	113(100.0)	12.77**
보육시설	57(55.3)	39(37.9)	5(4.9)	2(1.9)	103(100.0)	
전체	100(46.3)	85(39.4)	15(6.9)	16(7.4)	216(100.0)	

단위: 기관(%)

**p < 0.01

교실 또는 복도 등에 다문화 영유아 가족사진이 전시·부착되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활동 주제에 따라 이따금씩 전시' 하는 경우가 59.3%로 절반이상이며, '거의 전시한 적이 없다'도 32.9%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항상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이 높지만 '거의 전시한 적이 없는 경우는 유치원이 보육시설보다 높게 조사되었다($p < .01$).

<표 V-3-3> 교실/복도에 다문화가정의 가족사진 부착 여부

단위: 기관(%)

	항상 부착되어 있음	활동 주제에 따라 이따금씩 전시	거의 전시한 적이 없음	전체	χ^2
유치원	3(2.7)	67(59.3)	43(38.1)	113(100.0)	10.13**
보육시설	14(13.6)	61(59.2)	28(27.2)	103(100.0)	
전체	17(7.9)	128(59.3)	71(32.9)	216(100.0)	

** $p < 0.01$

교실에 다른 나라의 악기, 옷, 물건, 세계지도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다'는 비율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로 비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31.0%이며, 반면 다양하고 풍부하게 비치하고 있는 기관은 6.9%에 불과하였다. 기관유형별로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다'는 비율은 유치원이 보육시설보다 높은 반면, '별로 비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경우는 보육시설이 유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1$). 설립유형별에서는 다른 기관들은 모두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별로 비치되어 있지 않다'인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부표 5> 참조)

<표 V-3-4> 교실 내 다른 나라 악기, 옷, 물건 비치 정도

단위: 기관(%)

	매우 다양하며 풍부함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음	별로 비치되어 있지 않음	전체	χ^2
유치원	11(9.7)	77(68.1)	25(22.1)	113(100.0)	10.13**
보육시설	4(3.9)	57(55.3)	42(40.8)	103(100.0)	
전체	15(6.9)	134(62.0)	67(31.0)	216(100.0)	

** $p < 0.01$

다. 급간식에 다문화가정의 음식문화 및 기호 반영 정도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가정의 음식문화 및 음식 선호도를 고려·반영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못한다가 65.7%, 약간 고려하는 경우가 30.1%로,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식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음식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81.6%로 다른 기관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으며, 설립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5$).

<표 V-3-5> 다문화가정 영유아 급식에 음식문화 및 선호도 반영 정도

단위: 기관(%)

	상당 수준 고려함	약간 고려함	거의 고려하지 못함	전체	χ^2
국공립어린이집	2(9.1)	6(22.3)	14(63.6)	22(100.0)	20.08*
민간 어린이집	0(0.0)	15(40.5)	22(59.5)	37(100.0)	
법인 어린이집	1(2.9)	10(29.4)	23(67.7)	34(100.0)	
가정 어린이집	0(0.0)	7(70.0)	3(30.0)	10(100.0)	
국공립 유치원	3(6.12)	6(12.2)	40(81.6)	49(100.0)	
사립 유치원	3(4.7)	21(32.8)	40(62.5)	64(100.0)	
전체	9(4.2)	65(30.1)	142(65.7)	216(100.0)	

* $p < 0.05$

4. 다문화 프로그램 및 활동

가. 교육·보육 계획에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요구 반영 정도

교육·보육 계획 수립시 유아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는 약간 고려하는 경우가 56.0%로 상당한 비율의 교사들이 유아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는 반면, 거의 40%에 가까운 교사들이 거의 고려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V-4-1> 교육·보육계획 수립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요구 반영 정도

단위: 기관, %

구분	빈도	비율
상당 수준 고려함	15	6.9
약간 고려함	121	56.0
거의 고려하지 못함	80	37.0
전체	216	100.0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요구를 교육계획에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일반가정 영유아와 별 차이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87.5%로 나타나,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일반아동과 별 차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 증가가 비교적 최근 현상이며, 학령기 아동과 달리 발달 및 학습 격차나 적응문제가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영유아이므로 교사가 아직 다문화가정 아동의 요구에 충분히 민감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는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별 문제없이 기관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4-2>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기관, %

구분	빈도	비율
일반아동과 별 차이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70	87.5
다문화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6	7.5
별도로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3	3.8
기타(만1세아여서 어려움)	1	1.3
전체	80	100.0

나. 다문화교육 실시 정도

교육·보육 활동시 다문화 영유아의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 정도에 대하여 가끔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3.9%,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30.1%로 조사되었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가끔 제공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았으며, 제공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났다($p < .05$).

<표 V-4-3>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 소개 및 관련활동 제공 정도

단위: 기관, %

	자주 제공	가끔 제공	제공한 적이 없음	전체	χ^2
국공립 어린이집	2(9.1)	17(77.3)	3(13.6)	22(100.0)	18.37*
민간 어린이집	1(2.7)	19(51.4)	17(46.0)	37(100.0)	
법인 어린이집	3(8.8)	17(50.0)	14(41.2)	34(100.0)	
가정 어린이집	0(0.0)	5(50.0)	5(50.0)	10(100.0)	
국공립 유치원	5(10.2)	35(71.4)	9(8.4)	49(100.0)	
사립 유치원	2(3.1)	45(70.3)	17(26.6)	64(100.0)	
전체	13(6.0)	138(63.9)	65(30.1)	216(100.0)	

*p < 0.05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아닌 일반가정 영유아들에게 다문화 및 다문화친구에 대하여 교육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가끔 교육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7%, 별로 교육하지 않는 경우가 33.8%로 조사되었으며, 자주 교육한다는 경우는 5.6%에 불과하여 다문화교육이 상당히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이 보육시설보다 다문화교육을 자주 혹은 가끔 실시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아동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 대상으로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5%로 높은 반면, 유아에서는 가끔 교육하고 있는 경우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미한 차이이다.

<표 V-4-4> 일반가정 영유아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정도

단위: 기관(%)

	자주 교육함	가끔 교육함	별로 교육하지 않음	전체	χ^2
기관유형별					11.55**
유치원	9(8.0)	77(68.1)	27(23.9)	113(100.0)	
보육시설	3(2.9)	54(52.4)	46(44.7)	103(100.0)	
전체	12(5.6)	131(60.7)	73(33.8)	216(100.0)	
연령					43.21**
영아	2(1.0)	93(47.5)	101(51.5)	196(100.0)	
유아	30(7.3)	274(66.7)	107(26.0)	411(100.0)	
전체	32(5.3)	367(60.5)	208(34.3)	607(100.0)	

**p < 0.01

다. 다문화가정 영유아 중점 지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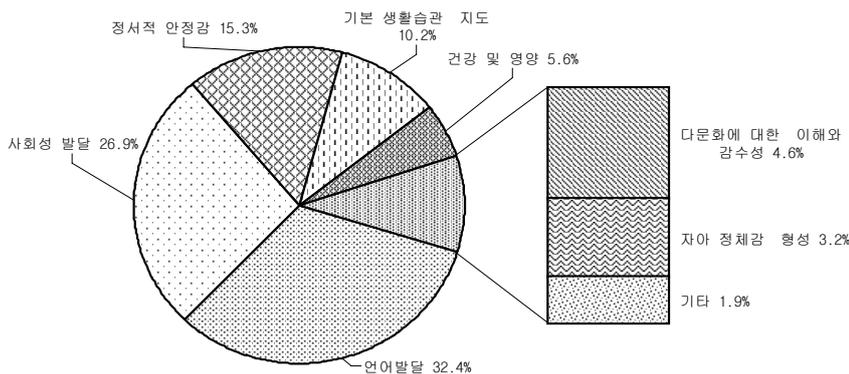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지도할 때 가장 비중을 두는 영역을 조사한 결과, 언어발달이 32.4%, 사회성 발달이 26.9%, 정서적 안정감이 15.3%, 기본 생활습관 지도가 10.2%로 응답되어, 교사들이 언어발달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에서는 사회성 발달에 비중(36.3%)을 가장 많이 두는 반면, 보육시설에서는 언어발달(44.7%)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4-5>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 중점 영역(복수응답)

단위: 기관, 명(%)

구분	중점 지도 영역									전체	χ ²
	건강 및 영양	언어 발달	정서적 안정감	기본 생활습관 지도	사회성 발달	자아 정체감 형성	다문화 이해 감수성	자신감 증진	다문화 이해 감수성		
기관별											
유치원	3(2.7)	24(21.2)	15(13.3)	12(10.6)	41(36.3)	6(5.3)	10(8.9)	1(0.9)	113(100.0)	n/a	
보육시설	9(8.7)	46(44.7)	18(17.5)	10(9.7)	17(16.5)	1(1.0)	0(0.0)	0(0.0)	103(100.0)		
전체	12(5.6)	70(32.4)	33(15.3)	22(10.2)	58(26.9)	7(3.2)	10(4.6)	7(3.2)	216(100.0)		
연령											
영아	20(10.5)	83(43.5)	39(20.4)	26(13.6)	18(9.4)	5(2.6)	0(0.0)	-	191(100.0)	30.15**	
유아	27(6.6)	145(35.5)	68(16.6)	39(9.5)	95(23.2)	17(4.2)	18(4.4)	-	409(100.0)		
전체	47(7.8)	228(38.0)	107(17.8)	65(10.8)	113(18.8)	22(3.7)	18(3.0)	-	600(100.0)		

**p < 0.01



[그림 V-4-1]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에 비중을 두는 영역

한편, 아동연령별로 중점지도 영역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영아와 유아 모두 언어발달(각각 43.5%, 35.5%)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영역에 있어서는 영아의 경우는 정서적 안정감인 반면, 유아들은 사회성 발달로 조사되었다.

5. 다문화가정 부모의 참여 및 연계

가. 다문화가정 학부모 요구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등하원 면담이 5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화상담이 12.7%로 등하원 면담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공식적인 학부모 면담, 안내문이나 알림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V-5-1> 다문화가정 학부모 의견 수렴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등하원시 일상적인 대화	65	59.1
전화상담	15	13.6
연간1~2회 실시하는 학부모면담	10	9.1
일일알림장 및 안내문	9	8.1
설문조사	2	1.8
월1회 부모교육 및 참여수업	2	1.8
기 타 다문화가정 모임 및 자모회	3	2.7
문자메시지	1	0.9
보육도우미 또는 다른사람 통역	3	2.7
요구 수렴 통로가 별로 없음	1	0.9
전체	110	100.0

설립유형별로 다문화가정 부모님이 기관 및 교사에게 주로 요구 또는 건의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유치원에서는 또래관계 지도에 대한 요구(37.7%)가 제일 많은 반면, 보육시설에서는 한글교육에 대한 요구(31.8%)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아동연령별로는 영아(54.5%)와 유아(62.0%) 모두 한글교육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지만, 두 번째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영아의 경우는 식습관 및 영양관련 내용

(39.8%)인 반면, 유아는 또래관계지도(48.4%)에 관련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V-5-2> 부모의 요구(복수응답)

단위: 명(%)

	영역												전체	
	신체 건강	식습관 영양	한글 교육	또래 관계 지도	문화 체험	교육비 보육료 경감	등하원 차량 운행	유치원 생활 필요사항 체크	보육 시간	기본 생활 습관	학습 능력	예절		기타
설립유형														
유치원	20 (10.9)	16 (8.7)	54 (29.5)	69 (37.7)	2 (1.1)	12 (6.6)	5 (2.7)	1 (0.6)	0 (0.0)	2 (1.1)	1 (0.6)	1 (0.6)	-	183
보육시설	22 (11.5)	30 (15.6)	61 (31.8)	42 (21.9)	3 (1.6)	21 (10.9)	11 (5.7)	0 (0.0)	1 (0.6)	1 (0.6)	0 (0.0)	0 (0.0)	-	192
전체	42 (11.2)	46 (12.3)	115 (30.7)	111 (29.6)	5 (1.3)	33 (8.8)	16 (4.3)	1 (0.3)	1 (0.3)	3 (0.8)	1 (0.3)	1 (0.3)	-	375
연령별														
영아	42 (21.4)	78 (39.8)	107 (54.6)	76 (38.8)	12 (6.1)	32 (16.3)	18 (9.2)	0 (0.0)	0 (0.0)	2 (1.0)	0 (0.0)	0 (0.0)	0 (0.0)	367
유아	72 (17.5)	63 (15.3)	255 (62.0)	199 (48.4)	11 (2.7)	79 (19.2)	28 (6.8)	3 (0.7)	2 (0.5)	9 (2.2)	1 (0.2)	1 (0.2)	3 (0.3)	723
전체	114 (10.5)	141 (12.9)	362 (33.2)	275 (25.2)	23 (2.1)	111 (10.2)	46 (4.2)	3 (0.3)	2 (0.2)	11 (1.0)	1 (0.1)	1 (0.1)	3 (0.3)	1090

나. 교사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관계 및 교류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기관 및 교사가 아동의 발달관련 및 가정일과 등에 대하여 정보를 구하는 정도는 월 1~2회가 31.9%, 주 1~2회가 31%로 나타나, 적어도 월 1~2회 이상은 부모에게 정도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5-3>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정보 구하는 정도

단위: 기관, %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	3개월에 1-2회	연간 1-2회	거의 구하지 않음	χ^2
유치원	2(1.8)	22(19.5)	41(36.3)	19(16.8)	19(16.8)	10(8.9)	45.96***
보육시설	13(12.6)	45(43.7)	28(27.2)	2(1.9)	2(1.9)	13(12.6)	
전체	15(6.9)	67(31.0)	69(31.9)	21(9.7)	21(9.7)	23(10.65)	

**p < 0.001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월 1-2회(36.3%)가 가장 비율이 높은 반면, 보육 시설은 주 1-2회(43.7%)가 가장 많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V-5-3 참조).

교사가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 종류는 육아정보가 31.5%, 교육비/보육료 지원 관련이 28.1%, 일상생활정보가 19.2%, 외국인 부모대상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가 14.6%로, 육아정보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4> 다문화부모에게 제공한 정보의 종류

단위: 기관, %

구 분	빈도	비율
육아정보	110	31.5
교육비/ 보육료 지원관련	98	28.1
일상생활 정보	67	19.2
외국인 부모대상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51	14.6
제공한 적이 거의 없음	18	5.2
귀화 신청서류 및 절차	2	0.6
한국음식 관련 정보	2	0.6
부모 교육에 대한 자료	1	0.3
전체	349	100.0

다문화가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한국인과 별 차이 없이 잘 지내고 있어 특별히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가정 부모가 바빠기 때문과 교사 자신의 다문화관련 정보가 부족해서가 각각 27.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V-5-5> 다문화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

단위: 기관, %

구 분	빈도	비율
필요성이 없어서 (한국인과 차이를 못 느낌)	6	33.3
다문화가정 부모가 바빠서 만나지 못하므로	5	27.8
교사 자신의 다문화관련 정보가 부족하므로	5	27.8
다문화가정 부모님의 자존심을 저해 우려하여	1	5.6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않아서	1	5.6
전체	18	100.0

외국인 부모를 기관에 자원봉사자로 초청하여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2%, 없는 경우가 77.8%로 파악되었다. 교사의 다문화지도경력별로 다문화가정 부모를 자원봉사자로 초청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초청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 중 경력이 2년-3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초청을 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88.9%로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5-6> 다문화가정 아동지도 경력별 다문화가정 부모 초빙 자원봉사 활용 경험

단위: 명, %

교사의 다문화아동지도 경력	있음	없음	전체
1년 미만	9(11.1)	72(88.9)	81(100.0)
1년~ 2년 미만	10(22.2)	35(77.8)	45(100.0)
2년~ 3년 미만	10(26.3)	28(73.7)	38(100.0)
3년~ 4년 미만	6(21.4)	22(78.6)	28(100.0)
4년 이상	11(50.0)	11(50.0)	22(100.0)
전체	46(21.5)	168(78.5)	214(100.0)

교육·보육활동시 다문화가정 부모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관련 활동을 제공한 정도와 외국인 부모를 자원인력으로 활용한 경험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특히 자원인력으로 활용한 경험은 거의 교류가 없는 경우보다 다문화가정 부모나라의 문화나 활동을 활발하게 소개하거나 제공한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5-7> 다문화가정 부모나라 소개와 외국인부모 자원인력 활용정도 관계

단위: 명(%)

다문화가정 부모 나라의 문화소개 및 관련활동 제공 정도	자원인력으로 활용 경험 여부			Kendall's tau_b
	있음	없음	전체	
활발한 편	8(61.5)	5(38.5)	13(100.0)	0.173*
보통	30(21.7)	108(78.3)	138(100.0)	
거의 교류 없음	10(15.4)	55(84.6)	65(100.0)	
전체	48(22.2)	168(77.8)	216(100.0)	

* $p < 0.05$

우리말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하여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부모 또는 조부모를 통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5%, 등하원시 직접 외국인 부모와 만나서가 37.0%, 개별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등의 글을 통하여 의사소통한다는 응답이 10.2%로 조사되었다.

<표 V-5-8>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

단위: 기관, %

구 분	빈도	%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부모 및 조부모를 통해서	94	43.5
등/하원시 직접 외국인 부모와 만나서	80	37.0
개별 가정통 신문이나 알림장을 통해서	22	10.2
다른 다문화가정 부모를 통해서	13	6.0
의사소통이 가능한 주위분을 통해서	2	0.9
의사소통에 문제 없음	2	0.9
휴대전화 문자로	1	0.5
개별면담을 통한 반복 설명	1	0.5
보육 도우미를 통해서	1	0.5
전체	216	100.0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지도 및 양육방식에 있어서 다문화가정과의 문화적 차이를 느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1.5%,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5%로 조사되어, 아직 교사들이 민감하게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관유형별로는 보육시설에서 문화차이를 경험한 비율이 유치원보다 높았으며 ($p < .05$), 설립유형별로는 특히 가정 어린이집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문화차이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9> 다문화가정과 양육방식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사 경험

단위: 기관(%)

구 분	있음	없음	전체	χ^2
기관유형별				
유치원	14(12.4)	99(87.6)	113(100.0)	5.90*
보육시설	26(25.2)	77(74.8)	103(100.0)	
설립유형별				
국공립어린이집	7(31.8)	15(68.2)	22(100.0)	12.77*
민간어린이집	11(29.7)	26(70.3)	37(100.0)	
법인어린이집	4(11.8)	30(88.2)	34(100.0)	
가정어린이집	4(40.0)	6(60.0)	10(100.0)	
국공립유치원	7(14.3)	42(85.7)	49(100.0)	
사립유치원	7(10.9)	57(89.1)	64(100.0)	
전체	40(18.5)	176(81.5)	216(100.0)	

* $p < 0.05$

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교류

원 행사 또는 부모참여 교육 시 일반가정과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교류하는 정도는 활발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1%, 보통인 경우가 52.3%, 거의 교류가 없는 경우가 24.5%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설립유형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류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강원·제주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반가정-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류정도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타 지역에 비해 교류가 거의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5-10> 지역별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부모간의 교류정도

단위: 기관, %

	활발한 편	보통	거의 교류가 없음	전체	χ^2
수도권	9(16.7)	25(46.3)	20(37.0)	54(100.0)	19.52*
충청권	9(22.5)	17(42.5)	14(35.0)	40(100.0)	
호남권	12(29.3)	27(65.9)	2(4.9)	41(100.0)	
영남권	13(20.6)	37(58.7)	13(20.6)	63(100.0)	
강원/제주	7(38.9)	7(38.9)	4(22.2)	18(100.0)	
전체	50(23.2)	113(52.3)	53(24.5)	216(100.0)	

*p < 0.05

일반가정 부모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상호 교류 및 도움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거나 안내문을 보낸 경우는 21.0%,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가 79.0%로 아직 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의 교류를 위한 실천은 별로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사의 다문화가정 아동 지도 경력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안내문을 제공한 경우가 40.9%로 경력이 적은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5-11> 다문화지도경력별 일반가정 부모에게 다문화가정관련 안내문 제공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전체	χ^2
1년 미만	18(22.2)	63(77.8)	81(100.0)	10.39*
1년~ 2년 미만	6(13.3)	39(86.7)	45(100.0)	

2년~ 3년 미만	4(10.5)	34(89.5)	38(100.0)
3년~ 4년 미만	8(28.6)	20(71.4)	28(100.0)
4년 이상	9(40.9)	13(59.1)	22(100.0)
전체	45(21.0)	169(79.0)	214(100.0)

p < 0.05

일반가정 부모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안내문을 보낸 경험과 일반가정 부모와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교류 정도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부모들의 교류가 활발한 정도는 기관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안내문을 보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많았다.

<표 V-5-12> 일반가정 부모에게 다문화가정 안내문 제공 여부와 일반가정-다문화 가정 부모들간의 교류 정도

단위: 명(%)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부모들간의 교류정도	구분	일반가정 부모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설명/안내문을 보낸 경험여부			Kendall's tau_b
		있음	없음	전체	
	활발한 편	16(32.0)	34(68.0)	50(100.0)	0.151*
	보통	22(19.5)	91(80.5)	113(100.0)	
	거의 교류 없음	7(13.2)	46(86.8)	53(100.0)	
	전체	45(20.8)	171(79.2)	216(100.0)	

p < 0.05

6. 교사 인식 및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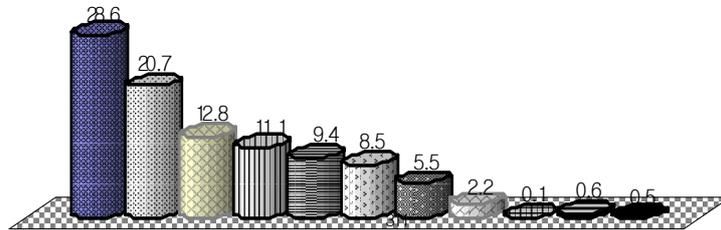
가. 다문화가정 아동 지도시 어려움점

교사들이 다문화 영유아를 지도할 때 어려운 점은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연계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점이였다. 아동연령별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도 영유아 모두 부모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였다.

<표 V-6-1> 아동연령별 다문화 영유아 지도의 어려운 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영아	유아	전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도자료의 부족	37(18.9)	109(25.0)	1146(13.5)
다문화교육에 관한 교사 지식이나 이해 부족	83(42.4)	142(32.2)	225(20.7)
특정 민족이나 인종, 문화에 대한 교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10(5.1)	50(12.4)	60(5.5)
다문화 영유아 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	29(14.8)	92(22.8)	121(11.1)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연계 부족	121(61.7)	190(47.2)	311(28.6)
기관장이나 동료 교사들의 지지체계 부족	6(3.1)	18(4.5)	24(2.2)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부족	27(13.8)	65(16.2)	92(8.5)
다문화 영유아 지도에 대한 교사교육의 부족	28(14.3)	74(18.4)	102(9.4)
다문화 부모의 육아상식 부족	5(2.6)	0(0.0)	5(0.5)
전체	346	741	1087



- | | |
|----------------------------------|-----------------------------|
|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연계 부족 | 다문화 교육에 관한 교사의 지식이나 이해 부족 |
|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도자료의 부족 | 다문화 영유아 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 |
| 다문화 영유아 지도에 대한 교사교육의 부족 |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부족 |
| 특정 민족이나 인종, 문화에 대한 교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 기관장이나 동료 교사들의 지지체계 부족 |
| 다문화 부모의 교육에 대한 적극성 부족 | 다문화 자료의 부족 |
| 다문화 부모의 육아상식 부족 | |

[그림 V-6-1] 다문화 영유아 지도의 어려운 점(복수응답)

나. 교사가 다문화관련 지식을 얻는 경로 및 연수경험

교사가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와 관련된 지식을 주로 얻는 경로는 인터넷이 27.9%, 다문화가정 부모가 22.1%, 교사연수 15.7%, 서적은 14.6%, 신문 및 방송매체가 11.3%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유치원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거나(31.0%) 교사연수(19.3%)를 통해 얻는 비율이 높은 반면, 보육시설은 다문화가정 부모로부터 얻거나(30.3%) 인터넷으로 얻는 경우(24.2%)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V-6-2> 교사가 다문화관련 지식을 얻는 경로

단위: 명, %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전체
인터넷	61(31.0)	40(24.2)	101(27.9)
다문화가정 부모	30(15.2)	50(30.3)	80(22.1)
교사연수	38(19.3)	19(11.5)	57(15.7)
서적	34(17.3)	19(11.5)	53(14.6)
신문 및 방송매체	19(9.6)	22(13.3)	41(11.3)
동료교사	13(6.6)	13(7.9)	26(7.2)
교수자료	1(0.5)	0(0.0)	1(0.3)
원내교육	1(0.5)	0(0.0)	1(0.3)
보육 정보센터	0(0.0)	1(0.6)	1(0.3)
한글 도우미	0(0.0)	1(0.6)	1(0.3)
전체	197	165	362(100.0)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와 관련된 교사연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5.9%로 아직 다문화가정 교사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유치원에서 교사연수 경험(32.7%)이 보육시설(14.6%)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p<.01), 설립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교사연수 경험비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91.9%로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연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부표 9>참조).

<표 V-6-3> 다문화 영유아 지도에 관한 교사연수 경험 여부

단위: 명, %

	없음	있음	전체	χ^2
유치원	76(67.3)	37(32.7)	113(100.0)	9.74**
보육시설	88(85.4)	15(14.6)	103(100.0)	
전체	164(75.9)	52(24.1)	216(100.0)	

*p < 0.01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수 내용은 주로 다문화 교육의 전반적인 이해가 33.3%, 다문화 가정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 25.5%로 조사되었다.

<표 V-6-4> 교사 연수 내용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다문화 교육의 전반적인 이해	17	33.3
다문화 가정의 이해에 관한 내용	13	25.5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발달을 위한 지원사업 연수	6	7.8
다문화가정 유아 위한 언어교육	3	5.9
기타 (편견교육에 대해서)	2	3.9
다문화 가정 아동 교육	2	3.9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과 기본문화	2	3.9
집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1	2.0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구안	1	2.0
외국인과 쉽게 친해지는 방법	1	2.0
놀이 상대해주기	1	2.0
다문화 원아와 일반 원아들의 통합적 수업 지도방법	1	2.0
세계화 교육	1	2.0
전체	52	100.0

교사들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방법에 대한 교육(33.1%)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다문화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교육(24.2%)이었다. 아동연령 별로 영유아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 연수의 내용은 영아들 담당 교사들은 다문화 이론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유아들 담당 교사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방법을 희망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6-5> 필요로 하는 교사 연수 내용

단위: 명(%)

	영아	유아	전체	χ^2
다문화 이론에 대한 체계적 지식	62(31.6)	85(20.7)	147(24.2)	32.34**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방법	52(26.5)	149(36.3)	201(33.1)	
다문화적 교실환경 마련	0(0.0)	23(5.6)	23(3.8)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지도 방법	26(13.3)	76(18.5)	102(16.8)	
부모참여 및 교육 방법	51(26.0)	68(16.5)	119(19.6)	
영어교육	5(2.6)	6(1.5)	11(1.8)	
없음/ 모름/ 무응답	0(0.0)	4(1.0)	4(0.7)	
전체	196(100.0)	411(100.0)	607(100.0)	

**p < 0.01

다. 교사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교사들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아동관련 지원정책부분에서는 빈곤다문화영유를 위한 보육료·교육비 지원 내용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정책들에 대해 모르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서비스의 인지도에 대한 기관유형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표 V-6-6>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서비스 인지도(아동관련 지원)

단위: 명(%)

	유치원	보육시설	전체	χ^2
전체	113(100.0)	103(100.0)	216(100.0)	
빈곤다문화 영유아지원				10.68**
잘 알고 있음	32(28.3)	51(49.5)	83(38.4)	
조금알고 있음	53(46.9)	37(35.9)	90(41.7)	
거의 모름	28(24.8)	15(14.6)	43(19.9)	
아동양육 방문 교육 서비스				6.78*
잘 알고 있음	16(14.2)	20(19.8)	36(16.8)	
조금알고 있음	31(27.4)	40(39.6)	71(33.2)	
거의 모름	66(58.4)	41(40.6)	107(50.0)	

아동보육도우미				
파견				
잘 알고 있음	10(8.9)	17(16.7)	27(12.6)	7.38*
조금알고 있음	33(29.2)	40(39.2)	73(34.0)	
거의 모름	70(62.0)	45(44.1)	115(53.5)	
희망교육사				
파견				
잘 알고 있음	17(15.0)	12(11.8)	29(13.5)	13.04**
조금알고 있음	23(20.4)	44(43.1)	67(31.2)	
거의 모름	73(64.6)	46(45.1)	119(55.4)	

p < 0.05, **p < 0.01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 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사 인지도에서는 한글교육지원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지원, 생계비·의료비 지원, 노동부관련 일자리 알선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에서 있어서 보육시설이 유치원보다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육시설 교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6-7>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서비스 인지도(부모관련 지원)

				단위: 명(%)
	유치원	보육시설	전체	χ^2
전체	113(100.0)	103(100.0)	216(100.0)	
보건소임신/출산지원				
잘 알고 있음	9(8.0)	15(14.7)	24(11.2)	11.60**
조금알고 있음	25(22.1)	39(38.2)	64(29.8)	
거의 모름	79(69.9)	48(47.1)	127(59.1)	
한글교육지원				
잘 알고 있음	22(19.5)	37(35.9)	59(27.3)	10.76**
조금알고 있음	53(46.9)	48(46.6)	101(46.8)	
거의 모름	38(33.6)	18(17.5)	56(25.9)	
생계비/의료비 지원				
잘 알고 있음	13(11.5)	21(20.6)	34(15.8)	7.63*
조금알고 있음	40(35.4)	45(44.1)	85(39.5)	
거의 모름	60(53.1)	36(35.3)	96(44.7)	
지자체 생활정보 제공				
잘 알고 있음	12(10.6)	14(13.9)	26(12.2)	6.29*
조금알고 있음	51(45.1)	59(58.4)	110(51.4)	
거의 모름	50(44.3)	28(27.7)	78(36.5)	

노동부 관련 일자리 알선				
잘 알고 있음	9(8.0)	14(13.6)	23(10.7)	
조금알고 있음	41(36.3)	50(48.5)	91(42.1)	7.18*
거의 모름	63(55.8)	39(37.9)	102(47.2)	

*p < 0.05, **p < 0.01

교사들이 인식하는 다문화가정에 시급히 제공되어야 할 육아지원 서비스는 어머니 한글교육이 1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보육·교육비 지원(16.4%)이었다. 아동연령별로 다문화가정에 시급히 제공되어야 할 육아지원 서비스는 영아담당 교사는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37.2%)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유아들 담당 교사는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32.9%)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6-8> 다문화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해 시급한 지원 서비스(복수응답)

단위: 기관(%)

구분	영아	유아	전체
보육료/ 교육비 지원	57(29.1)	135(32.9)	192(16.4)
양질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기회 제공	30(15.3)	85(20.7)	115(9.8)
자녀 학습지도 지원	41(20.9)	91(22.1)	132(11.3)
자녀양육 상담	41(20.9)	96(23.4)	137(11.7)
필요시 아동도우미 파견	17(8.7)	41(1.0)	58(5.0)
자녀 건강검진	0(0.0)	8(2.0)	8(0.7)
어머니 한글교육	64(32.7)	132(32.1)	196(16.8)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73(37.2)	94(22.9)	167(14.3)
부모 취업교육 및 취업기회 제공	41(20.9)	56(13.6)	97(8.3)
필요한 정보 제공	23(11.7)	40(9.7)	63(5.4)
다문화 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0(0.0)	4(1.0)	4(0.3)
전체	387	782	1169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도하기 위해 시급히 제공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다문화관련 교수 활동자료 지원(35.1%), 다문화관련 교사연수(15.5%) 순이었다. 이는 영아와 유아담당 교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V-6-9> 다문화아동 지도를 위해 시급한 지원서비스(복수응답)

단위: 기관(%)

	영아	유아	전체
다문화관련 교수 활동자료 지원	98(50.0)	214(52.1)	312(35.1)
순회 통/번역 도우미를 원에 파견	23(11.7)	39(0.5)	62(4.4)
다문화 교구 및 교재 지원	56(28.6)	116(28.2)	172(13.1)
차량운행 지원	11(5.6)	28(6.8)	39(3.2)
무료 정기 건강검진 지원	3(1.5)	24(5.8)	27(2.7)
다문화 배경의 교사 임용 및 파견	19(9.7)	38(9.3)	57(4.3)
다문화 관련 교사연수 제공	56(28.6)	138(33.6)	194(15.5)
부모교육 및 참여행사 및 활동지원	65(33.2)	115(28.0)	180(13.0)
문제행동 진단 개선을 위한 심리/언어 치료사 파견	45(23.0)	78(19.0)	123(8.8)
전체	376	790	888

7. 소결

교사들이 평가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은 '중·상' 수준이었으며, 다문화가정 여아가 남아에 비해 듣기 및 말하기 발달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어수준, 교육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자녀와 유대관계와 아동의 발달수준은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자녀의 말하기 발달은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의 교사 1인당 아동수는 유치원(19명)이 보육시설(11명)보다 더 많았으며, 교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은 11-20명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기관의 다문화 아동수는 648명으로 기관당 3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 중 평균 8.3%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지원되는 교육·보육료는 지원이 없다는 비율이 전체의 17%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 형태는 만 3,4세 차등보육료 지원이었으며,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지원(0.2%)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교실내 비치된 다문화 영유아 부모님 나라 관련 서적은 거의 없는 경우가 46.3%, 그 다음은 '5권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서적이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다문화 영유아 가족사진 부착여부는 활동 주제에 따라 이따금씩 전시하는 경우가 59.3%, 교실에 다른나라 악기, 옷, 물건 비치여부는 어느정도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62.0%로 절반이상이었다. 특히 다문화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다문화가정의 음식문화 및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와 약간 고려하는 경우가

전체의 95.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보육계획 수립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요구를 약간 고려한다는 응답이 56.0%로 교사들이 유아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거의 40%의 교사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일반가정 영유아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7.5%로 압도적이었다.

기관에서 수업시간에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나 활동을 소개하거나 일반가정 영유아에게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정도는 가끔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이상이었다.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지도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영역은 언어발달(32.4%), 사회성 발달(26.9%)이었으며, 유치원에서는 사회성 발달에 비중을 많이 두는 반면, 보육시설은 언어발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아동연령 별로는 영유아 모두 언어발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영아들은 정서적 안정감이 유아들은 사회성 발달에 좀 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등하원 면담이 59.1%로 가장 높았으며, 다문화가정 학부모는 기관이나 교사들이 자녀들의 한글교육(30.7%)과 또래관계지도(29.6%)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아동이나 가정일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정도는 월 1-2회가 가장 많았으며, 교사가 부모에게 제공한 정보는 육아정보가 31.5%, 교육·보육비 지원 정보가 28.1%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5%로 나타났으며, 제공하지 않는 이유 중 1/3이상이 한국인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지도하면서 양육방식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81.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관에서 행사를 하거나 부모참여 교육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류하는 정도는 보통인 경우가 52.3%, 거의 교류가 없는 경가 24.1%, 교사들이 일반가정 부모에게 다문화가정 안내문을 제공한 경우는 21.0%로 적은 편이어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교류를 위해 좀 더 실천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일반가정에 다문화가정 안내문을 보낸 경험과 일반가정-다문화가정 교류정도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두 집단의 교류를 위해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다문화 영유아를 지도할 때 어려운 점은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연계부족과 다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점이였으며, 교사들이 다문

화 관련 지식은 주로 인터넷과 다문화가정 부모로부터 얻고 있었다.

다문화관련 교사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75.9%로 아직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연수경험이 없는 경우가 91.9%로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연수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 방법에 대한 교육과 다문화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교육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연수의 주된 내용은 다문화교육이나 가정에 대한 이해차원의 교육이 절반 이상으로 아직 기초적인 단계의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여러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아동관련 지원은 빈곤다문화영유를 위한 보육료·교육비 지원 내용만을 조금 알고 있었다. 교사들은 다문화가정에 가장 시급히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는 어머니 한글교육과 보육·교육비 지원이라는 응답하였으며,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도하기 위해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는 다문화관련 교수 활동자료와 교사연수인 순으로 나타났다.

VI.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례

이 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육아지원 사례를 크게 첫째, 정부지정 시범지원기관,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 전담보육시설⁸⁾,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함께 재원하는 일반기관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육아지원과정 및 성과,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관사례들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부지정 시범기관 사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기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3월부터 추진한 ‘다문화정책연구학교’ 시범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유치원 2개원을 선정하였다. 보육시설의 경우, 2008년 7월 서울시에서는 ‘다민족 다문화 어린이집’으로 2개원을 선정하여 보육료, 교육기자재비와 다문화 보육도우미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정 시범기관들은 한쪽 부모가 한국인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PU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SH 어린이집)과 대부분 양부모 모두 외국인인 자녀들이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관(P유치원과 SM어린이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범위에 부합하여 한쪽 부모가 한국인인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재원하는 시범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과정 및 성과를 살펴보고, 외국인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기관사례는 주요특징만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정책 연구학교(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정책연구학교로 선정된 금산지역의 초등병설 PU유치원

8) 종교재단의 지원으로 일반가정 아동이 재원하지 않고 극빈층 다문화가정 아동들만 재원하는 시설로 24시간 운영되는 특수성으로 ‘다문화전담’보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원래 설립취지는 다문화가정 아동만을 전적으로 보육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가정아동도 이용가능함.

(2007-8년도)과 인천지역의 종교법인 P유치원(2007년도)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시범 운영을 하였다. 즉, 선정된 기관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과제와 세부 활동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실시한 후 운영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연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PU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가) 현황 및 특징

PU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원아 14명, 1학급, 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다문화가정 유아는 4명으로 전체 원아 중 1/4을 초과하며, 아버지는 모두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일본,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다.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은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나) 다문화교육정책 시범연구 유치원 운영

(1)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자체조사 결과

다문화교육정책 시범연구 수행의 첫 단계로, PU유치원은 재원 유아 13명, 동일지역내의 유치원 교사 30명, 학부모 13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언어 이해력의 부족으로 또래들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며 또래들과 관계에서 적응능력 및 사회성이 부족한 편이었다. 교사들의 경우,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이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위의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첫째, 다문화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내 물리적 환경을 다문화환경으로 변화시키고자 '다문화실'을 설치하여 다문화도서, 자료를 제공하며, 언어학습을

위해 역할극,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문화교육자료를 배치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하여 동화를 활용하여 언어이해력과 대화능력 향상을 증진하며,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반아동과 함께하는 다양한 협동 활동을 제공하였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니와 함께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요리하는 활동을 마련하였다.

셋째,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사연수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교육 선진학교 방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수업 적용,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현실과 방향,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활동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넷째, 다문화교육 시범사업의 운영 취지를 알리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수업을 2회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관련 공개수업을 4회 실시하여 학부모들이 다문화교육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이주여성과 자녀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자녀교육에 필요한 언어를 선정,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였다.

여섯째 지역내 주민들의 다문화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수용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족단위로 박물관, 민속촌 등을 방문하는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 경험을 제공하였다.

<표 VI-1-1> PU 유치원의 다문화교육활동

다문화교육 여건조성을 통한 다문화교육 효과 증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적응 개선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수용도 증진	
세부 주제	활동	세부 주제	활동	세부 주제	활동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	▪ 다문화실 설치	협동 활동	▪ 협동활동을 통해 사회성 증진	가족과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활동	▪ 다양한 가족 문화 체험 방문 활동 ▪ 홈페이지, 가정 통신문에 유치원 활동 소개
다문화교육 자료 확충	▪ 다문화 놀이 활동자료 제작 ▪ 다문화도서, DVD구입	언어교육 활동	▪ 동화를 활용 하여 언어 이해력, 대화 능력 증진	우리말 교실운영	▪ ‘어머니우리말 교실’ 운영 - 자녀교육 및 일상생활 언어

다문화교육 여건조성을 통한 다문화교육 효과 증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적응 개선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수용도 증진	
교사 및 학부모 연수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 다문화주제 공개 수업(4회) 실시 ▪ 가족참여 수업 실시 	요리활동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나라 음식 만들기 통해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긍심 고취 	지역사회 연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결혼 이민 자지원 센터와 연계, 문화 체험활동 ▪ '기적의 도서관'의 책 대어 및 언어 활동 지원

(3) 운영성과

연구학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문화 활동을 경험한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관계, 언어이해력, 문화이해도의 변화를 검사하고, 학부모와 유아에게 가족·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육활동을 평가하게 하였다. 또한 유아와 학부모에게 유치원내 조성된 다문화환경을 평가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다문화교육 연수 프로그램과 연수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활동(협동활동, 언어활동, 요리활동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들과 일반가정 유아들의 또래간 갈등이 완화되었고 유아들의 언어 이해력과 문화이해도가 향상되었다. 특히 다양한 나라 음식을 만들어 보는 요리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부모와 유아들 모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육활동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유아들의 경우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다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셋째, 유치원 내 다문화환경조성 결과는 유아, 학부모, 교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유아들이 '다문화실' 가기를 좋아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역할극, 동화책 읽기 등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다문화교육연수가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들은 다문화가정과 자녀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고 유치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2) P 유치원

P 유치원은 성당 부설유치원으로 만 3, 4, 5세 원아 135명, 총 4학급, 교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외국인가정 자녀는 1명(만 5세, 남아)으로 어머니가 유럽의 몰타인 출신이다.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특징은 체험중심 교육프로그램으로 음식, 춤, 놀이 등을 통해 다른 나라 문화를 아이들이 체험해 보고, 각 나라 문화를 편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길러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활동 범위는 기본적인 유아교육과정 5개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의, 식, 주를 기본으로 하는 다문화교육활동을 유아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다. 또한 외국인자녀의 기관적응을 위해 한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학부모가 일반가정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지도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다. 그 결과, 일반가정 아동들의 인종에 대한 편견은 감소하였으며,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언어지도 결과 한국어 실력이 확연히 신장되었다. 또한 일반가정 학부모들의 학부모들의 다문화 이해도는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이전에 비해 약 30%정도 증가하는 등 이해도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나. 서울시 지정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

서울시는 보육시설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급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올해 시범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사무엘 어린이집(다문화가정 자녀 16명 채용)과 신일어린이집(다문화가정 자녀 14명 채용)을 '다문화다민족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다. SH 어린이집에는 한쪽 부모가 한국인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채용하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반면, SM 어린이집의 경우는 양쪽 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정이 대부분이며 경제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중산층 이상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서울시로부터 시범기간인 8개월(2008.7.~2009.2.) 동안 교육기자재 비용(200만원 1회 지급)과 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와 한국문화 체험교실을 진행하도록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가 5명 이상이 채용하는 어린이집 총 17기관에 포함되어, 서울시에서 파견하는 보육도우미를 지원받고 있다.

1) SH 어린이집

가) 현황 및 특징

SH 어린이집은 영등포구 신길동에 소재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 지역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교육수준도 낮은 편이다. SH 어린이집은 연령별로 5학급이 있으며 전체 원아 106명 중 다문화가정 아동은 14명이고, 총 8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부모 국적별로 살펴보면, 조선족이 8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도네시아(2명), 중국(1명), 우즈베키스탄(1명), 에콰도르(1명)로 다양하다. 다문화 프로그램 주요 목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 기초학습기회제공을 통한 또래간 학습 격차 감소, 체험활동을 통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아동의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다.

나) 시범어린이집 운영

(1) 실태 및 인식조사 실시결과

재원 다문화가정 아동 총 14명(영아 5명, 유아 9명)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기초학력 검사, 자아개념 및 정체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사 12명을 면담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학부모 7명, 현재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내 건강가정 지원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또래에 비해 기초학력이 부진하며,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억양이 강하며, 또래 관계가 다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정 아동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은 많은 편이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교사들은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다문화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 문제가 있으며, 아동양육이나 요리와 관련된 한국문화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다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SH어린이집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놀이자료와 도서를 배치함으로써 다문화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면담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을 2곳 선정하여 주 1회 방문하여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방법 습득을 위한 ‘모자놀이’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와 상호작용을 증진시켰다. 또한 어머니들을 초청해 다양한 나라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자녀들에게 간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요리활동안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서는 다문화보육도우미 교사와 함께 주 5회 기초학습 능력 증진을 위한 한글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또래들과 협동활동 놀이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인 어머니를 초청해 중국어로 동화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수업 적용, 다문화교육 이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현실과 교육방향에 대한 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초청하여 교사대상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요구와 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다섯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과 자녀의 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게시판이나 알림장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에서 실시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소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다문화다민족 한마당 행사에 학부모를 초청하여 학부모들이 다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섯째, 가족과 함께 문화유산을 방문하거나 지역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 연계를 지원해 주었다.

SH어린이집은 시범사업 종료 후에 이상의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2) SM 어린이집

SM 어린이집은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종교법인시설로, 인근에 주한대사관들이 위치해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중상층 이상으로 부모들의 학력수준도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 4학급이 있으며, 교사는 총 5명이다.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은 전체 52명 중 16명으로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국적은 북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권으로 매우 다양하며, 이중 이중국적을 가진 유아가 7명 있다.

특히 SM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양쪽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영어, 한국어 등 여러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나,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동안 문화적,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SM어린이집은 이 아동들에게 언어 및 학습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일반가정 아동과 함께 외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나라의 교육현장의 모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담당교사들은 다문화 이해와 업무에 필요한 언어습득을 위해 일과이후의 시간에 원어민 교사와 개인교습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6월부터 파견된 다문화 보육도우미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교사, 유아들이 서로 잘 이해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표 VI-1-2> 다문화 교육 세부 목표 및 활동내용

세부목표	다문화다민족 어린이집 운영체계 마련	외국인 유아 및 학부모의 적응을 위한 지원	학부모 자원과 지역사회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유아를 위한 체험중심의 다문화 이해활동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환경 및 교육자료 ▪ 다문화 보육 도우미 역할 ▪ 통역 번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학습 ▪ 외국인 학부모 모임 ▪ 부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자원을 통한 문화소개 ▪ 영어 학습 ▪ 지역사회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주제 활동 ▪ 다문화 현장학습

시범운영결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아동들은 체험중심 다문화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또래 관계도 향상되었다. 또한 외국인 아동들도 한국어 학습지원과 다문화보육도우미의 지원으로 어린이집 생활 적응이 용이해지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어린이집의 다문화 환경을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교사들 역시 다문화 주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증대하였다.

2. 다문화 전담 보육시설 사례⁹⁾

서울에 위치한 다문화가정 아동 전담보육시설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로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다문화가정이 해체된 자녀들을 대상으로 주말을 제외한 24시간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2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가. 연혁 및 현황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B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자녀 전담 24시간 보육시설이다. 처음에는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가출을 하거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갈 곳 없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보살펴주는 쉼터로 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2005년 1월에는 보육시설로써 정식인가를 받았다. 보육료 지원은 2007년부터 일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다.

B 어린이집 원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모들과 떨어져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집으로 돌아가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된다. 주중에 교사들은 8시반에 출근해서 6시반까지 근무하고 6시반에 교대하는 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정원은 32명이고 영아반, 2세반, 3-4세반, 유치반, 초등반 각각 1학급으로 총 5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이 7명, 유치원생이 7명, 나머지 18명은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12명으로 조리담당자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각각 1명이고 교사는 총 10명이다. 교사들 중 대부분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교사 중에는 결혼이민자 여성도 1-2명 포함되어 있다.

나. 시설 환경 및 프로그램

B 어린이집은 2층 주택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1층은 영아들과 유아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방 4개와 거실로 이루어져 있다. 2층은 원래 수녀들이 생활하던 공간이었지만 원아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현재는 초등학생과 유

9) 일반가정아동도 이용가능하나, 오랜 기간 동안 다문화가정 아동들만이 재원하여 24시간 보육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전담'보육시설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지원생들을 위한 학습공간과 취침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공간과 취침 장소가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곳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필요하다.

B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가정내에서 폭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아들이 처음 어린이집에 오면 우선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해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치료가 필요한 원아들은 주 3회 심리치료사 3명이 소그룹 단위로 치료를 하게 된다. 현재는 좀 더 좋은 치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면담을 위해 방문했을 때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원아들이 일주일의 대부분을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일 잔치를 할 때는 특별히 가족들을 초대해서 가족 간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별활동으로 체육과 사물놀이가 제공되고 있다. 체육수업은 교사가 주 1회 방문하여 수업을 하며, 사물놀이는 목요일마다 원아들이 근처 기관을 방문하여 배우고 있다.

다. 부모교육

매주 일요일마다 부모들이 원아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오는 시간에 맞추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는 대부분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의 수준에 따라 소그룹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들 대부분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이나 극빈층이 많고 무상교육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한글 교육 이외에 한국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들을 위해 귀화신청이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나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고 부부간 갈등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 줌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다.

라. 지역 센터와의 연계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하는 다문화축제나 가족소풍 행사에 원아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자라

면서 자신의 외모나 어머니들을 보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태극기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학 때는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출신국을 함께 방문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확실히 확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 기관장의 다문화교육 철학

기관장은 50대 중반의 수녀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에서 이민자여성과 자녀들을 도와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을 돕고 있다.

기관장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일반가정 아이들과 구별되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교육철학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앞으로 성장하여 통합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현재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근처 일반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등교해서 공부하고 있다. 원장은 일반 가정 아이들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더 나아가 외국인 부모로 인해 이중언어를 쓸 수 있다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희망하였다.

3. 일반 육아지원기관

본 연구에서 방문한 육아지원 기관은 전담보육시설을 제외하면, 보육시설 8곳, 유치원 5곳이다. 방문기관 선정 기준은 만 6세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많은 지역(표 II-5 참조)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재원하고 있는 기관들이 주로 종교재단이나 국공립에 집중되어 있으며, 설립유형별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아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지면관계상, 먼저 대표적인 기관 사례를 제시한 후, 아울러 이외에 방문한 기타 육아지원기관들의 일반 현황과 다문화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산시 S초등병설유치원

1) 다문화가정 아동 현황 및 가정배경

부산에 소재하는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1992년 12월에 설립되었다. 반일반의 경우 3월 중순까지는 원생들의 적응을 위해 아침 9시부터 11시~11시30분까지 운영되며,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침 9시부터 14:00까지 운영된다. 정원은 85명(3세반 18명, 4세반 26명, 4-5세반 21명)이며 총 4학급(3세반, 4세반 각 1학급과 4-5세반 2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총 3명(3세반 1명, 4-5세반에 각각 1명)으로, 부모 국적 및 직업, 가족관계, 정부지원 수혜여부에 대한 정보는 <표 VI-3-1>에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이 위치한 지역이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 경제적 수준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인근에 부산진시장과 항만이 있어 결혼이민자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실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 어머니가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경우이고 남아 J(7세) 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정은 모두 저소득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표 VI-3-1> 다문화가정 아동의 배경

구 분	G	M	J
나이(성별)	7세(여아)	5세(남아)	7세(남아)
모의 국적	필리핀	베트남	조선족
가족관계(동거인)	아버지(40대), 어머니(30대 초반), 할머니	아버지(40대 중반), 어머니(30대), 형(15세), 누나(8세)	아버지(40대 중반), 어머니(30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직업	부 모	공장직원 출산예정	선장 전업주부 공장직원
경제수준 (저소득신청유무)	신청	신청	신청안함

2) 발달상황 및 기관생활

여아 G(7세)는 현재 반일반을 다니고 있고 등원시에는 어머니가 하원시에는 할머니가 주로 데리러 오고 있다. 어머니는 한국말이 서툴러서 교사와 심도 있는 대화는 힘들지만 여아 G는 한국말도 잘하고 또래들과 관계도 아주 좋은 편이다. 외모에서 약간 차이가 나며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친구들은 알고 있지만 도리어 예

뿐 외모로 인해 인기가 많은 편이다. 유치원 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받은 자원이나 경험이 부족해 실제 가정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에는 어려워한다.

남아 M(5세)도 반일반에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로 진학한 3살 많은 누나는 한국말도 잘하고 보통이상의 학습능력을 보이면서 유치원 생활에 잘 적응했지만 남아 M은 언어가 또래들에 비해 늦어 대화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언어 이외에 신체 활동이나 인지적인 면은 또래들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 아니며, 현재는 같은 재단의 초등학교 상담교사가 일주일에 두 번 관찰과 검사를 병행하면서 언어가 늦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원인이 발달 요인인지 환경 요인인지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유치원에 처음 왔을 때의 웅얼이 수준에서 지금은 친구이름이나 간단한 의사표현은 가능할 정도로 많이 향상하였다.

남아 J(7세)는 어머니가 조선족이고 5살부터 현재까지 3년째 종일반을 다니고 있는데 한국말을 잘 하고 사회성도 좋고 인지적인 면에서도 보통이상이다. 특히 부모님이 모두 일하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조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어머니 또한 관심이 많아 유치원 활동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3) 의사소통 및 양육방식

어머니들의 경우 조선족인 남아 J 어머니 이외에는 모두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교사와 깊이 있는 대화는 힘들다고 한다. 남아 J 어머니는 한국어에 능숙하고 유치원 생활에도 관심이 많아 한달에 두 번 정도 교사와 통화를 하면서 아이의 생활을 챙기고 있다. 또한 유치원내에서 임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에 비해 여아 G 어머니와 남아 M 어머니는 유치원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고 다른 학부모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행사나 알림장 내용은 자녀들에게 직접 알려주거나 아버지, 조부모에게 주로 전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세 가정 어머니들 모두 교육열이 높고 자녀들을 유치원에 꼭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헌신적이라고 한다. 교사들이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얻거나 부모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사들 모두 부모들이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질 거 같아 먼저 정보를 주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와줄 의사는 가지고 있었다.

4) 다문화관련 교육경험 및 교사요구

다문화교육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나 교구는 없지만 다른 나라나 가족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 나라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거나, 다양한 인종의 목각인형을 이용한 역할극을 통해 아이들이 바른 다문화 의식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또한 교육부에서 배포한 다문화교육 자료를 모든 활동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수업내용과 맞는 주제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교사연수나 직무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은 많지 않았다. 여아 G 담당 교사만 교사연수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경험이 있었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교육은 아직 받지 못해 실천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교사들은 학기 초 마다 한국어에 서툰 어머니와 교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통역서비스와 수준별, 연령별로 차별화된 다문화교재가 제공되어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다.

나. 문경시 SB 어린이집

1) 다문화 아동의 현황 및 가정배경

문경시 SB 어린이집은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정원 42명에 현원이 37명이고 영아반, 유아반, 유치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다문화가정 아동은 영아반 3명, 유아반 3명, 유치반 5명으로 총 11명이 다니고 있다. 어린이집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지고 영어, 미술, 전통악기 등 다양한 특별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지리적 특성상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 운영은 힘든 상황이다. 재원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 국적과 아동의 연령, 성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I-3-2> 재원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 성별 및 국적

구분	7세	6세	5세	4세
필리핀	2명(남, 여)	2명(남, 여)	1명(여)	2명(남, 여)
조선	2명(남, 여)	1명(여)	-	-
베트남	-	-	-	1명(여)

교사들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모두 교육열이 높고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아 일반가정 부모들보다 더 협조적인 편이다. 다문화 가정들의 경제 수준은 대부분 평균하이고 다문화가정이나 농어촌가정에 제공되는 보육료 지원 중 한가지 혜택은 모두 받고 있다. 하지만 농촌경제 특성상 고정된 수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한달 평균 2-3만원 선의 특별활동비 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아직까지 내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고 한다.

국적별로 이주여성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 어머니들 평균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다른 나라 출신 여성들에 비해 연령과 학력수준이 높고 비교적 가정도 안정적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베트남 어머니들은 평균 20대 초반으로 남편과 연령차이도 많고 생활력이 강하지 않아 가정내에서 갈등도 많이 생긴다고 한다. 중국 조선족은 외모상으로 차이가 없고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는 다른 나라 출신 여성들에 비해 적다고 한다. 이주여성들 대부분은 한국에 거주한지 평균 5-6년 정도로 한국어는 조금씩 할 수 있지만 학부모 모임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올해 학부모 운영위원회 조 편성을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으로 묶어 진행하면서 가정내 교류를 유도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학부모 모임이나 소풍을 가게 되면 일반가정 부모들과 어울리기보다 다문화가정끼리 모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2) 발달상황 및 기관 적응

담당교사들에 의하면, 대부분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또래관계가 좋고, 고집이 센 편이며, 초기언어발달이 늦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기관 적응도 빠른 편으로 보고된다. 다문화가정 아이들 대체적으로 작년에 어린이집에 들어온 필리핀 가정 아동의 경우 처음 기관에 왔을 때 언어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느리고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적응이 조금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1년정도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현재는 또래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친정에 돈을 지속적으로 보낸다는 이유로 가정내에서 자주 다툼이 생기면서 아동이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여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영아반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어머니 국적이 베트남인 남아 1명, 여아 1명, 중국 한족 남아 1명으로 총 3명이다. 현재는 반 아이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문화 배경으로 생기는 문제는 없다고 한다. 현재 유아반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어머니 국적이 필리핀인 5세 여아 1명, 6세 여아와 남아 각각 1명으로 총 3명이 있다. 특별히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아이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 현재 유치반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어머니 국적이 중국 조선족인 6세 여아 2명과 7세 남아 1명, 필리핀인 7세 남아와 여아 각각 1명으로 5명이 있다. 대부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언어발달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3) 교사와 학부모의 의사소통 및 지도상의 어려운 점

다문화가정 부모들 대부분이 교육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이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외국인 어머니들과 대화는 주로 등하원시나 '일일 건강 언어 전달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가끔 전화통화를 통해 아버지나 시부모와 대화를 한다고 한다.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은 유창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가끔 어머니들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정확한 의미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4) 기관장 및 교사 요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 넓고 차량 임대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운행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경제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활동비와 다양한 교재교구 재료비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사들에게 피상적인 수준이 아닌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식을 알려주거나 그런 상황에 대한 그림이나 시청각 자료가 제공되는 교사연수 기회를 국가가 지원해주길 요구하였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한쪽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PU 유치원에서는 농촌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이 많아 아동의 언어발달상태를 체크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거나 어머니 출신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어머니

와 자녀 모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P유치원에서는 주로 아동이 기관 프로그램들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을 시키거나 통역교사를 지원하면서 적응을 돕고, 외국인 부모들의 자원을 활용해 일반가정 부모나 아동들을 위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면서 교류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 다문화정책연구학교의 운영성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유치원 내부의 다문화 환경조성과 다양한 다문화교육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특정 인종에 대한 선호도의 편향성이 감소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증대하였다.

한쪽 부모가 한국인인 다문화가정이 많은 SH 어린이집과 외국인 자녀가 많은 SM 어린이집의 운영 프로그램은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주로 SH 어린이집에서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이 많아 제대로 간식을 먹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어머니들에게 요리교육을 실시하거나 어머니 국가 문화를 알려 자녀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자녀들이 많은 SM어린이집은 외국인자녀들과 학부모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일반가정 아동과 함께 외국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함으로써 언젠가 부모출신국으로 돌아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변화될 교육환경을 미리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가정 아동에게는 다양한 교육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VII. 국외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정책 및 사례

본 장에서는 국외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과 실천 사례들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미국과 근래에 들어 다문화공생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 등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토, 분석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무엇보다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였다. 벨기에¹⁰⁾와 영국의 다문화정책은 선진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 검토된 적이 드물며, 특히 벨기에의 DECET(Divers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raining)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를 훈련하는 전담기관으로 여러 유럽국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은 소수민족을 포함한 취약소외계층 가정의 영유아를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Children's Plan(2007)에 가정과 영유아를 함께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공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2005)를 실시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왔다.

한편, 아일랜드는 지난 10년간 전례없는 외국인의 유입 증대로 최근 다양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National Childcare Strategy 2006-2010: Diversity and Equality)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Eis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2007년도에 EDeNn(Equality and Diversity Early Childhood National Network)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비록 이상의 세 국가의 국외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어서 대상국가의 사회적, 정책적 배경 다문화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영국과 벨기에의 선진 사례와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정책 추진 배경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0) 벨기에는 네덜란드령과 프랑스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주로 벨기에 네덜란드령(Flemish community)의 다문화가정 지원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함.

1. 벨기에

가. 배경 및 현황

유색인종의 대부분이 극빈층인 Flanders 대도시의 주된 문제는 상당비율의 (6.3%, 4,169명, 2006년도 기준)의 아동이 저소득층에서 출생하며,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10명의 아동 중 거의 6명이 출생 당시 벨기에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아동들이라는 점이다. 2006년 출생한 태아 중 19.1%가 벨기에 태생이 아닌 다른 국적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며, 이 비율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다소 증가했다. 그 출신국을 살펴보면, 모로코(4.5%), 터키(2.9%), 네덜란드(1.6%) 순이고 이외의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러시아(0.6%), 콩고(0.6%)이다.

3세 이하의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아동의 아동보육시설 이용율은 전체 아동의 이용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2004). 보편적인 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한 저소득층 아동은 21.7%, 소수민족 아동은 23.7%에 달했고, 저소득층에 속하는 소수민족 아동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12.7%). 편부모 가정 아동의 이용률(48%) 또한 일반가정 아동의 이용률보다 낮다.

<표 VII-1-1> 벨기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율

구 분	저소득층 집단의 아동보육(기관)의 이용		
	보편적 이용	제한적 이용	이용치 않음
소수민족 아동	23.7	6.7	69.5
저소득층 아동	21.7	5.9	72.4
벨기에 가정의 저소득층 아동	29.7	3.4	66.9
소수민족의 저소득층 아동	12.7	7.9	79.4
편부모 아동	48.0	11.4	40.6
총계	55.7	10.1	34.2

2006년에 다른 나라에서 Flanders로 이주해 온 6세 이하 유아는 3,674명으로 2005년에 비해 18%가 증가하였다. Brussels나 Walloon지역으로부터의 이주해 온 유아의 수는 3,026명에 이르는데,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유아 수 또한 2005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4.8%)(표 1참조).

<표 VII-1-2> 벨기에 이주영유아의 수

구분	다른 지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2005	2006	2005	2006
3세이하 아동	1477	1556	1492	1759
3-6세 아동	1411	1470	1610	1915
6세 이하 아동의 총수	2888	3026	3102	3674

나. 다문화가정 주요 육아지원 정책

1) 사회적 통합정책의 최근 발달

2004년에 ‘지역사회와 이웃 서비스’(Community and Neighbourhood Services: Buurt-en Nabijheidsdienst)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보육시설이용에서 제외된 아동을 위해 구체화된 것이다. 이에 속하는 집단의 비공식적인 장애를 감소해 나가기 위해 교직원들은 지역사회의 부모와 아동을 확실하게 참여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2007년에 평가되었다. 또한 미래를 위해서 Flanders지역은 다문화아동을 위한 보육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입소정책을 비롯하여 다른 보육 서비스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하였다.

최근에 Flemish 정부는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보육을 확대시키기 위해 18백만 유로를 투자했다.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일을 하지 않으나, 직업연수를 원하는 부모의 자녀, 가족이 위기상황에 있는 가운데 취직면접을 받아야 부모의 자녀에게 해당된다.

Flemish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문화배경의 아동을 위한 보육을 조직화하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 부모와 아동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모든 아동에게 보육은 동등하게 명확한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
- 보육은 지역사회 보육의 요구와 필수조건, 즉 적절한 거리와 가정의 경제수준에 맞고 접근가능한 조건에 맞추어 3가지 기능, 즉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은 가능한 자원으로 이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역사회수준에 맞추어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사회 수준 내에서 자원과 노하우를 함께 키워나갈 때 효과적으로 조직적인 보육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런 지역사회 협력을 포괄적인 보육센터(Integrated Child Care Centre)로 지칭한다.

2007년 5월에 이 3가지 아동보육의 기능을 성취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요구하는 16가지 사전연구가 선정되었는데, 접근가능한 보육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그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 사전연구는 다문화배경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보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입소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사전연구는 보육의 요구를 기록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가능한 한 효과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보육이 중앙시스템으로 가동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사전연구의 보육평가 결과는 새로운 입법내용에 기초가 될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 참여율(3-6세)를 한층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보육을 도와줄 협력교사의 수를 보충받게 될 것이며, 미래에는 재무체계(요구에 상응하는 재정수준으로)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벨기에의 최근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며, 둘째,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home visiting)를 통하여 부모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육아정보(유치원 선택기준 등)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지원기관의 커리큘럼 개발에 다문화가정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벨기에의 경우 도시에 이주노동자가 밀집되어 있고 농촌지역에는 거의 없으므로, 다문화배경의 교사를 모집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주요하게 작용한다. 벨기에에서는 각 국가와 문화를 대표하는 다문화배경의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2) DECET(Divers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raining)

DECET은 벨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1990년대에 이르러, 벨기에의 육아전문가들은 이민아동이 보육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교

사 역시 다문화적 배경이 없는 교사들만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소수민족출신의 여성 현황을 조사하는 다문화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벨기에의 전문가들은 비로소 다문화배경의 아동을 위한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고심하게 되었다.

겐트에서 개최된 세미나가 이후에 하나의 네트워크, 즉 DECET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영국(잉글랜드), 프랑스, 덴마크 등이 처음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호주 등이 합류하게 되었다.

다문화의 문제는 인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수준, 빈곤 문제 등 사회의 불평등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잠재해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이다. 그 당시 새로 이민 온 가정들은 양질의 육아시설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는 벨기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수준이 높은 북유럽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DECET목표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및 동료들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아동들과 부모와 동료들에게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고 더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이 장점이므로,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은 필수적이다.

가) DECET의 개요

DECET(Divers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raining)은 유아를 교육하고 훈육하는데 있어 다양성의 가치를 일반적 목표로 하기를 원하는 유럽 여러국가들 간의 하나의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각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문화적인 것과 그 외의 것) 정체성을 기르고 민주적인 아동양육을 교육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DECET의 목표

아동과 성인 모두는 평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 갈 권리가 있다. DECET 네트워크는 아동과 성인이 다 같이 함께 지역사회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함양하여야 한다.

-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기
- 다양한 정체감을 인정하고 길러주기
- 다른 문화를 상호학습하기
- 능동적 시민으로서 참여하기

- 솔직한 의사표현을 통해 편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기
- 편견과 차별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기

위에 제시된 기본원리는 DECET의 목적, 목표 및 내용을 토대로, 이는 모든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벤치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 DECET 네트워크

DECET은 workpacks라고 불리는 하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Workpack은 ‘Participatory Research on Making Sense of Good Practice’이라고 명명되어 있고 독일, 스코틀랜드, 벨기에, 영국, 그리스, 프랑스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Workpack의 구성원들은 육아지원기관 내에서 실제로 다양성 존중을 강화할 수 있는가를 각 국가별로 파악하기 위해서 동료 교사와 부모, 아동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DECET은 육아지원 실제의 질적 기준과 원칙, 또 다양성 존중의 목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Workpack의 멤버들은 이 구성원 국가에서 어떻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 원리와 기준을 적용하였는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일민족 혹은 다문화 국가에서의 각 육아지원기관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태도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교사와 행정가가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 도전하며,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을 더욱 강화시키고, 부모와 아동을 연구 활동에 참여시키며, 다양성 존중의 사례를 예증하고, 다양성 존중을 잘 길러가는 성공적인 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아가는 국가들의 다양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DECET workpack은 원칙들이 각 국가에 적용된 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기준을 확증해 준다. 이에 제시되는 내용들은 관계적이기보다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좋은 사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어떤 것이 기본가치가 될 수 있을지 혹은 아동의 가치를 변화시킬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등과 같은 도전적인 내용일 수 있다.

라) 정보 공유

- DECET의 활동(임무, 목적과 목표)에 관심을 보이는 정책입안자, 전문가와 부모에게 알려주기 위함.
- 유아기에 실제적인 기초신념으로서의 다양성 존중을 증진시키는 면에 대해서 정

책임안자, 직원, 교사, 부모와 아동이 함께 원활한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부정적인 태도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진행되고 있는 다양성 존중의 실체는 더욱 발전시켜 나감.

마) DECET의 6가지 원리

다음은 DECET의 기본 원리이다.

첫째, 모두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교사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일부로서 초대되었고 다문화가정과 아동을 모두 환영하고 있음을 능동적으로 보여준다.
- 육아지원기관은 서비스 기간 내내 지역사회의 모든 멤버들에게 접근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한다.
- 모두의 필요를 인정하고 각 개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 모든 환경과 교육적 과정 안에 모든 가정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 교육기관의 정책, 실제와 조직과 구조들이 투명하다.
-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느낌, 태도를 정기적으로 반영한다.

둘째, 모두 저마다의 다양한 정체감을 길러갈 권한을 부여받도록 한다.

- 전문가들은 각 아동의 다양한 정체성을 제시하여 각 아이마다의 독특한 개별성과 집단정체감을 신장시킨다.
- 모든 가치와 신념-갈등적 상황에서 조차도-이 표현되고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을만 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 아동의 필요, 흥미, 질문과 경험, 아동이 이러한 존중의 정서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가 교육 활동에 주안점이다.
- 아동, 부모와 전문가가 자신의 삶의 대한 이해와 더 큰 지식을 얻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 아동, 부모와 교사는 다른 가정의 삶에 어느 정도까지만 정보탐색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한다.

셋째, 모두가 다른 문화를 상호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가들은 삶의 유사성과 다양성 모두를 존중함으로써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해간다.
- 교사는 생각과 의견들을 교환하고 타협하기 가능한 분위기를 창출한다. 따라서 모든 이해당사자는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능동적으로 함께 구축해간다.
- 전문가들은 모든 이해당사자와 함께 대화를 통해 정보를 함께 구축하고 함께 학습과정을 만들어 간다.
- 기록물은 아동, 부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대화와 반영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 각 전문가는 그 자신의 정보와 가치, 이미지, 정서의 한계상황을 넘어서서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모두가 능동적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아기 교육과 보육 provision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주요한 한 부분이 되며, 교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에 능동적으로 관여한다.
- 전문가들은 모든 아동, 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확인해보고 민주적 구조를 창출한다.
- 부모, 교사와 아동이 모두 함께 매일의 삶을 설계하고 소속감, 주인의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함께 공유한다.
- 육아지원기관은 아동, 가족과 교사들이 공간과 교직원, 장비와 정보와 같은 유용한 자원을 잘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 교사는 다양한 일에 참여하여 지식, 기술과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한다.

다섯째, 솔직한 의사표현을 통해 편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는 교직원 조합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함을 나타내도록 긍정적인 조취를 취한다.
- 육아지원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잘 두드러지지 않는 집단에 속한 가족과 함께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
- 영유아 교사는 편견과 차별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
- 영유아 교사는 불평등, 사회 부조리, 사회 내의 권력 관계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 다문화가정의 아동, 가족의 요구에 맞지 않게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림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형성되어야 할 정책을 옹호하고 조정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여섯째, 편견과 차별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도록 한다.

- 교사는 지역사회와 사회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교사는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속에서 지역사회의 변화가는 요구를 확인하고 분석한다.
- 전문가들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회의 평등을 확고히 하는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밟아간다.
- 육아지원기관은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부모와 교사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활동하도록 운영해 나간다.
- 영유아 교사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경계하며 이를 소멸하기 위한 확실한 과정을 이끌어 간다.
- 영유아 교사는 다양성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공식적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편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2. 영국

가. 지원정책의 법적 기반

1) 배경

영국의 '인종관계법 2000'(Race Relations[Amendment] Act 2000)의 Race Relations Act 1976을 개정한 것으로서 육아지원기관에서 인종평등을 실행함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지를 명확히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인종관계법 2000'(Race Relations[Amendment] Act 2000)은 십대 흑인 소년인 Stephen Lawrence의 살인에 관한 Macpherson 보고서의 결과로 탄생되었다. 이는 1976년의 Race Relations Act에 의해 미처 다루지 못한 대중 권리(public right) 측면에서 인종차별이 불법임을 선포하였다. 1976년 인종관계 법규에서도 인종차별을 금하고는 있지만 이 개정안은 어떠한 대상이든, 어떠한 기능에서든 인종차별은 불

법임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그 법적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다.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Amendment] Act 2000)은 모든 대중(public authorities)에게 일반적 책무를, 그들의 작업에 인종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무(general duty)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몇몇 대중들에게는 일반적 책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구체적 의무(specific duties)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인종평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뜻한다.

2) 인종평등의 일반적 의무와 구체적 의무

인종평등을 위한 공적인 의무 가운데 일반적 의무는 대중이 다음의 요구들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 불법적인 인종차별 자제하기
- 평등의 기회 촉진하기
- 타 인종집단들 간의 원만한 관계 촉진시키기

한편, 구체적 의무는 대중이 일반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조정해가야 하는지에 관한 3년간의 전략과 행동 계획인 ‘인종평등 전략체제(Race Equality Scheme)’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Race Equality Scheme은 인종간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기능 및 정책을 논하는 것이다.

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1) 공적 권위

영국은 인종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 권위’와 책임을 강조한다. ‘공적 권위(public authority)’는 공공의 특성을 가진 조직으로,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적 조직을 포함한다. 정부단체, 지방단체와 Primary Care Trusts가 공적 권위의 대표적 사례이다.

파트너십은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의 대표가 함께 이룩한 하나의 조직이다. 다양한 인종의 가족 및 유아와의 파트너십을 위해 일하는 광범위한 조직을 포함한다. 이 자체로는 공적이 아니며 인종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 때문에 스스로 결속되지 못한다. 그러나 대중이 전체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파트너십

의 한 구성원인 곳에서는 파트너십에 의해 수행되는 일 내에서 인종평등을 촉진한다는 일반적, 구체적 책무가 포함된다. 파트너십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 사적, 상호 의존적인 지역사회 조직들이 인종평등 의무만이 아니라 인종차별에 대한 법규에 의하여 결속되어 있다.

2) 평등 모니터링

평등에 관한 정책들이 실제로 수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민족평등 모니터링(ethnic monitor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니터링은 직업, 입학과 경험, 기회와 관련된 각 민족의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잠재적인 불평등에 대해 규명하고 타 인종 간의 원만한 관계와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정책 수행의 방법이다.

다. 육아지원기관을 위한 다문화 존중의 지침

지방 교육행정가와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유치원과 보육 시설은 인종평등에 대한 일반적 의무 및 구체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의 여섯 단계를 거친다.

첫째,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 인종평등에 관한 육아지원기관의 정책, 절차와 실재를 조사하고 기관에서 인종평등을 촉진한 것에 대하여 평가하기
- 특정 인종집단의 가족에게 이점 혹은 장점을 제공하는가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와 가족을 위해 행한 것에 대한 결과 평가 방법을 간구하기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후원과 충고를 수용하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연수에 참여하기
- 모든 교직원들이 법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둘째,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인종차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 특정 인종집단에 대해 어떤 차별을 가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정책과 절차, 실재를 점검하기
- 모니터링하고 재고하기- 인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 차별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한 정책, 절차와 실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 확인 후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제한하기

셋째, 기회균등을 촉진시켜야 한다

- 환경 내에서 모든 이가 동등하게 가치를 부여받고 동등한 존경과 관심 속에서 각각의 필요가 다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 각각의 아동과 가족이 학습과 경험, 자원 활용의 유용한 기회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동등한 접근성과 권한에 대해 점검하기

넷째, 다른 인종집단 사람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촉진시키기

- 자신과 다르거나 같거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긍정적 태도와 행동을 보이도록 교육하기
- 이미 습득된 부정적 행동과 태도를 제거하기
- 다른 사람의 삶의 양상(예 그들의 피부색깔, 신체특징, 문화, 언어나 종교)에 대해 자신의 것보다 가치가 덜하다고 여기거나 인종적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기

다섯째, 지방정부와 육아지원기관 및 유아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실제 적용하기

- 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조성하도록 돕기
- 일반적, 구체적 책무에 대한 훈련 제공하기
- 정보 및 추천사항을 제공하고 후원하기
- 환경공유를 위한 자원 후원하기
- 교사들이 차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도전하도록 돕기
- 근무환경 내에서 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협력자 제공하기
- 계약 및 지원내역 안에서 책무의 원리를 준수하기 위한 필수사항 확인하기
- 정부허가 후 모니터링의 실제 진행여부 확인하기

여섯째, 훈련에서 배운 것을 실제 적용하기

- Children's Information Services(CISs)는 책무를 수행한다.
- 모든 기관과 유아를 위한 네트워크는 인종평등정책을 수반한다.
- 기관에 의해 수집된 인종에 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고 분석한다.

- 인종평등의 원리는 훈련과 교육을 통한 습득과정의 핵심이다.
- 민간단체의 구성원들은 인종평등이라는 공공의 책무가 스스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라. OFSTED와 LSC, TTA에 의한 모니터링

Sure Start Unit(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의 한 부서)은 매년의 고찰과 자체 평가관정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소수민족과 그 자녀들에 대해 행한 모든 결과를 모니터할 책임을 다하는지 점검한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통해, Ofsted는 기관들이 모든 유아(평가부문 122번 안의 기준 9와 평가부문 10번)에게 기회균등과 반(anti)차별화를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자들이 수정된 Race Relations Act의 적용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Learning and Skills Council과 Teacher Training Agency는 유아교육 교사와 종사자들이 그들의 훈련(교육)과정을 통찰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현장교사 재교육을 통해 교사에게 지식과 정보, 기술을 제공한다.

마. 다문화가정 부모참여전략

아래는 런던 지역교사협회의 후원 하에 Siraj-Blatchford & Brooker에 의해 행해진 연구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 연구는 7개 학교, 3-7세와 6-11세 아동과 함께 것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기관에의 참여를 증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안녕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는 프로젝트 환경 안에서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다음은 아동의 발달과 부모참여에 관한 문헌과 연구결과에 근거한 권고사항이다.

1. 다문화배경의 부모들은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교사는 아동이 가정과 이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교육적 경험을 하게 되고 부모와의 파트너십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2. 모든 교직원 유아교육기관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구축하고,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야 한다.

- 규칙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
 - 자녀와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다문화가정 부모와 함께 정보를 나누려는 의지를 갖기
 - 교육과정, 아동의 평가와 같은 주요이슈에 대한 부모의 관점과 함께 아동에게 조언이 될 만한 정보를 부모를 통해 알아보려는 의지를 갖기
 - 목적을 설명하고 경청하는 자세 갖기
 - 함께 일하려는 의지와 책임감을 공유하기
 - 모든 부모 각자가 중요하고 유아교육기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 부모들이 항상 자신의 감정과 관점,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되고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하기
 - 부모의 다양한 언어, 가족구성, 문화·종교적 배경들이 중요하며 이를 기관에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고 느껴지게 하기
4. 직원 및 교사들은 자기 기관의 모든 직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전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당일의 몇 가지 활동사항을 매일아침마다 부모를 위해 전시하는 것도 좋다.
 5. 부모가 받는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처음 방문한 기관의 환경은 그 기관이 표방하는 가치를 말해주게 된다. 지역사회활동과 이벤트에 대한 다문화적, 다언어적 자료와 유아의 작품이 담긴 밝고 생기 있는 환경은 부모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6. 부모와 그 부모의 아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가치 있고 매우 환영을 받을만한 서비스이다.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마다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를 갖고 있다.
 7.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은 경영 위원회 내에 부모를 참여시키는데 종종 소수민족에 대한 것은 반영하지 않은 한다. 교사는 학급, 성별, 인종, 장애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는 모든 부모의 필요에 더욱 균형 있게 발맞춰가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들과 의사를 서로 교환할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3. 아일랜드

1) 배경

아일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부가적인 중재와 자원의 필요 속에서 특수한 집단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 6세 의무교육 이전에 2년간의 유치원 시기를 제외하고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사회에 여성 지위의 변화와 함께 직업 시장과 교육에의 여성참여율이 특히 증가하게 되면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서비스에 취약할 수밖에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2) 사회통합 지원정책

과거 10년 동안 사회적 통합문제와 함께 교육적으로 취약한 유아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Early Start 프로그램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취약한 40개 학교의 3세 이하 유아를 위해 1996년 이래 시행되어 온 시범프로젝트이다. 이것은 매년 1600명의 유아에게 교사와 보조교사를 교직원으로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인지적 발달을 가져왔다는 증거는 제시하기 힘들지만 사회성 발달과 학교 준비도 면에서는 몇 가지 발달의 증거를 제시한다.

유랑민 지역에 3세 아동을 위한 50개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은 교육과 과학부에 의해 재정보조를 받는다.

Equal Opportunities Childcare Programme(EOCP)은 2000년에 취약지역 안에 아동 보육 서비스를 위해 교직원을 배치하고 또 다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능력이 부족한 부모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National Schools에서의 유아 학급을 위한 서비스는 제한적이기 하지만 언어교육을 보조하는 교사에 대한 후원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

아일랜드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균등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해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의 지원책으로 간주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고 실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아동취원·입소 정책과 절차에 대한 평가

-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성에 대한 지식
- 소수집단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지역의 City/County Childcare Committee나 관련 단체내의 다양성 정책 전문가와 연관을 맺고 있는가?
-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
 - 다문화가정이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정보를 얻는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언어능력이 있는가?
- 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 문서화된 가족용 핸드북을 비치하는가?
- 교육기관을 배정받기
 - 대기자 명단 파악.
 - 교육기관을 배정할 때에 당신은 어떤 사적기준이나 편견에 따라 우선권을 주고 있진 않는가

나) 다문화배경 교사채용의 평등성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동일한 문화배경의 교사를 임용하여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채용의 평등성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연관을 맺어야 한다. 또한, 1998~2004년의 Employment Equality Acts에 수록된 교사의 법적 책무를 교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다. 경영진과 교사는 전 채용과정 중에 어떠한 편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견이 교사의 직업 수행 과정 중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한, 평등한 채용 기회를 주어야 할 책임에 관한 이슈를 가족이 알 수 있도록 팜플렛 등을 제공한다.

3) 지역 네트워킹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관점과 피드백을 얻는다. 지역의 네트워킹 구축 단계는 다음과 같다.

- ①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보육 서비스, 지역사회 보육단체나 기관과의 관계 형성하기
- ② 다문화 정책과 반차별주의 그리고 자발적 혹은 강제적 단체로부터 법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 ③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창출하라. 각 모임마다 논의주제를 선택하고, 자신에게 발생하는 의문과 사건을 공유하고 문서화하기
- ④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시간 할애하기. 각자가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서로 충분한 시간을 나눌 필요가 있다.

VIII. 정책 방안

본 연구는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하여 관련 국내 선행연구 및 정부지원 정책과 사업, 국외 정책사례들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실태와 기관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정부부처가 최근 발표한 다문화정책(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 [2008.10]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 마스터플랜의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계획」 [2008.10])(III장 참조)의 기초 및 비전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앞서 연구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추진 중 또는 예정인 과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정책 방향

- 다문화 및 일반가정 영유아의 통합 교육·보육
- 다문화가정 영유아 연령별 맞춤형 지원
- 다문화가정과 영유아 지원에 대한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 강화
-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부모의 참여 활성화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
- 초등학교 다문화교육과의 연계 강화

첫째,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일반가정 아이들과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교육·보육한다.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앞으로 성장하여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써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전담시설 등 별도의 기관에서 돌보고 교육하기보다는 일반기관 내에서 통합하여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효과적인 육아지원의 방식이다(OECD 2006; UNESCO, 2008). 또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거나 인종, 종교, 언어 등의 측면

에서 낙인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역경을 극복하는 내적인 강점과 발달적 탄력성 및 회복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OECD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성공적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적절한 지원활동과 교육적인 환경이 제공된다면 일반가정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빨리 학습하고 발달할 수 있음을 신뢰한다(OECD, 2006).

둘째, 다문화가정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관련연구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기관에의 적응 수준과 과정이 다르다. 또한 일반가정의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적 경향에 따라 다른 유형의 부모 도움이 필요하듯이,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가정 양육환경의 특수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적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영아는 언어발달과 정서적 안정, 기본생활습관형성에, 유아는 또래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성장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 기관요인, 사회요인 등을 고려하여 개별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심한 성장 지원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개별화된 성장지원을 계획함에 있어서, 다문화 영유아의 강점을 파악하고 최대한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국가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예: 이중언어 구사 능력 함양 등).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정책 방향이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가정외의 환경으로서 제반 대인관계의 사회적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기이며, 자아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영유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가정과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다문화가정 자녀양육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다문화 배경을 가진 부모의 관점(가치관 및 철학, 신념, 실제 양육방식 등)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육아지원기관은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기 위하여 가정 및 부모와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 의무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여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관주도형이나 점차적으로 민간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과 사업이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참여적인 접근으로의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며, 아울러 일반가정의 영유아 및 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단순히 외국문화로서 베트남문화, 몽골문화 등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안에서 이러한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우러져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창조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육아지원기관, 즉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2010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수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초중등학교의 지원 기능 및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고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및 시도 관련업무 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2008.12)의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실행가능성을 검토한 후 일부 사업을 취학 전 기관에도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자녀 통합교육 시범 유치원 지정 및 운영, 기관 일부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외국인 어머니를 외국어 학습 등의 보조교사로 활용,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과제

첫째,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와 스웨덴의 경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대만의 경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육아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3월부터 핀란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가정 아동보다 육아지원기관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영국 EPPE(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종단연구(2004)에서 입증하였듯이, 양질의 육아지원기관을 다닌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시점에서 인지적, 사회적 발달 수준이 높으며, 초등학교 적응이 용이하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육아지원기관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투자이다.

둘째,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관련 지원 정책과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한다. 현재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개발되

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개발 및 보급에 앞서 더 근본적으로 아일랜드의 국가지침처럼 육아지원기관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원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에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에 준하여 각 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관정책수립을 통하여 교사가 육아지원기관 내에서 차별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부모와의 연계 등을 점검함에 있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에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지도실태 및 요구에 차이가 있다. 즉, 유치원이 보육시설에 비하여 외국인 부모 출신국의 동화책이나 관련 도서, 의복, 악기, 장식품 등의 물건을 더 다양하게 비치하여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나으며, 특히 일반가정 아동 대상의 다문화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시설에서 유치원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구하고자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가정보육시설이 다문화적 환경이 미비하고 다문화관련 연수 경험 및 정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기관유형 및 설립유형, 지역별로 육아지원기관에 차별화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다문화배경의 영유아교사 채용을 시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아마도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와 외국인 부모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육아선진국들에서 이미 시행해 오고 있다. 우선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훈련된 다문화배경의 교사인력 풀을 파악하고, 이들을 특히, 초기 기관 적응을 조력할 수 있도록 연수하여 활용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부모지원을 위한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 선행연구와 OECD국가의 정책 이슈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교사는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상당수의 교사들은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이 없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존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 확대하여 양성학과의 대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실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연수과정에 다문화가정과 기관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부

모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 즉 부모에 경청하기, 부모 지원하기, 다양성존중 및 참여의 가치 공유하기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Vandenbrock, 2007). 다문화가정의 부모참여를 성공적으로 유도한 Head Start Project의 경우, 프로그램 수립과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부모참여를 필수사항으로 하였고, 교사는 수시로 다문화가정 부모와 협의하고, 부모에게 건강, 영양, 아동발달 및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을 교육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교육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차이, 즉 가정과 기관의 가치관의 잠재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제고하고, 편견과 차별 등을 지양하기 위하여 다른 문화에서의 자녀양육과 육아지원 실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 몽골과 베트남 부모의 유아기 자녀교육 특성비교 연구」(나정, 1999)와 같은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외국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 출신국의 언어를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습득할 수 있도록, 스웨덴과 같이 'Mother Tongue Site'를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이중언어 습득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말도 서툰 영유아에게 시기상조로 여길 수 있으나, 많은 연구들은 이중언어의 습득이야말로 자아정체감은 물론 학습성취에 장기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곱째,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무료 건강검진 및 발달검사를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 발견하여 처치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관련 정책 및 서비스들에 대하여 추진 방법, 예산 규모 및 성과 측면 등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양육 방문교육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와 지도사의 만족도와 요구에 대한 설문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지도사가 작성한 활동일지의 심층분석, 예산사용의 적절성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준거와 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범부처간의 지원정책 체계적인 조정 및 협력을 통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정책 수요자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센터와 중앙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정책공급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지원 정책의 전달체계에 있는 다양한 지원기관들, 즉, 시군청, 교육청,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건

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등의 각각의 강점을 살려서 공동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 상세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 연령별, 성별, 부모국적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기관설립유형별, 이용시간, 비용, 정부지원 현황 등에 대한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기회를 사각지대 없이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휘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 경북교육청(2008). 다문화가정 자녀현황.
-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지원 실천사례 나눔대회-행사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다문화교육센터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95-124.
- 금명자(2006).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실태.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경숙·공진희·이민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교육 참여에 대한 질적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 김영옥(2002). 유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6(2), 5-38.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황정미·이진영(2007).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2007).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순·김형균·박경태·설동훈·심보선·엄한진·윤인진·전광희(2006).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응-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김희태·권영덕(2007).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 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 나정·장명림(1999). 한국, 몽골, 베트남 부모의 유아기 자녀교육 특성 비교·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특성화사업단(2007). 다문화가족백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민경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박경자·김송이(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한국아동학회지**, 28(5), 91-108.
- 박정숙·박옥임·김진희(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재규(2005).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2005년도 한국 사회학회 전기 사회학 대회: 한국 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 박종보·조용만(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국제노동법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2008).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기본계획
- 설동훈·박경태·이란주(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미래인력연구원
- 설동훈·이혜영·조성남(2006).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서현·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신경희·양성은(2006). 국제결혼 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 양애경·이선주·최훈석·김선화(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07). 아시아 여성 이주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한국여성학 30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7).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 1호
- 오성배(2005). 한국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탐색. **한국교육**, 32(3), 61-83.
- 윤희원·이수미·이상일(2006).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윤갑정·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26(2), 147-68.
- 이송은(2008).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문학활동 실행연구: 필리핀 모-자를 대상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65-285.
- 이순형·문무경·최연실(2006). 농촌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방안. 농림부.
- 이윤애(2005).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여성의 정착지원 방안. 전북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전북지역 이주여성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
- 이진숙(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21-42.
- 임진숙(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 관계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청구논문.
- 장미혜 외(2008).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 전혜정(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정일선(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이창호·권순희·서덕희·이은하(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옥라·박재묵·설동훈·신광영·이송희·이은주·정민자·조은·조희금·최병두(2006). 다문화 개방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연구.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정희·배재정(2006). 대구 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 자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장수생활과학연구소
- 지성애·정대현·김경숙·김현주·채영란·김지예(2006).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비교. **유아교육학회지**, 19(4), 351-369.
- 통계청(2008). 2007년도 혼인통계 결과 재구성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7).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국제 심포지엄-미래사회의 다문화가족.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지**, 39(1), 195-243.
- 한국염(2006).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원원전략은 가능한가?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정책 다시보기 자료집.
- 한석실(2007). 다문화시대 유아교사교육의 방향 모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29-53.
- 행정자치부(2008).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기원·백영경·노명우(2006).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유치원 영역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유치원 총론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
- Be11, A, Bryson, C., Barnes, Matt, & O'Shea, R.(2005). *Use of childcare among families from minority ethnic backgrounds*,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UK.
- Derman-Sparks, L., & the ABC Task force(1989).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hsington, NAEYC.
- Irish Office of the Minister for Children(2006). *National childcare strategy 2006-2010: Diversity and equality guidelines for childcare providers*, The Stationary Office Dublin: Ireland.
- Mac Naughton, G. (2003). *Shaping early childhood, learners, curriculum and contexts*, England: Open University.
- Murray, C. & O'Doherty, A.(2001). *'eist' Respecting diversity in early childhood care, educational and training*, Dublin, Pavee Point Publications.
- OECD(2008).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08 Edition Summary in Korean*
- Siraj-Blatchford, I.(1994). *The early years: Laying the foundations for racial equality*. Staffordshire, Trentham Books.

부 록

II.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및 급식

1.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 : 아동)
2. 교실에 비치된 다문화 영유아 부모님 나라에 관한 동화책 및 아동용 도서
 1) 거의 없음 2) 5권 미만 3) 6권 이상~10권 미만 4) 10권 이상
3. 교실 또는 복도 등에 다문화 영유아 가족사진 전시·부착 여부
 1) 항상 부착되어 있음 2) 활동주제에 따라 이따금씩 전시
 3) 거의 전시한 적이 없음 4) 기타(적어주세요:)
4. 교실 내 활동영역에 다른 나라 악기, 옷, 물건, 세계지도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정도
 1) 매우 다양하며 풍부함 2)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음 3) 별로 비치되어 있지 않음
5. 다문화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가정의 음식문화 및 음식 선호도를 고려·반영하는 정도
 1) 상당 수준 고려함 2) 약간 고려함 3) 거의 고려하지 못함

III.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

6.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활동 계획에 담당하시는 다문화 영유아의 요구를 고려·반영하는 정도
 1) 상당 수준 고려함 2) 약간 고려함 3) 거의 고려하지 못함
- 6-1. 다문화 영유아의 요구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는?
 1) 일반아동과 별 차이점이 없으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 다문화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3) 별도로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 기타(적어주세요:)
7. 교육·보육 활동시 다문화 영유아의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관련활동 제공 정도
 1) 자주 제공 2) 가끔 제공 3) 제공한 적이 없음
8.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아닌 일반가정 영유아들에게 다문화 및 다문화친구에 대하여 교육하는 정도
 1) 자주 교육함 2) 가끔 교육함 3) 별로 교육하지 않음
9. 선생님께서 다문화 영유아 지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부분 **(1가지만 선택)**
 1) 건강 및 영양 2) 언어발달(우리말습득) 3) 정서적 안정감
 4) 기본생활습관지도 5) 사회성발달(친구관계) 6) 자아 정체감 형성
 7)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8) 기타(적어주세요:)

III. 다문화가정의 참여 및 기관과의 연계

10. 귀 원에서는 (또는 선생님께서는) 다문화가정 부모님의 요구를 어떤 통로를 통하여 수렴하시는지 **해당사항에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 1) 기관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협의회에 다문화가정 부모님을 포함함.
 2) 연간 1~2회 실시하는 학부모 면담을 통한
 3) 등하원시 다문화 학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4) 기타(적어주세요:)
 5) 다문화가정 부모님의 요구를 수렴하는 통로가 별로 없음
11. 다문화가정 부모님이 귀 원 또는 선생님께 **주요** 요구 또는 건의하는 사항 **(2가지 선택)**
- 1) 자녀 신체발달 및 건강 2) 식습관 및 영양관련 3) 한글교육(언어발달)
 4) 또래관계지도 5) 문화체험 6) 교육비, 보육료 경감
 7) 등하원 차량 운행 8) 기타(적어주십시오:)
12.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돌보고 지도하기 위하여 선생님께서 부모님에게 **정보를 구하는 정도**
- 1) 주 3회 이상 2) 주 1-2회 3) 월1-2회
 4) 3개월에 1-2회 5) 연간 1-2회 6) 거의 구하지 않음
13. 선생님께서 (또는 귀 원에서) 다문화가정 부모님에게 제공한 적이 있는 정보의 종류
- 1) 제공한 적이 거의 없음 2) 육아정보 3) 교육비·보육료 지원관련
 4) 외국인 부모대상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한글교육, 보육도우미, 자녀양육교육 방문사업 등)
 5) 일상생활 정보 5) 귀화신청서류 및 절차 6) 기타(적어주세요:)
- 13-1. 제공한 적이 거의 없다면, 그 이유는?
- 1) 다문화가정 부모님이 바빠서 만나지 못하므로 2) 교사 자신의 다문화관련 정보가 부족하므로
 3) 다문화가정 부모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우려하여 4) 기타(적어주세요:)
14. 다문화 영유아의 외국인 부모님을 초빙하여 교육·보육 활동시 자원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용한 경험 여부
- 1) 있음 2) 없음
15. 원 행사 및 부모참여활동시 다문화가정 부모님과 일반가정 부모님과의 교류 정도
- 1) 활발한 편 2) 보통 3) 거의 교류가 없음
16. 선생님께서 (또는 귀 원에서) 일반가정 부모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상호 교류 및 도움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거나 안내문을 보낸 경험 여부
- 1) 있음 2) 없음

17.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말로 대화가 어려운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와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1가지만 선택)**
- 1) 등·하원시 직접 외국인 부모와 만나서 2)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부모 및 조부모를 통해서
- 3) 다른 다문화가정 부모를 통해서 4) 개별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을 통해서
- 5)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8. 다문화 가정 외국인 부모님과 아동양육 및 지도방식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1) 있음 2) 없음
- 18-1. 양육방식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느낀 경험에 대해 적어주십시오(예: 어떤 베트남 어머니는 분유를 만4세 자녀에게 먹이기를 고집하여, 여러 차례 원의 급간식에 대해 설명하여 나중에 이해시킴, 등)
- (※ 매우 중요하니, 경험이 있으신 경우 꼭 적어주십시오)
- _____
- _____

IV. 다문화 영유아지도 관련 교사 인식 및 요구

19. 선생님께서 다문화 영유아를 지도할 때 느끼시는 어려운 점(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2가지** 표시)
- 1)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도자료의 부족
- 2) 다문화 교육에 관한 교사 자신의 지식이나 이해 부족
- 3) 특정 민족이나 인종, 문화에 대한 교사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 4) 다문화 영유아 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
- 5)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연계 부족
- 6) 기관장이나 동료교사들의 지지체계 부족
- 7)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부족
- 8) 다문화 영유아지도에 대한 교사교육의 부족
- 9) 기타(적어주세요: _____)
20. 선생님께서 다문화 영유아 지도와 관련된 지식을 주로 얻는 경로(**해당사항을 모두 표시**) (중복응답 가능)
- 1) 교사연수 2) 인터넷 3) 서적
- 4) 신문 및 방송매체 5) 동료교사 6) 다문화가정 부모
- 7)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_____)
21. 선생님께서 다문화 영유아 지도에 관한 교사연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1) 없음
- 2) 있음(연수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세요: _____)
22. 다문화 영유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생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사연수 내용
- 1) 다문화이론에 대한 체계적 지식 2)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방법
- 3) 다문화적 교실환경 마련 4)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지도 방법
- 5) 부모참여 및 교육 방법과 5) 기타(적어주세요: _____)

23. 선생님께서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시는 정도

구 분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거의 모름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빈곤층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보건소에서 다문화가정의 임신과 출산 관련하여 지원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한글교육 지원			
빈곤층 다문화가정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아동양육 방문교육 서비스			
아동 보육도우미 파견			
아동의 학습지도를 위한 희망교육사 파견			
기초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에서 생활정보 제공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일자리 알선			

24. **다문화 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원 서비스는?(2가지 선택)

- 1) 보육료·교육비 지원
- 2) 양질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기회 제공
- 3) 자녀 학습지도 지원
- 4) 자녀양육 상담
- 5) 필요시 아동도우미 파견
- 6) 자녀 건강검진
- 7) 어머니 한글교육
- 8)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 9) 부모 취업교육 및 취업기회 제공
- 10) 필요한 정보 제공
- 11) 기타(적어주십시오:)

25. **귀 원에서** 다문화 영유아지도를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지원(2가지 선택)

- 1) 다문화관련 교수활동자료 지원
- 2) 순회 등·번역도우미를 원에 파견
- 3) 다문화 교구 및 교재 지원
- 4) 차량운행 지원
- 5) 무료 정기 건강검진 지원
- 6) 다문화배경의 교사 임용 및 파견
- 7) 다문화관련 교사연수 제공
- 8) 부모교육 및 참여 행사 및 활동 지원
- 9) 다문화 영유아의 문제행동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심리 및 언어치료를 원에 파견
- 10) 기타(적어주십시오:)

26. 이외에 귀 원에서 다문화 영유아지도를 위해 정부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부표 1> 2007년도 아동양육지원 방문서비스 실적 현황

지역	운영기관	1차(건)										2차(건)											
		친인 부모 상담 상담	아동 상담 상담	문화 이해	간강 관리	생활 지도	학습 지도	인성 지도	이동 지원	지원 연계	기타	친인 척 상담	아동 상담 상담	문화 이해	간강 관리	생활 지도	학습 지도	인성 지도	이동 지원	지원 연계	기타		
서울	동대문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491	12	411	372	249	531	1176	195	22	17	0	407	21	300	237	159	446	1216	288	29	7	14
	영등포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648	8	265	338	272	489	878	216	53	19	0	707	71	524	691	304	922	1418	230	179	57	89
	용산구 간강가정지원센터	471	31	335	278	335	349	690	335	80	66	22	596	38	255	371	453	899	16	784	131	138	1
부산	부산사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991	127	755	974	862	1423	1358	678	133	55	0	696	48	410	833	553	1282	1403	443	174	30	0
	부산(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996	48	696	248	206	648	2168	140	56	20	50	625	23	291	385	201	1010	1090	334	157	6	1
	대구(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570	27	542	383	266	677	1577	366	169	44	41	384	14	449	215	267	641	1450	220	136	46	10
대구	인천(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851	51	424	427	248	641	1578	339	73	48	0	429	42	319	268	166	553	1714	540	59	17	20
	광주(서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603	64	233	294	250	731	2004	1070	74	27	40	523	21	152	293	215	538	1981	676	124	26	56
	대전(중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46	13	218	126	83	140	540	68	52	7	0	335	36	236	544	206	511	1871	207	183	51	40
울산	울산(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870	151	555	349	447	734	1350	347	74	26	0	1101	110	586	518	927	890	2334	319	114	42	146
	남양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363	45	123	164	91	399	768	155	74	43	45	343	50	180	262	166	439	1007	190	124	45	98
	안양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686	126	347	403	400	626	1273	687	78	63	0											
경기	안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142	97	533	369	413	930	1253	331	264	58	13											
	수원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강원	원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57	16	224	281	131	318	839	230	80	17	14	282	29	206	466	135	499	999	377	108	44	58
	춘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519	64	328	141	160	340	614	143	152	71	0	618	170	313	409	87	570	814	194	119	72	91
	강릉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685	17	381	277	118	417	815	169	221	27	25	752	39	135	377	353	600	819	155	334	153	75
충북	청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086	57	814	477	446	647	1504	408	209	22	52	785	8	576	369	291	785	1502	639	84	7	16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979	41	372	424	906	587	823	838	151	43	119	388	16	66	224	484	631	624	794	32	12	10
	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528	81	423	388	283	566	1321	195	74	3	6	447	57	490	571	287	970	1528	125	118	3	197
충남	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959	172	927	643	575	1009	1404	631	40	5	0	757	65	645	466	325	110	1506	494	8	1	2
	익산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414	12	231	90	628	832	633	117	111	16	8	860	15	175	128	758	915	442	80	99	1	10
	순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902	145	346	293	413	891	1386	514	121	12	4	181	68	284	195	162	580	1646	407	212	20	67
전남	장수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259	82	609	362	301	472	1412	732	185	10	3	925	42	257	813	272	548	1372	771	226	86	30
	나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610	80	394	332	102	571	1641	494	88	41	16	600	60	217	417	201	466	1523	559	138	54	4
	구미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27	24	153	305	328	689	994	260	58	17	5	127	28	131	442	236	628	1437	96	163	21	30
경북	예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803	170	673	481	270	710	1395	539	81	126	0	872	54	712	411	366	758	1439	504	94	5	0
	진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481	183	433	447	637	865	1635	309	114	31	1	413	47	185	408	552	738	1312	576	54	11	104
	김해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975	66	356	479	501	936	1918	445	133	146	9	927	88	465	507	264	847	1439	336	184	184	5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915	81	819	395	404	863	1724	679	67	33	8	688	68	490	289	279	612	1681	488	104	34	40
	총계	20,527	2,091	12,680	10,540	10,325	19,031	35,681	11,570	3,067	1,113	481	16,333	1,468	9,653	12,365	6,842	21,173	39,072	11,289	3,711	1,314	1,54

자료: 2007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중앙강가정지원센터(p10)

<부표 2> 사업운영기관현황 및 서비스 현황

지역	운영기관	수탁기관	도우미수(명)		지원대상가정	
			1차	2차	1차	2차
서울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7	8	35	35
	영등포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7	10	33	49
부산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7	7	34	33
	부산(사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여성문화관	8	8	40	40
대구	부산(남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여성회관	7	7	35	35
	대구(남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불교사회복지회	9	9	45	44
인천	인천(남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10	10	49	48
	광주(서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	10	10	50	50
대전	대전(중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8	9	42	46
	울산(남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9	11	33	56
경기	남양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7	9	36	35
	안성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안성종합사회복지관	7	1차	33	1차
강원	속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속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8	사업	35	사업
	강릉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재)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2차사업	7	2차	34
충북	원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무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7	7	사업	35
	속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명륜종합사회복지관	5	6	26	29
충남	충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충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5	6	25	21
	강릉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홀트아동복지회강원아동상담소	5	8	25	27
전북	정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8	8	45	40
	익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옥천한국어학당	7	8	45	40
전남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공주시독교종합사회복지관	8	8	39	46
	금산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금산문화원	8	8	41	44
경북	익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8	8	43	40
	장수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호남사회연구회 논실마을림들	9	8	37	38
경남	순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8	8	40	40
	나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전남센터	6	8	43	40
제주	구미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아름다운가정민들기	7	9	34	45
	예천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예천군청	7	8	35	39
제주	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진주YMCA	8	8	41	42
	김해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8	9	34	43
합계	제주자치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9	9	44	47
	총계		220	237	1,097	1,161

자료: 2007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07)

<부표 3> 민간기관의 다문화 지원사업

민간기관 명	지원 사업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학교운영(어린이교실 준비중)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자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새터민 다문화 청소년 종합지원 사업 ▪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초등용도 보급) ▪ 다문화가정 자녀 전문가 양성교육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1.대안학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초중등과정 대안 학교 추진.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 2. 아주이주아동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아동센터, 전문도서관 운영 3.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및 다문화사회 이해,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각종 리서치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이주아동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연구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 모성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주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산후 조리를 위한 사업과 신생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사업을 지원. 임신출산 교육, 육아지도/ 산전산후 돌봄/ 신생아용품 지원 2.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입은 외국인여성, 임산부가 안정된 휴식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3.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주여성에게 외국인 노동자의료공제회와 무료진료소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분만, 신생아 지원 등 모성보호를 위해 의료지원) 4. 국제결혼가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가정이 겪는 가족갈등과 자녀문제의 해소를 위해 국적별 모임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사)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다문화국제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 전담 학교 ▪ 한국어와 영어, 제2외국어로 수업을 진행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1. 교육훈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캠프 2. 상담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문제(폭력, 자녀 문제 등) 로 신청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상담 3. 그 밖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교육교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민간기관 명	지원 사업
한국디지털 대학교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한국어교육·문화소양교육 ▪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 다문화가정 가족(자녀 포함)
아시아-태평양 소수민족 체험관 홈페이지	1. 다문화영상학교운영 ▪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여러나라 학교, 어린이생활, 어린이 놀이 등 다양한 자료 제공 2. 다문화 사진교실, 다문화교실, 다문화자료실에 다양한 다문화자료 제공
어울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센터	1. 다문화가족자녀들을 위한 일요학교 ▪ 부모나라와 친숙해지는 시간 마련. 다문화가정자녀로서 정체감과 자신감 확립 2. 다문화가정 어머니 지원 ▪ 출산지원, 상담 3. 어울림학교 어린이교실
국경 없는 마을	다문화체험교실 ▪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자녀 대상별 체험교실 운영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지구촌학교(8-20세미만) ▪ 외국인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한국생활 및 한국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방과 후 학교 ▪ 방과 후 학습지도 /한국문화체험, 지적 성장교육 ▪ 문화생활, 특별활동 지원/의료비 및 생활비, 장학금지원 및 간식제공 ▪ 각종상담(학교입학, 진로, 생활, 의료 등)
코시안의 집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교육기관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 ▪ 코시안 스쿨운영(한국어, 특별활동 지도) ▪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 매주 방문하여 양육, 의료, 가족 상담 지원 ▪ 공동체 모임과 행사 -다문화가족모임, 부모 교육, 가족캠프, 명절 행사 등

<부표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3개년 협동연구(1차년도)

연구제목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결과 및 제언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1차년도 연구의 목적 및 하위 6개 연구(6개)	1.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대한 전반적 탐색 2.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은 부정적이지 않지만 이주자를 내집단으로 수용하는 데는 소극적 태도 보임 3. 선진국과 개도국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적 수용성 존재 4. 이주자와 한국인 간의 관계의 제약과 이주자를 직접 접하는 한국인의 태도가 더 배타적 5. 향후 이주자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변화 가능성 큼
황정미 외(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1.다문화사회의 변화를 겪는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 분석하고 정책 기본방향 모색 2.만 19세 이상 남녀 1,203명 설문,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4가지 차원으로 측정	-한국인은 다문화사회로 진입 체감. 이주민을 내집단으로 수용은 지체 -다양성 수용정도와 이주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세대별, 소득수준따라 차이를 보임 (제언) 1. 가정, 학교, 사회로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2. 지역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관련 연구 활성화
양애경 외(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연구	1.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 서비스 제공 담당자 인식, 수용지점 확인 2.도시, 농촌 지역 지역주민(23명), 다문화 관련 서비스 담당자(22명)	1. 한국인의 수용성과 다문화 사회 인식은 가부장제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되거나 동화를 전제로 한 제한성 있음 2. 언어장벽으로 사회 구성원, 이민자 관계성 취약 (제언) 1. 다문화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전형 모색 2. 친다문화적 지역환경의 조성 3. 여성결혼이민자 지역구성원들 상호관계성 증진
조혜영외(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1.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 실태 파악 2.학교현장 참여관찰 학생 및 교사 심층 인터뷰 방과 후 프로그램 참관, 면담	1.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 실태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 부적응을 단순문제로 취 -일반아동과 친밀한 관계 형성 소극적인 태도 -출신국가별로 차별화된 수용성 2.교사들 인식 -정보, 준비가 부족해 여러 어려움 직면 -다문화자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성 인식 (제언) 1.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보장 2.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 및 초기적응 기제 마련 3. 다문화가정 부모 문화에 대한 자긍심 교육 4.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강화
이태주 외(2007)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일본, 호주의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정책 분석	1. 호주의 다문화정책 특징: 이중성 -국가주도 이민 통제 관리: 공평한 기회, 다문화 시민권 보장 -백인 우월주의, 선별적 이민으로 자국내 경제력, 군사력 강화

연구제목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결과 및 제언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적 접근 방식으로 인한 갈등 개연성 높음 2. 일본의 다문화정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체 중심 정책(중앙정부는 지자체 지원) -정부 차원의 법, 제도 정착 안됨
한건수 · 설동훈 (2007)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이주민 정책 분석 2.문헌연구, 이주자 설문,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주자의 어려움(언어, 가난 등) 2. 이주자의 삶의 질, 만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관대함, 배타성 혼재 3. 이주자의 정부정책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이주정책 정보 부족 및 인지도 낮음 4. 이주자들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프로그램의 전문화, 내실화, 유연한 정책 -한국인을 위한 다문화교육 필요 -정부와 지역간 원활한 정책과 정보 전달체계 구축

<부표 5>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연구 요약

연구(년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방법 (대상, 자료수집방법 등)	본 연구 관련 주요 연구결과
설동훈외 (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한국인 남성과 결혼 한 외국인 여성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와 보건· 의료 욕구파악 지원정책 제시	① 다문화가정 945쌍 표본 설문면접조사(3주) ② 여성결혼이민자 심층 면접(27명) ③ 결혼이민자남편·시댁식구 참여 관찰 - 총 6개월 연구진행 ④ 중국 국제결혼 중개업자 (6명) + 국내 활동중인 결혼중개업체(24개) 면접	1. 낮에 자녀를 돌보는 사람: 본인이나 남편(37.6%), 유치원 (14.5%) 2.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48.5%), 종교기관 (16.1%),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운영기관(15.1%) 3. 자녀양육의 어려움(미취학 자녀):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34.1%), 아동 돌봄 사람 없음 (28.2%) 4. 자녀양육·교육 문제 주로 결정하는 사람: 부부 공동 결정 (59.7%), 어머니가 결정(22.4%)
설동훈외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 1. 전국적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와 가족 생활 실태 파악 2. 사회문화적 욕구 파악 3. 다문화 가족 중장기 지원 정책 방향 정립	① 다문화 가정 1177쌍설문 ② 심층면담(결혼이민자 20명) -총 45일 연구진행 ▪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항목 ① 다문화가정가족관계 (자녀수, 가족현황, 관계 육아방식) ② 다문화 가정 아동 사회 적응	1. 다문화가정 가족관계 현황 1) 취학 전: 44.7%, 학령기: 55.3% - 유치원 및 어린이집: 31.0% - 초등학교: 21.3% - 중학교 이상: 3.0% 2. 자녀 육아방식(자녀양육 및 보육) 1) 자녀양육·교육문제결정 주체: - 부부공동결정: 59.7% 이민자 결정: 22.4%; 한국인 배우자결정: 17.8% 2) 취학 전 자녀 주양육자·양육기관 - 본인 및 배우자: 44.0%; 보육 시설: 10.0%; 유치원: 7.2%; 아이 혼자 지냄: 38.1% 3. 한달 평균 보육료: 약 28만원 4. 자녀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 남보다 가족 및 친구가 잘 돌봄 (35.7%); 비용부담(31.1%); 안심할 보육시설 부재(7.1%); 교통 등 접근성 문제(0.8%); 기타(25.1%)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조사·분석 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 제공	1. 문헌분석 2. 현장교사, 자원봉사, 다문화 가정 부모 및 자녀 면담	1. 어머니 한국어 실력 낮을수록 자녀 학업부진 심함 2. 자녀들은 한글 맞춤법에 어려움을 느낌
이순형·문무경· 최연실(2006) 농촌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	농촌지역 국제결혼 현황을 알아보고 농촌여성결혼이민	1. 여성결혼이민자 및 남편 설문조사(여성이민자:166 명, 남편 141명) -여성이민자 면접조사(12명)	1. 미취학자녀 기관이용현황: 이용시설종류, 시설이용시 어려움점, 보육시설 적응정도, 자녀적응에 도움 되는 요인, 시설 이용시 염려사항 2. 부모교사관계: 교사와

연구(년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방법 (대상, 자료수집방법 등)	본 연구 관련 주요 연구결과
지원방안 연구 (농림부)	자의 요구에 기반한 생활실태와 적응 성공사례를 분석 하여 정책과제 시사점 도출	-관련기관 담당자 면접조사: 결혼이민 공무원, 베트남 호치민 영사, 사회복지사, 교육담당자, 결혼중개업체 종사자 -공무원(144명)전화 면접조사	의사소통정도, 의사소통 어려움 이유, 의사소통방식 3. 자녀능력 및 기관생활: 자녀들 한국어 실력, 집단따돌림 경험여부 4. 자녀양육: 자녀인생에서 중요한점, 양육으로 인한 갈등 5. 부모자녀관계: 자녀와 대화정도, 대화 어려운 이유
김이선 외(2007)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 1차년도)	다민족·다문화사 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세부과제: ①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②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③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④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⑤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 과정: 호주와 일본 사례 ⑥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장혜미 외(2008)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 2차년도)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세부과제: ① 다문화 사회의 전개양상과 문화정책 방향 ② 다문화사회에서의 학교교육 ③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지형과 쟁점 ④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 및 정책과제 ⑤ 진정한 통합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민여성 문화교육 ⑥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전혜정 외(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 상태 측정, 성장지원 방안제시	1.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상태 파악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 측면 2. 다문화가정 어머니 생활 파악 -한국어 능력, 정신건강, 사회적 지원 수혜정도 및 만족도, 부 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한국적응의 어려움, 희망 프로그램 3. 아동발달 사정도구 개발 4. 중앙과 지방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현황 5. 전문가 인터뷰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프로그램 제안	

<부표 6> 관련 일반연구 요약

	저자 (년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자료수집 방법, 3) 수집기간]	주요 연구결과	제언/ 시사점
유아의 기관 적응 및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윤갑정·고은경 (2006)	다문화배경 유아의 육아 지원기관 적응양상 파악	1) 인도네시아계 한국유아 1명(만 6세), 페루계 한국유아 1명(만6세), 일본계 호주쌍둥이 2 명(만 5세) 2) 참여관찰(16회), 심층 면담 2회(교사 2명) 3) 약 4개월	-참여유아들 전반적으로 기관에 잘 적응 -다문화가정 유아들 문화적 정체성은 국적 이나 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보다 개인이 겪은 가족 간 경험, 사회적 관계 등 개인 변인 관련 더 큼	-다문화 배경 뿐만 아니라 유아의 개인 특성에 초점 을 맞춘 다문 화 교육필요
	구수연 (2007)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과 자녀에 대한 이해	1) 인도네시아계 한국유아 1명(만 4세), 조선족 한국유아 1명(만4세) 2) 참여관찰(유아 2명), 심층면담(6명 교사+ 2명 원장) 3) 약 4개월, 1주일 2회	-다문화 가정 유아는 놀이나 또래관계에서 가정적 배경 나타나지 않음 -교사들이 다문 화 가정 자녀들 에 대한 구체적 지식 부족	
	김희태·권영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와 또래 와 상호작용 이 육아지원 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1) 만 3세여아(한국아버지 & 귀화한 어머니) 2) 참여관찰(유아 1명) 3) 약 6개월	-또래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기관 적응과 사회적 유능감 증가됨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다문화 유아교육이 필요함
	박경자·김송이 (2007)	농촌 다문화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애착 표상,자아지각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성 파악	1) 만3,4-5세아 총 151명 (다문화가정 유아 60명 & 일반가정 유아 91명) 2) 유아태상검사 (애착표상 자아지각 등), 교사대상 설문(유아의 사회 유능성) 3) 약 4개월	-농촌지역 다문 화가정 유아의 안정 애착비율 같은 지역 내 일반 유아들과 차이 없음 -일반유아들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 더 보임	
	서현·이승은 (2007)	농촌 국제 결혼 가정 자녀 삶을 통해 교육적 어려움 파악	1) 다문화 가정 자녀, 한국아버지, 조부모, 다문화가정 담당 교사 각15명 2) 심층면담(각 8회씩) 3) 약 8개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부모양육 태도, 외모로 인한 정체성 혼란, 언어문제 등으로 어려움 겪음	-다문화 가정 유아, 부모, 교 사, 지역 사회, 육아지원 기관 입장에서 폭 넓은 지원 필요
부모의 양육 태도· 양육	이진숙(2007)	다문화가정 의 자녀양육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	1) 취학 전 및 초등자녀 를 둔 국제결이주여성 2) 설문조사 (242명) 3) 약 1개월	-3세 미만 아동 주로 가정에서 양육되며 보육 시설 3세 이후 이용	-3세 미만 아동 을 위한 가정 내 양육 지원 필요

	저자 (년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자료수집 방법, 3) 수집기간]	주요 연구결과	제언/ 시사점
실제에 관한 연구		실태 조사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버지 학력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	-아버지 대상 교육프로그램 필요
	임진숙(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 태도의 차이 를 알아보고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 사회능력관계 파악	1) 만 3,4,5세 유치원생 107명+ 어머니 107명 2) 어머니: 양육태도 측정: -MBRI(양육태도검사지) 3) 유아 ① 언어능력측정:k-wppsl ② 사회능력 측정: 사회적 능력검사지	-자녀와 대화시 한국어 사용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모국어 사용 어머니보다 자율적임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 태도는 유아의 언어 능력(이해력), 사회 능력(협조성)에 긍정적 영향 미침	
	지승희 외(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자녀양육 경험, 자녀 관계 파악	1) 한국인 남편을 둔 외국인 여성 8명 -결혼 5년이상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 -학령기 자녀 둔 여성	-가족들과 양육방식 차이로 인해 가장 어려워함 -자녀 지도시 한국인의 정체성과 어머니 나라 자부심 중 어느 것을 강조할지 혼란스러움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 은 '한국인' 으로 인식 -자녀와 상호작용은 신체접촉 통한 애정표현 더 많고 표정, 몸짓은 자녀 마음 알아차림 -자녀가 능력있는 사람이 되길 기대 -자녀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것이 부모역할로 인식	
영유아 교사의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 지도에 관한 연구	지성애·정대현 (2006)	다문화 교육에 대한 유치원교사 와 초등학교 교사 인식과 다문화교육 의 운영실태 비교	1) 유치원교사, 초등1,2 학년 교사 각각100명 2) 온라인 설문조사 3) 약 10일	-초등교사 다문화교육 경험과 교육에 대한 이해도 유치원교사 보다 높음 -유치원이 초등 보다 다문화교육의 현장적용 더 많고 실시시간 김 -다문화교육 문제점 지적 ①유치원: 교사 지지 체계 부족 ②초등학교:다문화교육 이해·지식부족	
	김경숙·공진희 (2007)	다문화가정 유아를 지도 하는 교사관점 통해 다문화 가정 부모의 특성 파악	1) 유치원교사 6명 2) 심층면담 약 2개월	-다문화가정 어머니 유치원 활동에 정기적 으로 참여 -대화에 소극적, 폐쇄적 태도 -다문화 가정과 연계된 교육 활동에 어려움 있음	-농촌 및 도시 지역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유아들 위한 지원체계 필요

	저자 (년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자료수집 방법, 3) 수집기간]	주요 연구결과	제언/ 시사점
	한석실(2007)	다문화시대에 부흥하는 유아교사 교육방향 제시	-문헌연구	-다문화, 다문화교육 미국 교사교육 모형· 변화과정 분석 -유아교사교육방향 제시	
육아지 원기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연구	정정희(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 학습능력 증진과 정체성 함양 -일반유아, 초등학생들 다문화 이해 증진	▪ 프로그램 개발절차 -다문화가정 자녀 -일반유아, 초등학생 ① 설문조사: 다문화가정 어머니 한글 구사능력, 자녀 교육실태, 교사들의 교육 이해와 지도방법 조사 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자녀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및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일반유아, 초등학생용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③ 프로그램 적용 -다문화가정 자녀용: 어린이집 (2곳), 유아18명 대상 8주간 주 3회 -일반유아, 초등학생용: 어린이집(2곳), 초등학교(2곳), 재원하고 있는 모든 아동 대상으로 8주간 주 2회 ④ 프로그램 수정 및 교사연수 실시		
	조경서 외(2007)	유아교육현 장에 필요한 다문화교육 교수자료, 무모용지침서	▪ 프로그램 개발절차 -다문화가정 자녀 + 일반유아 ① 기초조사: -문헌연구 -유치원내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전국300개 유치원 다문화교육실태 + 교사인식 ② 프로그램 구성 -활동(29개), 동화(3개), 동요(4편) ③ 유치원에 시범적용 후 프로그램 수정·보완		
	이송은(2008)	다문화 관련 문학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머니 나라 에 대한 태도 변화 및 효과 적인 활동탐색	▪ 활동 적용 내용 -필리핀 출신 어머니 + 자녀 5쌍 -활동시 어머니 나라 문화 소개, 한국문화와 유사점 탐색 -3개월간 15회(주1-2회, 1-1.5시간) -어머니 4회부터 수업참여	▪ 활동 결과 -어머니 나라 문화, 특종인종국가에 대한 거부감 감소 -효과 큰 활동: 양국문화이해하기, 부모-자녀 함께 책읽기 등	

<부표 7> 설립유형별 다문화가정 아동 수 및 비율

단위: 기관, %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비율	표준편차
국공립 어린이집	1	13	5.0	9.2	10.22
민간어린이집	1	24	4.5	7.4	7.24
법인어린이집	1	20	5.4	8.8	7.28
가정어린이집	2	13	5.7	32.7	25.01
국공립유치원	1	8	1.8	10.7	14.21
사립유치원	1	5	1.6	2.2	2.51
전체	1.2	13.0	4.0	11.8	3.0

<부표 8> 설립유형별 교실 내 다른나라 악기, 옷, 물건 비치 정도

단위: 기관, %

	매우 다양하며 풍부함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음	별로 비치되어 있지 않음	전체	χ^2
국공립어린이집	1(4.6)	13(59.1)	8(36.4)	22(100.0)	23.54**
민간어린이집	2(5.4)	22(59.5)	13(35.1)	37(100.0)	
법인어린이집	1(2.9)	19(55.9)	14(41.2)	34(100.0)	
가정어린이집	0(0.0)	3(30.0)	7(70.0)	10(100.0)	
국공립유치원	1(2.0)	34(69.4)	14(28.6)	49(100.0)	
사립유치원	10(15.6)	43(67.2)	11(17.2)	64(100.0)	
전체	15(6.9)	134(62.0)	67(31.0)	216(100.0)	

**p < 0.01

<부표 9> 일반가정 영유아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정도

단위: 기관, %

구분	자주 교육함	가끔 교육함	별로 교육하지 않음	전체	χ^2
국공립어린이집	1(4.6)	12(54.6)	9(40.9)	22(100.0)	21.99*
민간어린이집	0(0.0)	24(64.9)	13(35.1)	37(100.0)	
법인어린이집	2(5.9)	15(44.1)	17(50.0)	34(100.0)	
가정어린이집	0(0.0)	3(30.0)	7(70.0)	10(100.0)	
국공립유치원	4(8.2)	38(77.6)	7(14.3)	49(100.0)	
사립유치원	5(7.8)	39(60.9)	20(31.3)	64(100.0)	
전체	12(5.6)	131(60.7)	73(33.8)	216(100.0)	

<부표 10> 설립유형별 다문화 영유아 지도에 관한 교사연수 경험 여부

단위: 기관, %

구 분	없음	있음	전체	χ^2
국공립어린이집	18(81.8)	4(18.2)	22(100.0)	14.61*
민간어린이집	34(91.9)	3(8.1)	37(100.0)	
법인 어린이집	30(88.2)	4(11.8)	34(100.0)	
가정 어린이집	6(60.0)	4(40.0)	10(100.0)	
국공립 유치원	32(65.3)	17(34.7)	49 (100.0)	
사립 유치원	44(68.8)	20(31.3)	64(100.0)	
전체	164(75.9)	52(24.1)	216(100.0)	

<부표 11> 설립유형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인지도(다문화가정 부모에게 한글교육)

단위: 기관, %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거의 모름	전체	χ^2
전체	59(27.3)	101(46.8)	56(25.9)	216(100.0)	
시설유형별					31.13**
국공립어린이집	14(63.6)	6(27.3)	2(9.1)	22(100.0)	
민간어린이집	12(32.4)	19(51.4)	6(16.2)	37(100.0)	
법인어린이집	8 (23.5)	18(52.9)	8 (23.50)	34(100.0)	
가정어린이집	3(30.0)	5(50.0)	2(20.0)	10(100.0)	
국공립유치원	16(32.7)	2(42.9)	12(24.5)	49(100.0)	
사립유치원	6(9.4)	32(50.0)	26(40.6)	64(100.0)	
지역별					17.26*
수도권	12(22.2)	19(35.2)	23(42.6)	54(100.0)	
충청권	12(30.0)	23(57.5)	5(12.5)	40(100.0)	
호남권	16(39.0)	15(36.6)	10(24.4)	41(100.0)	
영남권	16(25.4)	34(54.0)	13(20.6)	63(100.0)	
강원/제주	3(16.7)	10(56.6)	5(27.8)	18(100.0)	
교사경력별					16.81*
3년미만	8(25.0)	15(46.9)	9(28.1)	32(100.0)	
3년-5년미만	7(17.1)	20(48.8)	14(34.2)	41(100.0)	
5년-10년미만	17(21.8)	38(48.7)	23(29.5)	78(100.0)	
10년-15년미만	11(30.6)	18(50.0)	7(19.4)	36(100.0)	
15년이상	16(55.2)	10(34.5)	3(10.3)	29(100.0)	

*p < 0.05, **p < 0.01

<부표 12> 설립유형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인지도

단위: 기관(%)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X ²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국공립 사립		
빈곤다문화 영유아지원							
잘 알고 있음	18(81.8)	15(40.5)	13(38.2)	5(50.0)	16(32.7)	16(25.0)	83(38.4)
조금알고 있음	3(13.6)	16(43.2)	14(41.2)	4(40.0)	29(59.2)	24(37.5)	90(41.7)
거의 모름	1(4.6)	6(16.2)	7(20.6)	1(10.0)	4(8.2)	24(37.5)	43(19.9)
생계비/의료비 지원							
잘 알고 있음	9(40.9)	8(21.6)	4(11.8)	0(0.0)	9(18.4)	4(6.3)	34(15.7)
조금알고 있음	6(27.3)	16(43.2)	17(50.0)	6(60.0)	20(40.8)	20(31.3)	85(39.4)
거의 모름	7(31.8)	12(32.4)	13(38.2)	4(40.0)	20(40.8)	40(62.5)	96(44.5)
아동양육 방문교육							
잘 알고 있음	7(31.8)	5(13.5)	6(17.7)	2(20.0)	11(22.5)	5(7.8)	36(16.7)
조금알고 있음	8(36.4)	13(35.1)	16(47.1)	3(30.0)	14(28.6)	17(26.6)	71(32.9)
거의 모름	7(31.8)	17(46.0)	12(35.3)	5(50.0)	24(49.0)	42(65.6)	107(49.1)
아동학습지도 희망교육사파견							
잘 알고 있음	5(22.7)	3(8.1)	3(8.8)	1(10.0)	14(28.6)	3(4.7)	29(13.4)
조금알고 있음	10(45.5)	16(43.2)	15(44.1)	3(30.0)	8(16.3)	15(23.4)	67(31.0)
거의 모름	7(31.8)	17(46.0)	16(47.1)	6(60.0)	27(55.1)	46(71.9)	119(55.1)
지자체 생활정보 제공							
잘 알고 있음	6(27.3)	3(8.1)	4(11.8)	1(10.0)	9(18.4)	3(4.7)	26(12.0)
조금알고 있음	11(50.0)	21(56.8)	21(61.8)	6(60.0)	26(53.1)	25(39.1)	110(50.9)
거의 모름	5(22.7)	11(29.7)	9(26.5)	3(30.0)	14(28.6)	36(56.3)	78(36.1)
전체	22	37	34	10	49	64	216(100.0)

*p < 0.05, **p < 0.01

연구보고 2008-04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방안연구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35-6 93330